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위촉연구원 : 송의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이주노동자·초국적 결혼·다문화·저출산·가족해체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중 하나는 가족유형의 다양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친부모가족은 안정적이고 그 외의 가족은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가족구성원인 아동·청소년들에 관해서도 양친부모가족의 자녀만을 정상으로 보고, 다른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가족유형에 속하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녀가 받는 심리적 소외감과 생활전반에 걸친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 관심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망과 문제의 분석 그리고 대응책에 대한 포괄적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며,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구체적으로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할 정책내용을 학교생활 지원 정책, 가정생활 지원 정책,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 정책,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보호 지원 정책, 여가생활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고, 개발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적 시행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다양화된 가족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성장동력으로 자라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구를 담당한 성윤숙 박사와 김영한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시기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중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부모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는 조손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시도 경험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군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 가출예방 교육 및 가출청소년 긴급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인간관계는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이 많았으며,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문제에서 물리적 폭력 가해·피해경험, 친구들과의 욕설사용 가해경험은 한부모가정 자녀가 조손가정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에 대한 공개적 반항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생활의 경우 지역사회의 도움 정도와 지역사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약물비행에서 서울이 음주경험이 가장 높았고, 흡연경험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유해업소 출입은 시·군에서 가장 높고,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면과 학원방문시간은 조손가정이 더 높았으며, TV시청시간은 한부모가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 여가생활 중 공공시설 이용정도는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주 사용용도는 통화와 문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분석을 토대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가족유형, 가족구조,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며,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국내외의 한부모·조손가정 관련 아동·청소년 실태 및 관련 정책 방안 등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고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 및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및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 분석

○ 조사대상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표본은 602명이었으며, 조사영역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로 구성되어 있음.

가정생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 자녀보다 높고, 가족관계 중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서울이 광역시보다, 상층이 중층보다 부모와 친하게 지내고 있음.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조손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시·군이 광역시보다, 하층이 중층보다 낮았음.

가출시도 경험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비슷했고, 경제수준이 낮은 시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많아 가출예방교육 및 가출청소년 긴급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학교생활 조사결과, 인간관계는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친구 간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 자녀보다 높았음. 학교문제에서 물리적 폭력 가해·피해경험, 친구들과의 욕설사용 가해경험은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높고, 남자와 하층에서 매우 높았음.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가해경험이 높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피해경험이 많았음. 수업 시 교사의 욕설사용, 공개적 망신, 친구들 사이 교사에 대한 욕설정도는 시군에서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공개적 반항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음.

○ 지역사회생활 조사결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도움 정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높고 지역사회 만족도는 상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문제행동에서 약물 및 생활비행은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아동·청소년들이 더 높았고, 시·군단위로 갈수록,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확률이 높아졌음. 약물비행에서 서울이 음주경험이 가장 높고, 흡연경험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았으며, 남자와 시·군, 하층에서 높았음. 생활비행에서 유해업소 출입은 시군에서 가장 높고,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여가생활에 있어 수면과 학원방문시간은 조손가정이 더 높았으며, TV시청시간은 한부모가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매체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가생활 중 공공시설 이용정도는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더 높으며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음. 정보화생활에서 컴퓨터·인터넷 이용횟수는 남자로 시·군에 살고 하층인 경우에 가장 많았음. 휴대전화는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많이 보유했음.

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였음.

○ 정책지원은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여가생활 지원, 위기가정 지원, 지역사회안전망정책, 방과 후 자녀지도 및 보호 영역과 영역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 학교생활 지원 정책으로는 학교 폭력관련 예방 시스템 개선, Wee 프로젝트의 확대 실시 및 전문인력 배치 강화, 부적응 학생 담당 교사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제도 도입, 부적응 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학교-지역사회 연계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했음.

○ 가정생활 지원 정책으로 한부모,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해 교육비 감면혜택의 범위확대 실시, 급식비, 보충수업비 또는 방과 후 활동비, 교복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만 12세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 지급에서 월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령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에 맞게 18세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선지급 제도 도입이 요구됨. 창업자금을 융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초기에 교육-관리 등 컨설팅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수급자 선정방식을 포괄급여 방식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개별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립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수급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한 자녀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의 동선에 맞추어 읍·면·동 단위의 수준으로 확대 설치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야간·주말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함.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도화로 부자가정의 경우는 식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 조손가정은 손자녀 양육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부모가정은 발달단계별로의 상담서비스가 요구됨.

○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사례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한부모(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CYS-Net의 운영 개선을 위해 실행위원회는 광역단위에 설치·운영하며, 시·군·구에는 운영협의회와 1388지원단만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했음. 지역사회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을

제도화하고 재가복지차원에서 한부모가정지도사가 직접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조손가정은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해 부모의 역할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양부모제도와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보호 지원 정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입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대표적으로 아동에 대한 직접 보호 지원 정책인 아동학대 보호시설 확대, 긴급보호체계 구축, 드롭인센터 운영, 청소년쉼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음.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으로 학대아동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교육강제권 제도’ 도입과 미국의 트리플 P 시스템과 같이 부모에게 기본적 자녀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미디어나 지역기관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과 보다 전문적으로는 위기가정의 부모들에게 필요한 자녀양육의 기술을 면대면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요구됨. 우리의 경우 시민운동차원에서 부모모임 등이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끌어 들어와야 함. 그 외 위기가정을 위하여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야간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 귀가동반자제도 등 야간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음.

○ 여가생활 지원 정책 중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은 현재 바우처의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18세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해당 기관에 조세감면을 지원. 방과 후 체육활동 활성화 및 1인 1체육교육 실시하고 아동·청소년발달 이력관리제를 통하여 스포츠 활동 경력을 자기계발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화 활동 지원 정책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제도에서 연간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 및 문화특기생 지원이 필요함. 정보화 활동 지원 정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위기아동·청소년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에 게임중독 예방 및 올바른 PC 사용,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2장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11
1. 조사개요	11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4
3. 조사결과 분석	17
제3장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91
1. 조사개요	91
2. 조사결과	96
제4장 결론 및 제언	117
1. 결론	117
2. 정책 제언	125
참 고 문 헌	159
부 록	167
1.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 설문지	167
2.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1차)	177
3.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2차)	181

표 목 차

〈표 II-1〉 설문조사협조 기관 지역 현황	12
〈표 II-2〉 배경변인 현황	17
〈표 II-3〉 한달 용돈	18
〈표 II-4〉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19
〈표 II-5〉 아르바이트 시기	20
〈표 II-6〉 가장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	21
〈표 II-7〉 부모 외의 경제적 도움 경험 여부	22
〈표 II-8〉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23
〈표 II-9〉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	24
〈표 II-10〉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25
〈표 II-11〉 가족과의 관계 -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26
〈표 II-12〉 가출 시도 경험	27
〈표 II-13〉 가족들의 음주모습 목격 횟수	28
〈표 II-14〉 가족들의 말다툼 목격 횟수	29
〈표 II-15〉 부모의 폭력사용 여부	30
〈표 II-16〉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 횟수	31
〈표 II-17〉 학교활동 -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32
〈표 II-18〉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33
〈표 II-19〉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34
〈표 II-20〉 학교활동 -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35

〈표 II-21〉 학교활동 -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36
〈표 II-22〉 학교활동 -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37
〈표 II-23〉 학교활동 -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38
〈표 II-24〉 학교활동 - 나는 친구들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39
〈표 II-2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40
〈표 II-26〉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41
〈표 II-27〉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42
〈표 II-28〉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	43
〈표 II-29〉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	44
〈표 II-30〉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45
〈표 II-31〉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	46
〈표 II-32〉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47
〈표 II-3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48
〈표 II-34〉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설을 사용하신다	49
〈표 II-3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50

〈표 II-36〉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	51
〈표 II-37〉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52
〈표 II-38〉 학교활동 -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53
〈표 II-39〉 학교활동 -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54
〈표 II-40〉 학교활동 -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55
〈표 II-41〉 학교활동 -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56
〈표 II-42〉 학교활동 -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57
〈표 II-43〉 지역사회 활동 -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58
〈표 II-44〉 지역사회 활동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59
〈표 II-45〉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	60
〈표 II-46〉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	61
〈표 II-47〉 이웃들과의 관계	62
〈표 II-48〉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술을 마신 적	63
〈표 II-49〉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적	64
〈표 II-50〉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본드를 흡입한 적	65
〈표 II-51〉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66
〈표 II-52〉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 등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	67

〈표 II-53〉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	68
〈표 II-54〉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하였다	69
〈표 II-55〉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70
〈표 II-56〉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 적(가출)이 있다 ...	71
〈표 II-57〉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게임, 성인잡지 등을 보았다	72
〈표 II-58〉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유흥업소 술집,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을 출입하였다	73
〈표 II-59〉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추행(강제로 여성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했다	74
〈표 II-60〉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했다	75
〈표 II-61〉 학교 수업 시간외 활동 시간	77
〈표 II-62〉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78
〈표 II-63〉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79
〈표 II-64〉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80
〈표 II-65〉 여가 시간 보내는 방법	81
〈표 II-66〉 컴퓨터 보유 여부	82
〈표 II-67〉 컴퓨터 이용횟수 (일주일 기준)	83
〈표 II-68〉 인터넷 이용횟수 (일주일 기준)	84
〈표 II-69〉 휴대게임기(닌텐도, X-Box, PMP 등) 이용횟수(일주일 기준)	84
〈표 II-70〉 휴대전화 보유 여부	85
〈표 II-71〉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86
〈표 II-72〉 휴대전화 주 사용용도	87

〈표 Ⅲ-1〉 분야별 델파이조사 전문가	92
〈표 Ⅲ-2〉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93
〈표 Ⅲ-3〉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94
〈표 Ⅲ-4〉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친구와의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97
〈표 Ⅲ-5〉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98
〈표 Ⅲ-6〉 가정문제 해결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99
〈표 Ⅲ-7〉 낮은 성적과 수업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0
〈표 Ⅲ-8〉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1
〈표 Ⅲ-9〉 문화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2
〈표 Ⅲ-10〉 정보화 활동 지원 대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3
〈표 Ⅲ-11〉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4
〈표 Ⅲ-12〉 자녀의 생활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5
〈표 Ⅲ-13〉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취업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6
〈표 Ⅲ-14〉 자녀의 양육자 수급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7
〈표 Ⅲ-15〉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8
〈표 Ⅲ-16〉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관련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09
〈표 Ⅲ-17〉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모자가정, 부자가정)	110
〈표 Ⅲ-18〉 조손가정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11
〈표 Ⅲ-19〉 학업지도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12
〈표 Ⅲ-20〉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13
〈표 Ⅲ-21〉 생활지도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14

〈표 IV-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따른 세부 정책추진과제	121
〈표 IV-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14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아동·청소년지원 법제도 및 정책을 총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외국의 법제도 및 정책을 조사한 후, 양자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외사례를 유출해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조사대상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의 표집사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의 연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특별히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분리하여 두 가족유형의 자녀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보다 더 명확히 분석하고 그들이 접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두 가족유형은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한 부모가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심리적,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 대인관계,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심리적 역기능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성혜·한유진, 1995; 권복순, 2000; 김경신, 2002; 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옥선화, 2003; 조성연, 2003; Hetherington, Cox & Cox, 1982; 조성연, 2004 재인용). 또한 한 부모가정의 아동은 이혼이나 사별로 부모를 상실한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고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응 문제(Attar-Schwartz et al., 2009)가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의 하락, 학교생활 부적응, 분노나 공격성과 죄의식, 자아개념 저하, 비사회적 행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보경, 2001; 조성연, 2004; 지은선, 2002; 이봉주·김광혁, 2007; 최명구·이인수, 2004; Shin et al., 2010).

조손가정의 경우 다른 유형의 위탁가정보다 보호자가 고연령이거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강현아, 2005; 김봉미·이재연, 2006 재인용), 어쩔 수 없이 아동을 떠맡게 되는 위탁동기 및 질환(허남순, 2004), 생계문제와 가장으로써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부담(Berrick & Barth, 1994; 김봉미·이재연, 2006 재인용) 등으로 양육환경의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은 가족 및 친족과의 실질적인 가족단절로 사회적 관계망이 소원하고, 사회적 소외감, 낮은 부모역할의 만족(남명숙, 1999; 이화진, 2004; 정란, 2003; 정선규, 2004; 조성신, 1999; 주봉관, 2000; 채해경, 2002; Timonen et al., 2009)을 나타내는 등 아동양육 및 훈육행동의 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

가족 위기상황에서 대리양육가정의 위탁부모인 조부모는 친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으며(강성희·김주희, 1997),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만족도는 전반적인 불만족을 나타낸다. 이는 대리부모로서 조부모가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정부지원 부족, 법적 문제, 일상생활변화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 어려움(김미혜·김혜선, 2004; Jendrek, 1993; Minkler, 1994; Minkler & Roe, 1996; Wei-Qun & Chi, 2008)등 사회적 지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실재는 대부분의 대리양육가정 조부모들이 자신의 친척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Burton, 1992). 또한 제 3세대인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양육에 관하여는 경험적 지식이 풍부하지만 대리양육부모라는 특수적 관계로 사회·경제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있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복리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김봉미·이재연, 2006).

이처럼 한부모·조손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족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적 생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실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족유형의 다양한 변이가 낳은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하여 법제도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단기적이며 부분적인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국내 · 외 문헌 고찰

국내외의 한부모, 조손가정 관련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관련 정책방안 등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2)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설문조사

위기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에 현재 통계적 분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확률표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임의 할당 조사를 통하여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크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 기본배경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위기가정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가족유형에서의 아동 ·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3)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유형별 아동 · 청소년지원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학계, 행정계 등 가족유형별 아동 · 청소년지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어떤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즉 델파이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영역과 세부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와 잠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유형별 아동 · 청소년지원 대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유형별 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의 이슈와 방향에서 제공해야 할 실천적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4)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지원 대응방안 정책로드맵 제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지원 종합 대책을 모색하고 추진기관별 주요추진

방안, 정책관련대상, 주관 및 관련부처에 대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 문헌연구

한부모, 조손가정 선행연구 및 델파이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지원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가족유형 형태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가정 등 양친부모 가족과는 구분되는 기타 가족유형 속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 시·도(제주도 포함)이고, 조사 대상은 전국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총 602명이다. 조사의 목적은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나타난 일부 집단(양친부모와 생활하는 아동 이외의 가족유형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추가자료 수집에 있다.

조사방식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통한 추적조사방식을 적용하였고, 현실적인 조사 모집단을 「조사기간 중 전국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소속의 지역아동센터와 전국쉼터협의회 소속 쉼터에 등록된 ‘한부모가정 및 기타가정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이며 표본 리스트에서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청소년쉼터는 전수)를 접촉하여 적격 조사대상자 파악 후 면접원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데이터 클리닝 기간 포함하여 2011년 7월 20일 ~ 2011년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3)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지원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학계, 행정계 등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지원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어떤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4)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방법으로 가족 및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및 조사도구의 설문문항의 선정 및 확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5)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 2 장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3. 조사결과 분석

제 2 장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가족유형 형태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양친부모가정과는 구분되는 기타 가족유형 속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이 있다. 조사 지역은 전국 시·도(제주도 포함)이고, 조사 대상은 전국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 총 602명이다. 조사 대상인 ‘한부모가정 및 기타가정의 학생’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표본틀이 존재하지 않고, 본 조사의 목적이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나타난 일부 집단(양친부모와 생활하는 아동 이외의 가족유형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추가자료 수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사대상과 연계된 활동을 제공하는 유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통한 추적조사방식을 적용하였고, 현실적인 조사 모집단을 「조사기간 중 전국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소속의 지역아동센터와 전국쉼터협의회 소속 쉼터에 등록된 ‘한부모가정 및 기타가정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이며 표본 리스트에서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청소년쉼터는 전수)를 접촉하여 적격 조사대상자 파악 후 면접원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데이터 클리닝 기간 포함하여 2011년 7월 20일 ~ 2011년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2) 표본 설계

(1) 조사 모집단

‘한부모가정 및 기타가정 학생’이 연구목적상의 모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표본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조사 모집단을 「조사기간 중 전국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소속의 지역아동센터와 전국쉼터협의회 소속 쉼터에 등록된 ‘한부모가정 및 기타가정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2) 표본 설계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각각 300명씩 600명으로 진행하였으나 실제 수집된 자료는 602명이다. 초등학교 표집은 보건복지부위탁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소속 기관 총 3,690개의 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추출된 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적격대상자를 추적 조사하여 총 5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중·고등학교 표집은 전국 쉼터협의회 소속 쉼터 전체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접촉하여 적격대상자를 추적 조사하여 55개 쉼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 지역아동센터 및 쉼터에서 최소 3~6명 조사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였고, 청소년 쉼터는 전국 78개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국 78개 쉼터 중 거절 및 해당학생이 없는 쉼터 23개를 제외한 55개 쉼터 조사).

표 II-1 설문조사협조 기관 지역 현황

구분	대상센터 및 쉼터	
지역아동센터	- 서울(13개) - 경남/부산/울산(8개) - 전라/광주(12개) - 강원(1개)	- 경기/인천(11개) - 경북/대구(6개) - 충청/대전(8개)
청소년 쉼터	- 서울(5개) - 경남/부산/울산(9개) - 전라/광주(5개) - 강원(4개)	- 경기/인천(14개) - 경북/대구(5개) - 충청/대전(11개) - 제주(2개)

3) 실사 설계

(1) 사전 접촉

사전 접촉을 진행하기 전 리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센터 및 쉼터,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의 누락 여부 및 센터 및 쉼터의 적절성, 조사 대상의 존재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였다. 조사 협조도 제고를 위해 쉼터 협의회 및 기관을 통해 요청하거나 리스트 이용 조사 협조 경험이 높은 면접원을 위주로 투입하여 면접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원표본 유지율을 높이고 대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표본으로 선정된 센터들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센터에 대해서 대체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 대상 쉼터 및 센터에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 후 사전 접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에 대해 사전 인지하도록 하여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2)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면접원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 및 교육, 기관 조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조사 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사 담당 연구원이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접촉 면접원, 방문 면접원, 코딩 및 에디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 내용, 기관 담당자 접촉 방법,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실사 진행

사전 접촉 시 지정된 담당 실무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잡으며, 방문 조사원은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직접 조사대상 학생들을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관접촉 후 담당자가 우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요령에 대한 간략한 OT를 진행하였다. 조사협조 공문, 조사지침서(조사의 목적, 내용, 조사대상에 대한 정의 등이 수록), 설문지, 답례품(기관 담당자 및 조사대상자용)을 우편발송 후 회수하였다.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조사표 검증은 총 3차 검증을 실시하며 1차는 현장에서 기관 실무자가 설문지를 회수하기 전에 무응답 여부, 분기 문항 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은 조사표를 회수한 뒤 떠나기 전에 검토하고, 3차 검증은 연관 문항을 중심으로 에디팅을 실시, 연관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처리하였다. 우편조사의 경우 회수 후 실무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더블펀치를 실시하여 입력 오류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자료 입력 시 설문 로직 등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설정하여 자료 입력 과정에서 설문지 기입 오류를 확인 및 수정하였다.

자료 입력 후 연구진이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표를 확인하고, 문항 간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 조사 도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통계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진 회의 등 일련의 설문도구 개발과정을 거쳐 조사도구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 일반적 특성의 6대 조사영역과 14개 하위영역으로 확정하였다.

(1)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하위영역은 가족경제와 가족관계로 나누어지며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경제는 용돈, 아르바이트경험 유무, 아르바이트경험 시기, 아르바이트 종류, 가족 외 경제적 지원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는 아동·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와 의사소통, 부모와 여가활동, 가정화목도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1이며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출충동/경험, 가족의 음주정도, 가족의 말다툼 정도, 부모의 폭력사용 유무, 부모의 폭력 빈도, 질병(가족 중 환자유무)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학교생활

학교생활의 하위영역은 인간관계, 학교문제, 학교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간관계의 하위문항들은 ‘나의 학교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3이다. 학교문제의 하위문항들은 ‘나는 친구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을 한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이다. 학교활동의 하위문항들은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이다. 학교생활의 척도는 전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지역사회생활

지역사회생활 하위영역은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관계로 나누어지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활동의 하위문항은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며 척도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관계는 친구와의 모임 횟수, 만나는 장소, 이웃과의 관계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은 약물비행, 생활비행, 성비행으로 나누어지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약물비행의 하위문항들은 ‘음주’, ‘흡연’, ‘본드’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비행의 하위문항들은 ‘절도’, ‘폭력’, ‘갈취’, ‘욕설’, ‘거짓말’, ‘가출’,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용 게임) 접촉’, ‘유해업소(호프집, 소주방, 노래연습장, 룬, 성인바, 성인게임장 등) 출입’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비행의 하위문항들은 ‘성추행 피해’, ‘성폭력 피해’의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제행동의 척도는 ‘있다’, ‘없다’로 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여가생활

여가생활의 하위영역은 하루일과, 여가생활, 정보화 생활로 나누어지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루일과의 하위문항들은 ‘수면시간’, ‘TV시청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공부하는 시간(집/학원)’, ‘가족과 대화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 ‘운동 등 바깥활동시간’, ‘기타 시간’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여가활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이며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외 여가생활대상은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화 생활의 하위문항들은 ‘컴퓨터 유무’, ‘컴퓨터 사용빈도’, ‘인터넷 사용빈도’, ‘휴대게임기 이용빈도’, ‘휴대폰 유무’, ‘휴대폰 요금’, ‘휴대폰 주요 사용빈도(통화, 문자, 음악, 인터넷, 게임)’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하위영역은 개인적 배경관련 총 7문항이며 하위문항들은 ‘성별’, ‘가족구성원(가족유형)’, ‘부모의 국적’, ‘부모의 최종학력수준’, ‘부모님의 직업유무’, ‘본인의 학업성적수준’, ‘가정의 경제수준’등으로 구성되었다.

2) 분석방법

조사결과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7.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 등을 사용하였다.

조사에서 무응답의 처리는 중요한 주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응답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조사, 특히 본 연구처럼 예외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목적의 가구조사에서는 민감한 조사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무응답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무응답은 크게 표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과 조사에는 응하되 일부 항목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으로 나뉜다. 위의 경우에 문제는 항목 무응답인데, 이런 경우 무응답 대체(imputation)를 통해서 무응답 편향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응답 가중치 사용은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성향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무응답자들이 고유의 편향(bias)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평균치 등으로 대체를 하면 전체 결과의 왜곡을 유발하게 된다(김서영·안다영, 2010).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에 대한 무응답을 자체가 본 조사의 타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응답을 결과분석의 한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무응답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항은 본 조사가 상정하지 않은 유형을 포함하거나, 혹은 조사문항이나 방법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분석

1) 배경변수 현황

본 조사는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위기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인 조사표본(602명)의 전체 구성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가족유형은 한부모가정이 78.9%, 조손가정 37%, 기타가정(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친인척가정 등) 14.8%로 한부모가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48.0%, 여자가 52.0%로서 여자가 다소 많았다. 위기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응답자는 중 84.2%가 중층 이하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광역시 46.8%, 시·군 37.7%, 서울 15.4%로 나타났다.

표 II-2 배경변인 현황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2	100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475	78.9
	조손가정	37	6.1
	기타가정	89	14.8
	무응답	1	0.2
성별	남자	289	48
	여자	313	52
지역	서울	93	15.4
	광역시	282	46.8
	시·군	227	37.7
경제적수준	상	89	14.8
	중	247	41.0
	하	260	43.2
	무응답	6	1.0

2) 가정생활 실태

(1) 가족경제

한 달 용돈에 대한 비교결과에서는 지역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18223.9 원)과 광역시(18287.6원)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시·군(31349.2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한달 용돈

	사례수(명)	평균(원)	F값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434	23131.9	1.017
조손가정	30	34866.7	
기타가정	80	18111.3	
성별			
남자	266	24587.4	.599
여자	279	21483.5	
지역			
서울	90	18223.9	4.990**
광역시	258	18287.6	
시·군	197	31349.2	
경제적수준			
상	85	25476.5	1.257
중	225	18734.4	
하	230	26523.5	

***p<.001, **p<.01, *p<.05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성별을 제외한 가족유형, 지역,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2.4%)이 한부모가정(22.1%)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각각 11.8%, 17% 정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반면에 시·군거주자의 경우는 40.1%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수준이 하층으로 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05	363	7	17.272**
		22.1	76.4	1.5	
	조손가정	12	25	0	
		32.4	67.6	.0	
	기타가정	32	53	4	
		36.0	59.6	4.5	
	무응답	1	0	0	
		100.0	.0	.0	
성 별	남자	78	203	8	4.341
		27.0	70.2	2.8	
	여자	72	238	3	
		23.0	76.0	1.0	
지 역	서울	11	81	1	47.240***
		11.8	87.1	1.1	
	광역시	48	229	5	
		17.0	81.2	1.8	
	시·군	91	131	5	
		40.1	57.7	2.2	
경제적 수준	상	14	71	4	17.043**
		15.7	79.8	4.5	
	중	51	192	4	
		20.6	77.7	1.6	
	하	83	174	3	
		31.9	66.9	1.2	
	무응답	2	4	0	
		33.3	66.7	.0	

***p<.001, **p<.01, *p<.05

*단위: 명,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어떤 영역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아르바이트 시기

		거의매일	주말	방학 때	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37	11	22	34	1	10.318
		35.2	10.5	21.0	32.4	1.0	
	조손가정	4	3	0	5	0	
		33.3	25.0	.0	41.7	.0	
	기타가정	16	2	6	8	0	
		50.0	6.3	18.8	25.0	.0	
성 별	무응답	0	0	0	1	0	2.528
		.0	.0	.0	100.0	.0	
	남자	32	9	12	25	0	
		41.0	11.5	15.4	32.1	.0	
	여자	25	7	16	23	1	
		34.7	9.7	22.2	31.9	1.4	
지 역	서울	3	1	5	2	0	8.172
		27.3	9.1	45.5	18.2	.0	
	광역시	18	6	7	16	1	
		37.5	12.5	14.6	33.3	2.1	
	시·군	36	9	16	30	0	
		39.6	9.9	17.6	33.0	.0	
경제적 수준	상	5	2	4	2	1	16.440
		35.7	14.3	28.6	14.3	7.1	
	중	21	3	7	20	0	
		41.2	5.9	13.7	39.2	.0	
	하	30	11	17	25	0	
		36.1	13.3	20.5	30.1	.0	
	무응답	1	0	0	1	0	
		50.0	.0	.0	50.0	.0	

*단위: 명, %

아동·청소년이 주로 경험하고 있고 있는 아르바이트 형태에서는 성별과 지역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성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남자는 편의점·주유소가 30.8% 가장 높고, 여자는 패스트푸드 및 PC방 종업원이 각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편의점아르바이트가 서울 27.3%, 시·군 25.3%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팜플렛, 스티커배달이 14.6% 나타났다.

표 II-6 가장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

		패스트푸드점	신문,잡지배달	팜플렛,스티커배달	편의점,주유소	PC방종업원	물건판매	기타	모름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1	6	4	20	9	6	45	4	30.200
	가정	10.5	5.7	3.8	19.0	8.6	5.7	42.9	3.8	
	조손 가정	5	0	3	1	0	0	3	0	
	가정	41.7	.0	25.0	8.3	.0	.0	25.0	.0	
	기타 가정	3	1	2	6	2	0	18	0	
	가정	9.4	3.1	6.3	18.8	6.3	.0	56.3	.0	
	무응답	0	0	0	1	0	0	0	0	
		.0	.0	.0	00.0	.0	.0	.0	.0	
성 별	남자	10	5	4	24	2	4	28	1	23.169**
		12.8	6.4	5.1	30.8	2.6	5.1	35.9	1.3	
	여자	9	2	5	4	9	2	38	3	
		12.5	2.8	6.9	5.6	12.5	2.8	52.8	4.2	
지 역	서울	2	1	1	3	0	0	4	0	29.324***
		18.2	9.1	9.1	27.3	.0	.0	36.4	.0	
	광역시	6	2	7	2	4	3	20	4	
		12.5	4.2	14.6	4.2	8.3	6.3	41.7	8.3	
	시·군	11	4	1	23	7	3	42	0	
		12.1	4.4	1.1	25.3	7.7	3.3	46.2	.0	
경제적 수준	상	2	0	2	1	0	2	6	1	22.190
		14.3	.0	14.3	7.1	.0	14.3	42.9	7.1	
	중	3	3	3	10	6	1	23	2	
		5.9	5.9	5.9	19.6	11.8	2.0	45.1	3.9	
	하	14	4	4	17	4	3	36	1	
		16.9	4.8	4.8	20.5	4.8	3.6	43.4	1.2	
	무응답	0	0	0	0	1	0	1	0	
		.0	.0	.0	.0	50.0	.0	50.0	.0	

***p<.001, **p<.01, *p<.05

*단위: 명, %

부모 외에 다른 이들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에서는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상층과 중층은 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각 23.6%,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층은 종교나 사회단체(16.5%)로부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부모 외의 경제적 도움 경험 여부

		받은 적 없다	형제나 남매	친척	이웃 등 지역에서 아는사람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	국가	기타	모름/ 무응답	카이 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60 33.7	44 9.3	79 16.6	36 7.6	46 9.7	51 10.7	39 8.2	20 4.2	22.828
	조손 가정	9 24.3	1 2.7	10 27.0	2 5.4	3 8.1	6 16.2	4 10.8	2 5.4	
	기타 가정	25 28.1	7 7.9	14 15.7	9 10.1	13 14.6	5 5.6	9 10.1	7 7.9	
	무응답	0 .0	0 .0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88 30.4	29 10.0	46 15.9	25 8.7	32 11.1	30 10.4	24 8.3	15 5.2	3.327
	여자	106 33.9	23 7.3	57 18.2	22 7.0	30 9.6	33 10.5	28 8.9	14 4.5	
지 역	서울	31 33.3	7 7.5	20 21.5	5 5.4	7 7.5	11 11.8	8 8.6	4 4.3	8.432
	광역시	92 32.6	29 10.3	49 17.4	22 7.8	27 9.6	30 10.6	22 7.8	11 3.9	
	시·군	71 31.3	16 7.0	34 15.0	20 8.8	28 12.3	22 9.7	22 9.7	14 6.2	
경제적 수준	상	32 36.0	5 5.6	21 23.6	7 7.9	3 3.4	9 10.1	8 9.0	4 4.5	54.521 ***
	중	93 37.7	27 10.9	40 16.2	27 10.9	16 6.5	19 7.7	16 6.5	9 3.6	
	하	67 25.8	20 7.7	41 15.8	13 5.0	43 16.5	35 13.5	27 10.4	14 5.4	
	무응답	2 33.3	0 .0	1 16.7	0 .0	0 .0	0 .0	1 16.7	2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2) 가족관계

가족과의 관계 중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는 조사에서는 가족유형별, 지역별, 경제적수준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72.4%)과 조손가정(62.1%) 모두 부모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7%, 광역시 74.5%, 시·군은 55.5%순으로 부모와의 친밀도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서도 상층이 가장 높고, 중층, 하층순으로 친밀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8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37	53	151	193	41	41,340 ***
		7.8	11.2	31.8	40.6	8.6	
	조손가정	5	6	9	14	3	
		13.5	16.2	24.3	37.8	8.1	
	기타가정	24	10	21	23	11	
		27.0	11.2	23.6	25.8	12.4	
	무응답	0	1	0	0	0	
		.0	100.0	.0	.0	.0	
성 별	남자	37	39	81	108	24	4.697
		12.8	13.5	28.0	37.4	8.3	
	여자	29	31	100	122	31	
		9.3	9.9	31.9	39.0	9.9	
지 역	서울	6	3	33	42	9	38,721 ***
		6.5	3.2	35.5	45.2	9.7	
	광역시	23	27	82	128	22	
		8.2	9.6	29.1	45.4	7.8	
	시·군	37	40	66	60	24	
		16.3	17.6	29.1	26.4	10.6	
경제적 수준	상	4	2	26	49	8	60,604 ***
		4.5	2.2	29.2	55.1	9.0	
	중	16	21	79	113	18	
		6.5	8.5	32.0	45.7	7.3	
	하	45	47	74	66	28	
		17.3	18.1	28.5	25.4	10.8	
	무응답	1	0	2	2	1	
		16.7	.0	33.3	33.3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부모의 대화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족유형별, 지역별, 경제적수준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31.8%)이 조손가정(40.5%)보다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군>광역시>서울 순으로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도 하층이 가장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층과 상층 순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표 II-9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53	98	172	124	28	44,241 ***
		11.2	20.6	36.2	26.1	5.9	
	조손가정	6	9	13	7	2	
		16.2	24.3	35.1	18.9	5.4	
	기타가정	32	20	17	15	5	
		36.0	22.5	19.1	16.9	5.6	
	무응답	0	1	0	0	0	
		.0	100.0	.0	.0	.0	
성 별	남자	53	62	97	62	15	5,996
		18.3	21.5	33.6	21.5	5.2	
	여자	38	66	105	84	20	
		12.1	21.1	33.5	26.8	6.4	
지 역	서울	9	13	35	28	8	35,285 ***
		9.7	14.0	37.6	30.1	8.6	
	광역시	30	54	101	82	15	
		10.6	19.1	35.8	29.1	5.3	
	시·군	52	61	66	36	12	
		22.9	26.9	29.1	15.9	5.3	
경제적 수준	상	6	10	30	37	6	61,741 ***
		6.7	11.2	33.7	41.6	6.7	
	중	21	47	96	67	16	
		8.5	19.0	38.9	27.1	6.5	
	하	63	70	73	42	12	
		24.2	26.9	28.1	16.2	4.6	
	무응답	1	1	3	0	1	
		16.7	16.7	50.0	.0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가족관계 중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조사에서는 지역과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47.3, 광역시 39.4%, 시·군 25.1% 순으로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층이 62.9%로 매우 높은 반면에 중층 40.1%, 하층 21.1%로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가족관계 형성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10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 가정	131	142	133	47	22	19.192
		27.6	29.9	28.0	9.9	4.6	
	조손가정	11	13	8	3	2	
		29.7	35.1	21.6	8.1	5.4	
	기타가정	42	20	16	5	6	
		47.2	22.5	18.0	5.6	6.7	
	무응답	0	1	0	0	0	2.051
		.0	100.0	.0	.0	.0	
	남자	91	87	68	27	16	
		31.5	30.1	23.5	9.3	5.5	
	여자	93	89	89	28	14	
		29.7	28.4	28.4	8.9	4.5	
지 역	서울	23	20	28	16	6	28.427***
		24.7	21.5	30.1	17.2	6.5	
	광역시	71	87	84	27	13	
		25.2	30.9	29.8	9.6	4.6	
	시·군	90	69	45	12	11	
		39.6	30.4	19.8	5.3	4.8	
경제적 수준	상	11	15	36	20	7	85.375***
		12.4	16.9	40.4	22.5	7.9	
	중	55	80	76	23	13	
		22.3	32.4	30.8	9.3	5.3	
	하	117	79	43	12	9	
		45.0	30.4	16.5	4.6	3.5	
	무응답	1	2	2	0	1	
		16.7	33.3	33.3	.0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가족관계 중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라는 조사에서는 가족유형과 지역 및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모두 화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한부모가정 34.9%, 조손가정 35.1%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서울, 시·군 순으로 화목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층이 62.9%로 매우 높은 반면에 중층 40.1%, 하층 21.1%로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층은 79.7%가 화목하다는 반면에 하층은 56.9%가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가족과의 관계 -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71	95	174	95	40	43.778 ***
		14.9	20.0	36.6	20.0	8.4	
	조손가정	9	4	15	6	3	
		24.3	10.8	40.5	16.2	8.1	
	기타가정	36	12	14	19	8	
		40.4	13.5	15.7	21.3	9.0	
성 별	남자	0	1	0	0	0	4.893
		.0	100.0	.0	.0	.0	
	여자	58	59	94	60	18	
		20.1	20.4	32.5	20.8	6.2	
		58	53	109	60	33	
		18.5	16.9	34.8	19.2	10.5	
지 역	서울	12	14	34	23	10	32.255 ***
		12.9	15.1	36.6	24.7	10.8	
	광역시	45	41	111	65	20	
		16.0	14.5	39.4	23.0	7.1	
	시·군	59	57	58	32	21	
		26.0	25.1	25.6	14.1	9.3	
경제적 수준	상	5	4	31	40	9	105.810 ***
		5.6	4.5	34.8	44.9	10.1	
	중	34	36	96	59	22	
		13.8	14.6	38.9	23.9	8.9	
	하	76	72	73	20	19	
		29.2	27.7	28.1	7.7	7.3	
	무응답	1	0	3	1	1	
		16.7	.0	50.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위기가정의 가정에서의 문제생활 중 아동·청소년의 가출 시도 경험에서는 가족유형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가출 시도 경험은 한부모가정(40.8%)과 조손가정(40.5%)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시·군이 60.8%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경제수준별로는 가출 시도 경험이 하층이 59.6%로 가장 높고, 중층과 상층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2 가출 시도 경험

		시도한적 있음	시도한적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94	279	2	17.737**
		40.8	58.7	.4	
	조손가정	15	22	0	
		40.5	59.5	.0	
	기타가정	56	32	1	
		62.9	36.0	1.1	
성 별	무응답	1	0	0	2.402
		100.0	.0	.0	
	남자	136	151	2	
		47.1	52.2	.7	
	여자	130	182	1	
		41.5	58.1	.3	
지 역	서울	30	61	2	47.402***
		32.3	65.6	2.2	
	광역시	98	184	0	
		34.8	65.2	.0	
	시·군	138	88	1	
		60.8	38.8	.4	
경제적 수준	상	23	66	0	84.802***
		25.8	74.2	.0	
	중	84	163	0	
		34.0	66.0	.0	
	하	155	103	2	
		59.6	39.6	.8	
	무응답	4	1	1	
		66.7	16.7	16.7	

***p<.001, **p<.01, *p<.05

* 단위: 명, %

가족의 음주모습 목적 횟수는 지역과 경제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매일’ 음주를 목격하는 경우가 서울은 6.5%, 광역시는 9.6%인 반면에 시·군은 16.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매일’ 음주를 목격하는 경우가 상층은 1.1%, 중층은 9.3%인 반면에 하층은 18.1%로 상층 및 중층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는 하층의 아동·청소년이 유해약물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3 가족들의 음주모습 목적 횟수

		매일	주2-3회	주1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한번도 본 적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51 10.7	77 16.2	53 11.2	56 11.8	106 22.3	130 27.4	2 .4	23.837			
	조손 가정	3 8.1	7 18.9	3 8.1	7 18.9	10 27.0	7 18.9	0 .0				
	기타 가정	17 19.1	10 11.2	5 5.6	9 10.1	13 14.6	34 38.2	1 1.1				
	무응답	0 .0	1 100.0	0 .0	0 .0	0 .0	0 .0	0 .0				
		성 별	남자	33 11.4	42 14.5	35 12.1	29 10.0	66 22.8		82 28.4	2 .7	5.417
				여자	38 12.1	53 16.9	26 8.3	43 13.7		63 20.1	89 28.4	
	지 역		서울		6 6.5	12 12.9	9 9.7	15 16.1		25 26.9	25 26.9	
광역시				27 9.6	38 13.5	29 10.3	33 11.7	57 20.2	96 34.0	2 .7		
		시·군	38 16.7	45 19.8	23 10.1	24 10.6	47 20.7	50 22.0	0 .0			
경제적 수준			상	1 1.1	12 13.5	11 12.4	11 12.4	22 24.7	31 34.8	1 1.1	47.465 ***	
		중		23 9.3	33 13.4	27 10.9	39 15.8	46 18.6	78 31.6	1 .4		
			하	47 18.1	50 19.2	22 8.5	22 8.5	61 23.5	57 21.9	1 .4		
	무응답	0 .0		0 .0	1 16.7	0 .0	0 .0	5 83.3	0 .0			

***p<.001, **p<.01, *p<.05

*단위: 명, %

가족들의 말다툼 목격 횟수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지역, 가족유형,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매일’말다툼을 목격하는 횟수가 시·군(12.8%)이 가장 많았고 광역시(10.8%), 서울(5.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매일’을 기준으로 조손가정(18.6%)이 가장 심각했으며 기타가정(16.9%), 한부모가정(8.6%)순이었다. 경제적수준에서는 하층이 13.5%로 가장 높았고 중층 9.3%, 상층 4.5%로 하층으로 갈수록 ‘매일’말다툼을 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가족들의 말다툼 목격 횟수

		매일	주2-3회	주1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한번도 본 적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41	69	52	73	124	116	0	32.315*
		8.6	14.5	10.9	15.4	26.1	24.4	.0	
	조손 가정	7	3	6	5	11	5	0	
		18.9	8.1	16.2	13.5	29.7	13.5	.0	
	기타가정	15	15	7	8	16	26	2	
		16.9	16.9	7.9	9.0	18.0	29.2	2.2	
	무응답	0	0	0	0	0	1	0	
		.0	.0	.0	.0	.0	100.0	.0	
성 별	남자	27	41	33	38	66	82	2	7.927
		9.3	14.2	11.4	13.1	22.8	28.4	.7	
	여자	36	46	32	48	85	66	0	
		11.5	14.7	10.2	15.3	27.2	21.1	.0	
지 역	서울	5	13	8	20	22	24	1	27.942**
		5.4	14.0	8.6	21.5	23.7	25.8	1.1	
	광역시	29	27	33	34	83	76	0	
		10.3	9.6	11.7	12.1	29.4	27.0	.0	
	시·군	29	47	24	32	46	48	1	
		12.8	20.7	10.6	14.1	20.3	21.1	.4	
경제적 수준	상	4	8	9	10	28	30	0	37.609**
		4.5	9.0	10.1	11.2	31.5	33.7	.0	
	중	23	28	31	28	67	69	1	
		9.3	11.3	12.6	11.3	27.1	27.9	.4	
	하	35	51	25	48	53	47	1	
		13.5	19.6	9.6	18.5	20.4	18.1	.4	
	무응답	1	0	0	0	3	2	0	
		16.7	.0	.0	.0	50.0	33.3	.0	

***p<.001, **p<.01, *p<.05

*단위: 명, %

부모의 폭력사용 여부는 가족유형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5.1%)과 기타가정(34.8%)이 비슷하게 높았으며 한부모가정(28.4%)에서는 부모의 폭력사용 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군(36.1%)이 서울(28.0%), 광역시(25.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층이 39.2%로 가장 높고, 중층이 21.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15 부모의 폭력사용 여부

		사용함	사용한적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35	336	4	15.347*
		28.4	70.7	.8	
	조손가정	13	24	0	
		35.1	64.9	.0	
	기타가정	31	53	5	
		34.8	59.6	5.6	
성 별	무응답	0	1	0	3.114
		.0	100.0	.0	
	남자	93	190	6	
		32.2	65.7	2.1	
	여자	86	224	3	
		27.5	71.6	1.0	
지 역	서울	26	64	3	10.954*
		28.0	68.8	3.2	
	광역시	71	209	2	
		25.2	74.1	.7	
	시·군	82	141	4	
		36.1	62.1	1.8	
경제적 수준	상	23	66	0	63.624 ***
		25.8	74.2	.0	
	중	54	190	3	
		21.9	76.9	1.2	
	하	102	154	4	
		39.2	59.2	1.5	
	무응답	0	4	2	
		.0	6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 횟수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가족유형,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주1회 이상을 기준으로 기타가정이 71.0%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부모가정이 34.7%, 조손가정은 30%로 전반적으로 폭력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별로는 중층(48.0%), 하층(42.7%), 상층(33.4%) 순으로 주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 횟수

		매일	주2-3회	주1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모름/ 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6	23	18	29	57	2	22.854*
		4.4	17.0	13.3	21.5	42.2	1.5	
	조손가정	1	2	1	3	6	0	
		7.7	15.4	7.7	23.1	46.2	.0	
	기타가정	7	10	5	5	3	1	
		22.6	32.3	16.1	16.1	9.7	3.2	
성 별	무응답	2	0	4	4	13	0	7.927
		8.7	.0	17.4	17.4	56.5	.0	
	남자	7	20	14	12	39	1	
		7.5	21.5	15.1	12.9	41.9	1.1	
	여자	7	15	10	25	27	2	
		8.1	17.4	11.6	29.1	31.4	2.3	
지 역	서울	2	6	2	3	13	0	8.953
		7.7	23.1	7.7	11.5	50.0	.0	
	광역시	5	14	9	17	23	3	
		7.0	19.7	12.7	23.9	32.4	4.2	
	시·군	7	15	13	17	30	0	
		8.5	18.3	15.9	20.7	36.6	.0	
경제적 수준	상	3	10	5	8	26	2	18.421*
		5.6	18.5	9.3	14.8	48.1	3.7	
	중	9	25	15	25	27	1	
		8.8	24.5	14.7	24.5	26.5	1.0	
	하	35	51	25	48	53	47	
		13.5	19.6	9.6	18.5	20.4	18.1	
	무응답	1	0	0	0	3	2	
		16.7	.0	.0	.0	50.0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3) 학교생활 실태

(1) 인간관계

친구들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친구들이 본인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제적수준에서 하층이 19.2%, 중층이 11.3%, 상층이 5.6%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표 II-17 학교활동 -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214	133	55	13	13	47	12.417
	가정	45.1	28.0	11.6	2.7	2.7	9.9	
	조손가정	18	6	5	0	2	6	
		48.6	16.2	13.5	.0	5.4	16.2	
	기타가정	40	19	9	2	4	15	
		44.9	21.3	10.1	2.2	4.5	16.9	
성 별	무응답	0	1	0	0	0	0	4.021
		.0	100.0	.0	.0	.0	.0	
	남자	133	73	32	9	6	36	
		46.0	25.3	11.1	3.1	2.1	12.5	
	여자	139	86	37	6	13	32	
		44.4	27.5	11.8	1.9	4.2	10.2	
지 역	서울	41	20	13	3	2	14	7.101
		44.1	21.5	14.0	3.2	2.2	15.1	
	광역시	136	74	28	5	8	31	
		48.2	26.2	9.9	1.8	2.8	11.0	
	시·군	95	65	28	7	9	23	
		41.9	28.6	12.3	3.1	4.0	10.1	
경제적 수준	상	50	21	2	3	0	13	32.773*
		56.2	23.6	2.2	3.4	.0	14.6	
	중	120	65	22	6	9	25	
		48.6	26.3	8.9	2.4	3.6	10.1	
	하	101	72	44	6	9	28	
		38.8	27.7	16.9	2.3	3.5	10.8	
	무응답	1	1	1	0	1	2	
		16.7	16.7	16.7	.0	1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친구들의 개인고민 상담에 대한 조사는 성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학교 친구들이 본인에게 개인적 고민상담을 많이 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별로는 남자(24.6%), 여자(42.1%)로 여자들의 고민 상담이 매우 많았다. 지역별로 시·군(39.7%), 광역시(31.5%), 서울(25.8%) 순이었으며 경제적수준별에서는 하층(39.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상층(35.9%), 중층(27.5%) 순이었다.

표 II-18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137	117	125	36	13	47	17.122
	가정	28.8	24.6	26.3	7.6	2.7	9.9	
	조손가정	8	9	7	4	2	7	
		21.6	24.3	18.9	10.8	5.4	18.9	
	기타가정	26	12	22	9	4	16	
		29.2	13.5	24.7	10.1	4.5	18.0	
성 별	무응답	0	1	0	0	0	0	27.803 ***
		.0	100.0	.0	.0	.0	.0	
	남자	102	70	54	17	6	40	
		35.3	24.2	18.7	5.9	2.1	13.8	
	여자	69	69	100	32	13	30	
		22.0	22.0	31.9	10.2	4.2	9.6	
지 역	서울	22	31	17	7	2	14	19.945*
		23.7	33.3	18.3	7.5	2.2	15.1	
	광역시	96	54	68	21	8	35	
		34.0	19.1	24.1	7.4	2.8	12.4	
	시·군	53	54	69	21	9	21	
		23.3	23.8	30.4	9.3	4.0	9.3	
경제적 수준	상	30	13	27	5	0	14	34.246**
		33.7	14.6	30.3	5.6	.0	15.7	
	중	87	55	48	20	9	28	
		35.2	22.3	19.4	8.1	3.6	11.3	
	하	54	68	78	24	9	27	
		20.8	26.2	30.0	9.2	3.5	10.4	
	무응답	0	3	1	0	1	1	
		.0	50.0	16.7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다음으로 응답자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도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39	74	209	69	13	71	23.500
		8.2	15.6	44.0	14.5	2.7	14.9	
	조손가정	2	2	13	11	2	7	
		5.4	5.4	35.1	29.7	5.4	18.9	
	기타가정	12	15	25	17	4	16	
		13.5	16.9	28.1	19.1	4.5	18.0	
	무응답	0	1	0	0	0	0	
		.0	100.0	.0	.0	.0	.0	
성 별	남자	33	43	117	45	6	45	6.572
		11.4	14.9	40.5	15.6	2.1	15.6	
	여자	20	49	130	52	13	49	
		6.4	15.7	41.5	16.6	4.2	15.7	
지 역	서울	11	9	44	9	2	18	11.722
		11.8	9.7	47.3	9.7	2.2	19.4	
	광역시	25	43	113	54	8	39	
		8.9	15.2	40.1	19.1	2.8	13.8	
	시·군	17	40	90	34	9	37	
		7.5	17.6	39.6	15.0	4.0	16.3	
경제적 수준	상	7	9	39	19	0	15	18.156
		7.9	10.1	43.8	21.3	.0	16.9	
	중	25	34	105	39	9	35	
		10.1	13.8	42.5	15.8	3.6	14.2	
	하	21	49	99	38	9	44	
		8.1	18.8	38.1	14.6	3.5	16.9	
	무응답	0	0	4	1	1	0	
		.0	.0	66.7	16.7	16.7	.0	

*단위: 명, %

응답자에 대한 선생님의 불공평한 대우에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가족유형, 경제적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본인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16.6%)가 여자(8.3%)보다 2배나 더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학교활동 -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226	127	43	16	13	50	8.745
	가정	47.6	26.7	9.1	3.4	2.7	10.5	
	조손가정	16	8	4	1	2	6	
		43.2	21.6	10.8	2.7	5.4	16.2	
	기타가정	40	20	7	3	4	15	
		44.9	22.5	7.9	3.4	4.5	16.9	
	무응답	0	1	0	0	0	0	
		.0	100.0	.0	.0	.0	.0	
성 별	남자	126	71	35	13	6	38	12.984*
		43.6	24.6	12.1	4.5	2.1	13.1	
	여자	156	85	19	7	13	33	
		49.8	27.2	6.1	2.2	4.2	10.5	
지 역	서울	44	26	7	1	2	13	7.374
		47.3	28.0	7.5	1.1	2.2	14.0	
	광역시	143	66	25	9	8	31	
		50.7	23.4	8.9	3.2	2.8	11.0	
	시·군	95	64	22	10	9	27	
		41.9	28.2	9.7	4.4	4.0	11.9	
경제적 수준	상	45	22	8	2	0	12	11.494
		50.6	24.7	9.0	2.2	.0	13.5	
	중	114	64	19	8	9	33	
		46.2	25.9	7.7	3.2	3.6	13.4	
	하	120	68	27	10	9	26	
		46.2	26.2	10.4	3.8	3.5	10.0	
	무응답	3	2	0	0	1	0	
		50.0	33.3	.0	.0	16.7	.0	

***p<.001, **p<.01, *p<.05

*단위: 명, %

선생님이 응답자의 고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경제적 수준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다.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층(43.8%)이 가장 높았고 하층(35.0%), 중층(31.6%) 순이었다.

표 II-21 학교활동 -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84 17.7	120 25.3	136 28.6	36 7.6	13 2.7	86 18.1	12.614
	조손가정	6 16.2	10 27.0	7 18.9	4 10.8	2 5.4	8 21.6	
	기타가정	25 28.1	21 23.6	19 21.3	7 7.9	4 4.5	13 14.6	
	무응답	0 .0	1 100.0	0 .0	0 .0	0 .0	0 .0	
	남자	62 21.5	72 24.9	77 26.6	25 8.7	6 2.1	47 16.3	4.921
	여자	53 16.9	80 25.6	85 27.2	22 7.0	13 4.2	60 19.2	
지 역	서울	14 15.1	24 25.8	29 31.2	4 4.3	2 2.2	20 21.5	9.505
	광역시	62 22.0	70 24.8	66 23.4	27 9.6	8 2.8	49 17.4	
	시·군	39 17.2	58 25.6	67 29.5	16 7.0	9 4.0	38 16.7	
	상	14 15.7	18 20.2	29 32.6	10 11.2	0 .0	18 20.2	
	중	60 24.3	50 20.2	63 25.5	15 6.1	9 3.6	50 20.2	
경제적 수준	하	41 15.8	80 30.8	70 26.9	21 8.1	9 3.5	39 15.0	32.887**
	무응답	0 .0	4 66.7	0 .0	1 16.7	1 16.7	0 .0	

***p<.001, **p<.01, *p<.05

*단위: 명, %

담임교사의 관심도에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담임선생님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63.5%)가 남자(5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22 학교활동 -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33	69	208	79	13	73	17.590
		6.9	14.5	43.8	16.6	2.7	15.4	
	조손가정	1	6	13	8	2	7	
		2.7	16.2	35.1	21.6	5.4	18.9	
	기타가정	5	18	25	22	4	15	
		5.6	20.2	28.1	24.7	4.5	16.9	
	무응답	0	1	0	0	0	0	
		.0	100.0	.0	.0	.0	.0	
성 별	남자	25	54	106	50	6	48	12.282*
		8.7	18.7	36.7	17.3	2.1	16.6	
	여자	14	40	140	59	13	47	
		4.5	12.8	44.7	18.8	4.2	15.0	
지 역	서울	6	12	36	18	2	19	6.224
		6.5	12.9	38.7	19.4	2.2	20.4	
	광역시	22	43	120	51	8	38	
		7.8	15.2	42.6	18.1	2.8	13.5	
	시·군	11	39	90	40	9	38	
		4.8	17.2	39.6	17.6	4.0	16.7	
경제적 수준	상	5	11	39	21	0	13	19.667
		5.6	12.4	43.8	23.6	.0	14.6	
	중	20	33	94	43	9	48	
		8.1	13.4	38.1	17.4	3.6	19.4	
	하	13	49	111	44	9	34	
		5.0	18.8	42.7	16.9	3.5	13.1	
	무응답	1	1	2	1	1	0	
		16.7	16.7	33.3	16.7	16.7	.0	

***p<.001, **p<.01, *p<.05

*단위: 명, %

담임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지역을 제외한 성별, 가족유형,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담임선생님에 대해 만족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67.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가정(61.8%), 조손가정(54.0%)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70.0%)가 남자(60.9%)보다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수준별로는 상층(74.1%), 중층(64.8%), 하층(63.0%) 순으로 나타나 상층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학교활동 -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51 10.7	58 12.2	189 39.8	130 27.4	13 2.7	34 7.2	27.514*
	조손가정	6 16.2	2 5.4	9 24.3	11 29.7	2 5.4	7 18.9	
		14 15.7	4 4.5	31 34.8	24 27.0	4 4.5	12 13.5	
	기타가정	0 .0	1 100.0	0 .0	0 .0	0 .0	0 .0	
	무응답							
성 별	남자	39 13.5	34 11.8	103 35.6	72 24.9	6 2.1	35 12.1	12.907*
	여자	32 10.2	31 9.9	126 40.3	93 29.7	13 4.2	18 5.8	
지 역	서울	11 11.8	7 7.5	30 32.3	32 34.4	2 2.2	11 11.8	14.439
	광역시	31 11.0	31 11.0	109 38.7	86 30.5	8 2.8	17 6.0	
	시·군	29 12.8	27 11.9	90 39.6	47 20.7	9 4.0	25 11.0	
경제적 수준	상	4 4.5	11 12.4	27 30.3	39 43.8	0 .0	8 9.0	33.480**
	중	32 13.0	19 7.7	96 38.9	64 25.9	9 3.6	27 10.9	
	하	35 13.5	34 13.1	102 39.2	62 23.8	9 3.5	18 6.9	
	무응답	0 .0	1 16.7	4 66.7	0 .0	1 16.7	0 .0	

***p<.001, **p<.01, *p<.05

*단위: 명, %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에서만 유의했으며 친구들에 대해 만족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75.4%)가 남자(72.0%)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24 학교활동 - 나는 친구들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안다 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6 5.5	45 9.5	188 39.6	166 34.9	13 2.7	37 7.8	17.503
	조손가정	1 2.7	3 8.1	19 51.4	8 21.6	2 5.4	4 10.8	
	기타가정	6 6.7	7 7.9	29 32.6	34 38.2	4 4.5	9 10.1	
	무응답	0 .0	1 100.0	0 .0	0 .0	0 .0	0 .0	
성 별	남자	15 5.2	27 9.3	100 34.6	108 37.4	6 2.1	33 11.4	12.906*
	여자	18 5.8	29 9.3	136 43.5	100 31.9	13 4.2	17 5.4	
지 역	서울	9 9.7	12 12.9	39 41.9	22 23.7	2 2.2	9 9.7	13.879
	광역시	12 4.3	23 8.2	111 39.4	110 39.0	8 2.8	18 6.4	
	시·군	12 5.3	21 9.3	86 37.9	76 33.5	9 4.0	23 10.1	
경제적 수준	상	4 4.5	7 7.9	30 33.7	38 42.7	0 .0	10 11.2	17.533
	중	11 4.5	20 8.1	98 39.7	89 36.0	9 3.6	20 8.1	
	하	18 6.9	29 11.2	104 40.0	80 30.8	9 3.5	20 7.7	
	무응답	0 .0	0 .0	4 66.7	1 16.7	1 16.7	0 .0	

***p<.001, **p<.01, *p<.05

*단위: 명, %

(2) 학교문제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욕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성별과 경제적수준이었으며 지역과 가족유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41.2%, 여자 30%로 학업 중단 욕구가 있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18.9%)이 가장 높았으며 상층(18.0%), 중층(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60 33.7	96 20.2	112 23.6	53 11.2	13 2.7	41 8.6	15.035
	조손가정	10 27.0	10 27.0	7 18.9	4 10.8	2 5.4	4 10.8	
	기타가정	21 23.6	17 19.1	25 28.1	11 12.4	4 4.5	11 12.4	
		0 .0	0 .0	0 .0	1 100.0	0 .0	0 .0	
	무응답	0 .0	0 .0	0 .0	1 100.0	0 .0	0 .0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79 27.3	51 17.6	78 27.0	41 14.2	6 2.1	34 11.8	16.957**
		112 35.8	72 23.0	66 21.1	28 8.9	13 4.2	22 7.0	
	여자	112 35.8	72 23.0	66 21.1	28 8.9	13 4.2	22 7.0	
		112 35.8	72 23.0	66 21.1	28 8.9	13 4.2	22 7.0	
지 역	서울	32 34.4	17 18.3	21 22.6	10 10.8	2 2.2	11 11.8	16.454
		106 37.6	56 19.9	65 23.0	24 8.5	8 2.8	23 8.2	
	광역시	106 37.6	56 19.9	65 23.0	24 8.5	8 2.8	23 8.2	
		106 37.6	56 19.9	65 23.0	24 8.5	8 2.8	23 8.2	
	시·군	53 23.3	50 22.0	58 25.6	35 15.4	9 4.0	22 9.7	
		53 23.3	50 22.0	58 25.6	35 15.4	9 4.0	22 9.7	
경제적 수준	상	45 50.6	18 20.2	12 13.5	4 4.5	0 .0	10 11.2	37.492***
		82 33.2	54 21.9	59 23.9	24 9.7	9 3.6	19 7.7	
	중	82 33.2	54 21.9	59 23.9	24 9.7	9 3.6	19 7.7	
		63 24.2	50 19.2	72 27.7	40 15.4	9 3.5	26 10.0	
	하	63 24.2	50 19.2	72 27.7	40 15.4	9 3.5	26 10.0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무응답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무단결석 욕구와 관련된 다음 조사에서는 지역과 경제적 수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지역별로는 시·군 46.7%, 서울 36.6%, 광역시 31.1%로 시·군 아동·청소년이 무단결석을 자주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층이 46.9%로 가장 높고, 중층과 상층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무단결석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II-26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65 34.7	100 21.1	110 23.2	64 13.5	13 2.7	23 4.8	18.030
	조손가정	15 40.5	7 18.9	3 8.1	6 16.2	2 5.4	4 10.8	
	기타가정	27 30.3	13 14.6	24 27.0	17 19.1	4 4.5	4 4.5	
	무응답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91 31.5	61 21.1	65 22.5	49 17.0	6 2.1	17 5.9	6.469
	여자	116 37.1	59 18.8	72 23.0	39 12.5	13 4.2	14 4.5	
지 역	서울	31 33.3	20 21.5	21 22.6	13 14.0	2 2.2	6 6.5	24.155**
	광역시	119 42.2	57 20.2	57 20.2	28 9.9	8 2.8	13 4.6	
	시·군	57 25.1	43 18.9	59 26.0	47 20.7	9 4.0	12 5.3	
경제적 수준	상	49 55.1	17 19.1	9 10.1	8 9.0	0 .0	6 6.7	45.801***
	중	93 37.7	49 19.8	49 19.8	34 13.8	9 3.6	13 5.3	
	하	65 25.0	53 20.4	77 29.6	45 17.3	9 3.5	11 4.2	
	무응답	0 .0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학교생활에서의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정도는 가족유형별, 성별, 지역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가족유형별로는 기타가정(19.1%), 한부모가정(17.6%), 조손가정(16.2%) 순으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성별로는 남자가(24.6%), 여자가(11.8%)로 남자의 폭력이 매우 심각하다. 지역별로는 시·군(22.9%), 서울(20.4%), 광역시(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7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29 48.2	121 25.5	71 14.9	13 2.7	13 2.7	28 5.9	36.162**
	조손가정	18 48.6	8 21.6	5 13.5	1 2.7	2 5.4	3 8.1	
	기타가정	34 38.2	27 30.3	13 14.6	4 4.5	4 4.5	7 7.9	
	무응답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112 38.8	85 29.4	56 19.4	15 5.2	6 2.1	15 5.2	28.483***
	여자	169 54.0	71 22.7	33 10.5	4 1.3	13 4.2	23 7.3	
지 역	서울	53 57.0	16 17.2	15 16.1	4 4.3	2 2.2	3 3.2	19.196*
	광역시	140 49.6	77 27.3	32 11.3	5 1.8	8 2.8	20 7.1	
	시·군	88 38.8	63 27.8	42 18.5	10 4.4	9 4.0	15 6.6	
경제적 수준	상	50 56.2	26 29.2	9 10.1	1 1.1	0 .0	3 3.4	24.840
	중	115 46.6	60 24.3	37 15.0	9 3.6	9 3.6	17 6.9	
	하	115 44.2	70 26.9	41 15.8	9 3.5	9 3.5	16 6.2	
	무응답	1 16.7	0 .0	2 33.3	0 .0	1 16.7	2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학교생활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가족유형별, 성별, 경제수준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별로 기타가정이 49.4%, 한부모가정이 45.2%, 조손가정이 40.5%로 전체적으로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52.6%), 여자(39.3%)로 남자가 매우 높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이 54.6%로 중층이나 상층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표 II-28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23	104	163	52	13	20	29.581*
		25.9	21.9	34.3	10.9	2.7	4.2	
	조손가정	9	7	9	6	2	4	
		24.3	18.9	24.3	16.2	5.4	10.8	
	기타가정	19	15	21	23	4	7	
		21.3	16.9	23.6	25.8	4.5	7.9	
	무응답	0	0	0	1	0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53	63	100	52	6	15	21.255***
		18.3	21.8	34.6	18.0	2.1	5.2	
	여자	98	63	93	30	13	16	
		31.3	20.1	29.7	9.6	4.2	5.1	
지 역	서울	21	21	28	18	2	3	7.817
		22.6	22.6	30.1	19.4	2.2	3.2	
	광역시	85	59	91	22	8	17	
		30.1	20.9	32.3	7.8	2.8	6.0	
	시·군	45	46	74	42	9	11	
		19.8	20.3	32.6	18.5	4.0	4.8	
경제적 수준	상	32	26	25	4	0	2	44.156***
		36.0	29.2	28.1	4.5	.0	2.2	
	중	69	51	72	31	9	15	
		27.9	20.6	29.1	12.6	3.6	6.1	
	하	49	48	95	47	9	12	
		18.8	18.5	36.5	18.1	3.5	4.6	
	무응답	1	1	1	0	1	2	
		16.7	16.7	16.7	.0	1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응답자가 다른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림 정도에서는 가족유형별, 성별, 경제적수준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리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정유형별에서 조손가정(16.3%), 한부모가정(15.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18.3%), 여자(13.4%)로 남자들이 집단따돌림을 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별로는 중층(17.8%)과 하층(17.3%)에서 집단따돌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9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28 48.0	132 27.8	64 13.5	10 2.1	13 2.7	28 5.9	48.833***
	조손가정	15 40.5	10 27.0	6 16.2	0 .0	2 5.4	4 10.8	
	기타가정	41 46.1	21 23.6	11 12.4	3 3.4	4 4.5	9 10.1	
	무응답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121 41.9	82 28.4	44 15.2	9 3.1	6 2.1	27 9.3	13.731*
	여자	163 52.1	81 25.9	37 11.8	5 1.6	13 4.2	14 4.5	
지 역	서울	45 48.4	19 20.4	17 18.3	3 3.2	2 2.2	7 7.5	7.817
	광역시	130 46.1	81 28.7	41 14.5	5 1.8	8 2.8	17 6.0	
	시·군	109 48.0	63 27.8	23 10.1	6 2.6	9 4.0	17 7.5	
경제적 수준	상	57 64.0	23 25.8	4 4.5	1 1.1	0 .0	4 4.5	28.526*
	중	112 45.3	65 26.3	37 15.0	7 2.8	9 3.6	17 6.9	
	하	114 43.8	74 28.5	39 15.0	6 2.3	9 3.5	18 6.9	
	무응답	1 16.7	1 16.7	1 16.7	0 .0	1 16.7	2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응답자가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정도에서는 가족유형별, 성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은 본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13.1%) 조손가정(10.8%)보다 폭력을 더 당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16.6%)가 여자(10.6%)보다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0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83 59.6	97 20.4	54 11.4	8 1.7	13 2.7	20 4.2	66.303***
	조손가정	17 45.9	8 21.6	4 10.8	0 .0	2 5.4	6 16.2	
	기타가정	51 57.3	12 13.5	11 12.4	3 3.4	4 4.5	8 9.0	
	무응답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147 50.9	71 24.6	39 13.5	9 3.1	6 2.1	17 5.9	20.427***
		204 65.2	46 14.7	30 9.6	3 1.0	13 4.2	17 5.4	
	여자							
지 역	서울	59 63.4	12 12.9	13 14.0	2 2.2	2 2.2	5 5.4	7.464
		169 59.9	58 20.6	30 10.6	4 1.4	8 2.8	13 4.6	
	광역시							
	시·군	123 54.2	47 20.7	26 11.5	6 2.6	9 4.0	16 7.0	
경제적 수준	상	62 69.7	13 14.6	9 10.1	0 .0	0 .0	5 5.6	22.905
		146 59.1	42 17.0	30 12.1	9 3.6	9 3.6	11 4.5	
	중							
	하	140 53.8	61 23.5	30 11.5	3 1.2	9 3.5	17 6.5	
		3 50.0	1 16.7	0 .0	0 .0	1 16.7	1 16.7	
	무응답							

***p<.001, **p<.01, *p<.05

*단위: 명, %

친구들이 응답자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가족유형을 제외한 성별과 지역, 그리고 경제적수준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본인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별로는 남자가 34.7%, 여자가 23.3%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시·군(33.9%), 서울(27.9%), 광역시(24.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수준에서는 하층(35.7%), 중층(26.3%), 상층(15.7%) 순으로 확연히 차이가 있고 하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II-31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69	130	109	30	13	24	12.538
		35.6	27.4	22.9	6.3	2.7	5.1	
	조손가정	12	10	6	2	2	5	
		32.4	27.0	16.2	5.4	5.4	13.5	
	기타가정	33	20	16	10	4	6	
		37.1	22.5	18.0	11.2	4.5	6.7	
	무응답	1	0	0	0	0	0	
		100.0	.0	.0	.0	.0	.0	
성 별	남자	89	79	75	25	6	15	13.029*
		30.8	27.3	26.0	8.7	2.1	5.2	
	여자	126	81	56	17	13	20	
		40.3	25.9	17.9	5.4	4.2	6.4	
지 역	서울	42	17	15	11	2	6	19.901*
		45.2	18.3	16.1	11.8	2.2	6.5	
	광역시	98	91	56	14	8	15	
		34.8	32.3	19.9	5.0	2.8	5.3	
	시·군	75	52	60	17	9	14	
		33.0	22.9	26.4	7.5	4.0	6.2	
경제적 수준	상	41	30	12	2	0	4	34.709**
		46.1	33.7	13.5	2.2	.0	4.5	
	중	100	56	49	16	9	17	
		40.5	22.7	19.8	6.5	3.6	6.9	
	하	74	71	69	24	9	13	
		28.5	27.3	26.5	9.2	3.5	5.0	
	무응답	0	3	1	0	1	1	
		.0	50.0	16.7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응답자가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한 정도에서는 가족유형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친구들이 집단따돌림을 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부모가정이 8.9%, 조손가정이 8.1%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집단따돌림을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315	82	30	11	13	24	43.379***
	가정	66.3	17.3	6.3	2.3	2.7	5.1	
	조손가정	21	7	1	2	2	4	
		56.8	18.9	2.7	5.4	5.4	10.8	
	기타가정	62	13	1	4	4	5	
		69.7	14.6	1.1	4.5	4.5	5.6	
	무응답	0	0	0	1	0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194	50	15	9	6	15	2.314
		67.1	17.3	5.2	3.1	2.1	5.2	
	여자	204	52	17	9	13	18	
		65.2	16.6	5.4	2.9	4.2	5.8	
지 역	서울	65	14	6	2	2	4	5.164
		69.9	15.1	6.5	2.2	2.2	4.3	
	광역시	190	51	12	8	8	13	
		67.4	18.1	4.3	2.8	2.8	4.6	
	시·군	143	37	14	8	9	16	
		63.0	16.3	6.2	3.5	4.0	7.0	
경제적 수준	상	64	15	2	4	0	4	17.555
		71.9	16.9	2.2	4.5	.0	4.5	
	중	166	35	13	10	9	14	
		67.2	14.2	5.3	4.0	3.6	5.7	
	하	165	51	17	4	9	14	
		63.5	19.6	6.5	1.5	3.5	5.4	
	무응답	3	1	0	0	1	1	
		50.0	16.7	.0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수업 시 교사의 폭력사용에 있어서는 경제적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하시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층 23.1%, 상층 22.5%, 하층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245	96	72	29	13	20	20.583
	가정	51.6	20.2	15.2	6.1	2.7	4.2	
	조손가정	19	6	6	1	2	3	
		51.4	16.2	16.2	2.7	5.4	8.1	
	기타가정	43	19	10	7	4	6	
		48.3	21.3	11.2	7.9	4.5	6.7	
	무응답	0	0	0	1	0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140	57	47	23	6	16	6.816
		48.4	19.7	16.3	8.0	2.1	5.5	
	여자	167	64	41	15	13	13	
		53.4	20.4	13.1	4.8	4.2	4.2	
지 역	서울	61	13	10	4	2	3	16.067
		65.6	14.0	10.8	4.3	2.2	3.2	
	광역시	141	55	46	22	8	10	
		50.0	19.5	16.3	7.8	2.8	3.5	
	시·군	105	53	32	12	9	16	
		46.3	23.3	14.1	5.3	4.0	7.0	
경제적 수준	상	49	16	17	3	0	4	34.456**
		55.1	18.0	19.1	3.4	.0	4.5	
	중	130	38	34	23	9	13	
		52.6	15.4	13.8	9.3	3.6	5.3	
	하	127	65	37	12	9	10	
		48.8	25.0	14.2	4.6	3.5	3.8	
	무응답	1	2	0	0	1	2	
		16.7	33.3	.0	.0	1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수업 시 교사의 욕설사용 정도에서는 지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욕설을 사용하시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시·군(16.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광역시(10.7%), 서울(5.4%) 순으로 교사의 욕설사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설을 사용하신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99	89	36	22	13	16	8.841
		62.9	18.7	7.6	4.6	2.7	3.4	
	조손가정	23	5	4	0	2	3	
		62.2	13.5	10.8	.0	5.4	8.1	
	기타가정	54	15	9	2	4	5	
		60.7	16.9	10.1	2.2	4.5	5.6	
	무응답	1	0	0	0	0	0	
		100.0	.0	.0	.0	.0	.0	
성 별	남자	150	59	36	23	6	15	5.612
		51.9	20.4	12.5	8.0	2.1	5.2	
	여자	148	59	55	23	13	15	
		47.3	18.8	17.6	7.3	4.2	4.8	
지 역	서울	69	16	3	2	2	1	20.785*
		74.2	17.2	3.2	2.2	2.2	1.1	
	광역시	185	50	18	12	8	9	
		65.6	17.7	6.4	4.3	2.8	3.2	
	시·군	123	43	28	10	9	14	
		54.2	18.9	12.3	4.4	4.0	6.2	
경제적 수준	상	62	15	3	5	0	4	23.367
		69.7	16.9	3.4	5.6	.0	4.5	
	중	161	34	21	11	9	11	
		65.2	13.8	8.5	4.5	3.6	4.5	
	하	152	58	25	8	9	8	
		58.5	22.3	9.6	3.1	3.5	3.1	
	무응답	2	2	0	0	1	1	
		33.3	33.3	.0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교사의 수업 시 공개적 망신을 주는 정도에서는 지역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시·군(11.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광역시(10.2%), 서울(5.4%) 순으로 교사가 수업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22	107	82	32	13	19	23.347
		46.7	22.5	17.3	6.7	2.7	4.0	
	조손가정	17	4	8	2	2	4	
		45.9	10.8	21.6	5.4	5.4	10.8	
	기타가정	45	18	10	7	4	5	
		50.6	20.2	11.2	7.9	4.5	5.6	
	무응답	0	0	0	1	0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144	55	41	26	6	17	5.612
		49.8	19.0	14.2	9.0	2.1	5.9	
	여자	140	74	59	16	13	11	
		44.7	23.6	18.8	5.1	4.2	3.5	
지 역	서울	50	14	21	3	2	3	11.729*
		53.8	15.1	22.6	3.2	2.2	3.2	
	광역시	137	64	41	21	8	11	
		48.6	22.7	14.5	7.4	2.8	3.9	
	시·군	97	51	38	18	9	14	
		42.7	22.5	16.7	7.9	4.0	6.2	
경제적 수준	상	47	21	11	6	0	4	22.098
		52.8	23.6	12.4	6.7	.0	4.5	
	중	122	43	38	21	9	14	
		49.4	17.4	15.4	8.5	3.6	5.7	
	하	115	63	49	15	9	9	
		44.2	24.2	18.8	5.8	3.5	3.5	
	무응답	0	2	2	0	1	1	
		.0	33.3	33.3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 사용정도에서는 지역과 경제적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인이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시·군(28.7%), 서울(20.5%), 광역시(18.8%) 순으로 시·군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수준에서는 하층(27.7%), 중층(19.8%), 상층(15.7%)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정도가 높아졌다.

표 II-36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

		전혀아니다	아닌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학교안다님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34	99	73	35	13	21	22.251
		49.3	20.8	15.4	7.4	2.7	4.4	
	조손가정	20	3	7	1	2	4	
		54.1	8.1	18.9	2.7	5.4	10.8	
	기타가정	44	16	11	9	4	5	
		49.4	18.0	12.4	10.1	4.5	5.6	
	무응답	0	0	0	1	0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150	59	36	23	6	15	5.612
		51.9	20.4	12.5	8.0	2.1	5.2	
	여자	148	59	55	23	13	15	
		47.3	18.8	17.6	7.3	4.2	4.8	
지 역	서울	50	21	10	9	2	1	25.186**
		53.8	22.6	10.8	9.7	2.2	1.1	
	광역시	161	47	35	18	8	13	
		57.1	16.7	12.4	6.4	2.8	4.6	
	시 · 군	87	50	46	19	9	16	
		38.3	22.0	20.3	8.4	4.0	7.0	
경제적 수준	상	53	19	10	4	0	3	33.314**
		59.6	21.3	11.2	4.5	.0	3.4	
	중	132	40	27	22	9	17	
		53.4	16.2	10.9	8.9	3.6	6.9	
	하	113	57	52	20	9	9	
		43.5	21.9	20.0	7.7	3.5	3.5	
	무응답	0	2	2	0	1	1	
		.0	33.3	33.3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교사에 대한 공개적 반항 정도에서는 성별을 제외하고 가족유형, 지역, 가정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별로는 기타가정이 21.4%, 조손가정이 16.2%, 한부모가정이 14.5%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시·군(22.0%)이 월등히 높았고, 서울(13.0%)과 광역시(11.7%)은 비교적 낮았다. 경제적수준에서는 하층(16.1%), 중층(15.8%), 상층(12.3%)의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높은 반항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I-37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90 61.1	81 17.1	49 10.3	20 4.2	13 2.7	22 4.6	38.394***
	조손가정	20 54.1	4 10.8	3 8.1	3 8.1	2 5.4	5 13.5	
	기타가정	39 43.8	19 21.3	15 16.9	4 4.5	4 4.5	8 9.0	
	무응답	0 .0	0 .0	0 .0	1 100.0	0 .0	0 .0	
성 별	남자	164 56.7	55 19.0	28 9.7	17 5.9	6 2.1	19 6.6	6.591
	여자	185 59.1	49 15.7	39 12.5	11 3.5	13 4.2	16 5.1	
지 역	서울	64 68.8	14 15.1	8 8.6	4 4.3	2 2.2	1 1.1	25.226**
	광역시	179 63.5	46 16.3	25 8.9	8 2.8	8 2.8	16 5.7	
	시·군	106 46.7	44 19.4	34 15.0	16 7.0	9 4.0	18 7.9	
경제적 수준	상	58 65.2	16 18.0	5 5.6	6 6.7	0 .0	4 4.5	26.257*
	중	146 59.1	37 15.0	27 10.9	12 4.9	9 3.6	16 6.5	
	하	144 55.4	51 19.6	32 12.3	10 3.8	9 3.5	14 5.4	
	무응답	1 16.7	0 .0	3 50.0	0 .0	1 16.7	1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3) 학교활동

응답자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서울 70.9%, 광역시 69.8%, 시·군 54.1%로 서울과 광역시가 비슷하게 높았고 시·군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 74.1%로 가장 높았고, 하층이 5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38 학교활동 -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48	71	194	120	13	29	20.935
		10.1	14.9	40.8	25.3	2.7	6.1	
	조손가정	1	9	10	10	2	5	
		2.7	24.3	27.0	27.0	5.4	13.5	
	기타가정	10	14	34	18	4	9	
		11.2	15.7	38.2	20.2	4.5	10.1	
	무응답	1	0	0	0	0	0	
		100.0	.0	.0	.0	.0	.0	
성 별	남자	33	47	108	70	6	25	5.837
		11.4	16.3	37.4	24.2	2.1	8.7	
	여자	27	47	130	78	13	18	
		8.6	15.0	41.5	24.9	4.2	5.8	
지 역	서울	6	15	35	31	2	4	20.479**
		6.5	16.1	37.6	33.3	2.2	4.3	
	광역시	23	37	123	74	8	17	
		8.2	13.1	43.6	26.2	2.8	6.0	
	시·군	31	42	80	43	9	22	
		13.7	18.5	35.2	18.9	4.0	9.7	
경제적 수준	상	6	11	26	40	0	6	40.438***
		6.7	12.4	29.2	44.9	.0	6.7	
	중	24	31	108	58	9	17	
		9.7	12.6	43.7	23.5	3.6	6.9	
	하	28	51	103	50	9	19	
		10.8	19.6	39.6	19.2	3.5	7.3	
	무응답	2	1	1	0	1	1	
		33.3	16.7	16.7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한 도움정도 문항에서는 지역별, 경제수준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지역별로는 서울(51.6%)과 광역시(51.8%)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시·군(32.6%)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 60.7%로 가장 높고, 하층이 36.5%로 가장 낮다.

표 II-39 학교활동 -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93	81	131	88	13	69	17.143
		19.6	17.1	27.6	18.5	2.7	14.5	
	조손가정	3	7	11	6	2	8	
		8.1	18.9	29.7	16.2	5.4	21.6	
	기타가정	26	11	16	16	4	16	
		29.2	12.4	18.0	18.0	4.5	18.0	
	무응답	1	0	0	0	0	0	
		100.0	.0	.0	.0	.0	.0	
성 별	남자	67	48	71	50	6	47	5.245
		23.2	16.6	24.6	17.3	2.1	16.3	
	여자	56	51	87	60	13	46	
		17.9	16.3	27.8	19.2	4.2	14.7	
지 역	서울	15	17	25	23	2	11	25.914**
		16.1	18.3	26.9	24.7	2.2	11.8	
	광역시	48	42	84	62	8	38	
		17.0	14.9	29.8	22.0	2.8	13.5	
	시 · 군	60	40	49	25	9	44	
		26.4	17.6	21.6	11.0	4.0	19.4	
경제적 수준	상	16	9	22	32	0	10	40.080***
		18.0	10.1	24.7	36.0	.0	11.2	
	중	47	36	76	42	9	37	
		19.0	14.6	30.8	17.0	3.6	15.0	
	하	58	54	59	36	9	44	
		22.3	20.8	22.7	13.8	3.5	16.9	
	무응답	2	0	1	0	1	2	
		33.3	.0	16.7	.0	1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별, 경제적수준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는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54.2%가장 높고, 시군이 34.4%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에서는 상층(68.6%), 중층(46.2%), 하층(39.3%) 순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확연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0 학교활동 -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98	73	149	80	13	62	14.746
		20.6	15.4	31.4	16.8	2.7	13.1	
	조손가 정	5	4	10	8	2	8	
		13.5	10.8	27.0	21.6	5.4	21.6	
	기타가 정	23	14	17	15	4	16	
		25.8	15.7	19.1	16.9	4.5	18.0	
	무응답	1	0	0	0	0	0	
		100.0	.0	.0	.0	.0	.0	
성 별	남자	65	53	77	45	6	43	8.570
		22.5	18.3	26.6	15.6	2.1	14.9	
	여자	62	38	99	58	13	43	
		19.8	12.1	31.6	18.5	4.2	13.7	
지 역	서울	19	10	22	26	2	14	32.848***
		20.4	10.8	23.7	28.0	2.2	15.1	
	광역시	49	40	96	57	8	32	
		17.4	14.2	34.0	20.2	2.8	11.3	
	시·군	59	41	58	20	9	40	
		26.0	18.1	25.6	8.8	4.0	17.6	
경제 적 수준	상	14	5	33	28	0	9	36.734***
		15.7	5.6	37.1	31.5	.0	10.1	
	중	49	39	73	41	9	36	
		19.8	15.8	29.6	16.6	3.6	14.6	
	하	63	47	68	34	9	39	
		24.2	18.1	26.2	13.1	3.5	15.0	
	무응답	1	0	2	0	1	2	
		16.7	.0	33.3	.0	1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가족유형을 제외한 성별, 지역, 경제적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별에서 여자(55.6%)가 남자(41.6%)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60.2%)이 가장 높고, 광역시(54.3%)와 시·군(37.9%) 순으로 시·군은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수준에서는 상층(63.7%), 중층(48.6%), 하층(45.0%) 순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41 학교활동 -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안다님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67 14.1	80 16.8	155 32.6	85 17.9	13 2.7	75 15.8	16.934
	조손가정	5 13.5	3 8.1	12 32.4	7 18.9	2 5.4	8 21.6	
	기타가정	20 22.5	16 18.0	18 20.2	18 20.2	4 4.5	13 14.6	
	무응답	1 100.0	0 .0	0 .0	0 .0	0 .0	0 .0	
성 별	남자	56 19.4	61 21.1	76 26.3	45 15.6	6 2.1	45 15.6	20.778***
	여자	37 11.8	38 12.1	109 34.8	65 20.8	13 4.2	51 16.3	
지 역	서울	11 11.8	12 12.9	29 31.2	27 29.0	2 2.2	12 12.9	23.668**
	광역시	39 13.8	41 14.5	97 34.4	56 19.9	8 2.8	41 14.5	
	시·군	43 18.9	46 20.3	59 26.0	27 11.9	9 4.0	43 18.9	
경제적 수준	상	8 9.0	9 10.1	27 30.3	30 33.7	0 .0	15 16.9	32.046**
	중	45 18.2	36 14.6	81 32.8	39 15.8	9 3.6	37 15.0	
	하	39 15.0	53 20.4	76 29.2	41 15.8	9 3.5	42 16.2	
	무응답	1 16.7	1 16.7	1 16.7	0 .0	1 16.7	2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4) 지역사회생활 실태

(1)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에서의 도움 정도에서는 가족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본인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주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부모가정(59.1%), 조손가정(56.7%), 기타가정(49.5%) 순으로 지역사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 학교활동 -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44	60	196	85	90	21.838*
		9.3	12.6	41.3	17.9	18.9	
	조손가정	7	3	13	8	6	
		18.9	8.1	35.1	21.6	16.2	
	기타가정	5	16	28	16	24	
		5.6	18.0	31.5	18.0	27.0	
	무응답	1	0	0	0	0	
		100.0	.0	.0	.0	.0	
성 별	남자	28	40	120	48	53	2,299
		9.7	13.8	41.5	16.6	18.3	
	여자	29	39	117	61	67	
		9.3	12.5	37.4	19.5	21.4	
지 역	서울	8	8	41	16	20	8,522
		8.6	8.6	44.1	17.2	21.5	
	광역시	23	33	117	55	54	
		8.2	11.7	41.5	19.5	19.1	
	시·군	26	38	79	38	46	
		11.5	16.7	34.8	16.7	20.3	
경제적 수준	상	7	8	41	21	12	13,524
		7.9	9.0	46.1	23.6	13.5	
	중	21	26	102	46	52	
		8.5	10.5	41.3	18.6	21.1	
	하	28	44	92	41	55	
		10.8	16.9	35.4	15.8	21.2	
	무응답	1	1	2	1	1	
		16.7	16.7	33.3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지역행사 참여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표 II-43 지역사회 활동 -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37	136	89	34	79	11.714
		28.8	28.6	18.7	7.2	16.6	
	조손가정	16	8	3	3	7	
		43.2	21.6	8.1	8.1	18.9	
	기타가정	26	21	16	4	22	
		29.2	23.6	18.0	4.5	24.7	
	무응답	1	0	0	0	0	
		100.0	.0	.0	.0	.0	
성 별	남자	86	79	52	20	52	0.016
		29.8	27.3	18.0	6.9	18.0	
	여자	94	86	56	21	56	
		30.0	27.5	17.9	6.7	17.9	
지 역	서울	33	22	15	6	17	2.834
		35.5	23.7	16.1	6.5	18.3	
	광역시	81	82	50	21	48	
		28.7	29.1	17.7	7.4	17.0	
	시·군	66	61	43	14	43	
		29.1	26.9	18.9	6.2	18.9	
경제적 수준	상	21	23	20	9	16	9.395
		23.6	25.8	22.5	10.1	18.0	
	중	68	68	45	17	49	
		27.5	27.5	18.2	6.9	19.8	
	하	89	73	41	15	42	
		34.2	28.1	15.8	5.8	16.2	
	무응답	2	1	2	0	1	
		33.3	16.7	33.3	.0	16.7	

*단위: 명, %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부모가정 69.1%, 조손가정 62.1%로 한부모가정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 82.1%로 가장 높고, 하층은 57.3%로 지역사회에 대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4 지역사회 활동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45	58	188	140	44	28.431**
		9.5	12.2	39.6	29.5	9.3	
	조손가정	3	6	14	9	5	
		8.1	16.2	37.8	24.3	13.5	
	기타가정	7	10	21	31	20	
		7.9	11.2	23.6	34.8	22.5	
	무응답	1	0	0	0	0	3.983
		100.0	.0	.0	.0	.0	
	남자	28	36	96	95	34	
		9.7	12.5	33.2	32.9	11.8	
	여자	28	38	127	85	35	
		8.9	12.1	40.6	27.2	11.2	
지 역	서울	10	14	35	24	10	12.439
		10.8	15.1	37.6	25.8	10.8	
	광역시	18	37	106	95	26	
		6.4	13.1	37.6	33.7	9.2	
	시·군	28	23	82	61	33	
		12.3	10.1	36.1	26.9	14.5	
경제적 수준	상	4	4	32	41	8	35.296***
		4.5	4.5	36.0	46.1	9.0	
	중	19	27	97	81	23	
		7.7	10.9	39.3	32.8	9.3	
	하	32	43	92	57	36	
		12.3	16.5	35.4	21.9	13.8	
	무응답	1	0	2	1	2	
		16.7	.0	33.3	16.7	33.3	

***p<.001, **p<.01, *p<.05

*단위: 명, %

(2) 지역사회관계

동네친구와의 만남은 어떤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5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

		매일	주2-3회	주말	월2-3회	월 1회이하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67 35.2	99 20.8	80 16.8	45 9.5	82 17.3	2 .4	8.564
	조손가정	15 40.5	7 18.9	3 8.1	5 13.5	7 18.9	0 .0	
		29 32.6	13 14.6	15 16.9	11 12.4	20 22.5	1 1.1	
	기타가정	1 100.0	0 .0	0 .0	0 .0	0 .0	0 .0	
		109 37.7	51 17.6	49 17.0	31 10.7	48 16.6	1 .3	
	무응답	103 32.9	68 21.7	49 15.7	30 9.6	61 19.5	2 .6	
		35 37.6	17 18.3	16 17.2	7 7.5	17 18.3	1 1.1	3.547
성 별	남자	93 33.0	57 20.2	49 17.4	30 10.6	52 18.4	1 .4	
		84 37.0	45 19.8	33 14.5	24 10.6	40 17.6	1 .4	
	여자	33 37.1	18 20.2	14 15.7	8 9.0	16 18.0	0 .0	
		89 36.0	49 19.8	41 16.6	24 9.7	42 17.0	2 .8	
	중	86 33.1	51 19.6	43 16.5	29 11.2	50 19.2	1 .4	
		4 66.7	1 16.7	0 .0	0 .0	1 16.7	0 .0	
	무응답	33 37.1	18 20.2	14 15.7	8 9.0	16 18.0	0 .0	5.628
지 역	상	89 36.0	49 19.8	41 16.6	24 9.7	42 17.0	2 .8	
		86 33.1	51 19.6	43 16.5	29 11.2	50 19.2	1 .4	
	중	4 66.7	1 16.7	0 .0	0 .0	1 16.7	0 .0	
		33 37.1	18 20.2	14 15.7	8 9.0	16 18.0	0 .0	
	하	89 36.0	49 19.8	41 16.6	24 9.7	42 17.0	2 .8	
		86 33.1	51 19.6	43 16.5	29 11.2	50 19.2	1 .4	
	무응답	4 66.7	1 16.7	0 .0	0 .0	1 16.7	0 .0	

*단위: 명, %

지역사회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과 지역별 항목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PC방이 23.2%로 높으며, 여자는 집주변이 30.7% 높았다. 지역별로 서울은 기타(29.0%)와 집주변(28.0%)이 높고, 광역시는 집주변(30.9%)과 학교나 공원(24.5%)이 높으며, 시·군은 기타(32.6%)와 집주변(21.6%)이 만남의 장소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46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

		집주변	학교나 공원	학원	PC방	기타	모름/ 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128	110	38	62	134	3	16.048
	가정	26.9	23.2	8.0	13.1	28.2	.6	
	조손가정	15	8	5	4	5	0	
		40.5	21.6	13.5	10.8	13.5	.0	
	기타가정	19	15	10	17	27	1	
		21.3	16.9	11.2	19.1	30.3	1.1	
	무응답	0	1	0	0	0	0	
		.0	100.0	.0	.0	.0	.0	
성 별	남자	66	64	20	67	70	2	43.535***
		22.8	22.1	6.9	23.2	24.2	.7	
	여자	96	70	33	16	96	2	
		30.7	22.4	10.5	5.1	30.7	.6	
지 역	서울	26	17	10	12	27	1	27.430**
		28.0	18.3	10.8	12.9	29.0	1.1	
	광역시	87	69	33	27	65	1	
		30.9	24.5	11.7	9.6	23.0	.4	
	시·군	49	48	10	44	74	2	
		21.6	21.1	4.4	19.4	32.6	.9	
경제적 수준	상	29	26	8	8	18	0	16.222
		32.6	29.2	9.0	9.0	20.2	.0	
	중	68	58	25	35	59	2	
		27.5	23.5	10.1	14.2	23.9	.8	
	하	64	48	20	39	87	2	
		24.6	18.5	7.7	15.0	33.5	.8	
	무응답	1	2	0	1	2	0	
		16.7	33.3	.0	16.7	33.3	.0	

***p<.001, **p<.01, *p<.05,

*단위: 명, %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에서는 지역별, 경제수준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지역별로 광역시(48.6%)와 서울(47.3%)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군(34.3%)로 비교적 낮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 65.2%로 가장 높고, 하층이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이웃들과의 관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11 2.3	14 2.9	234 49.3	161 33.9	51 10.7	4 .8	19.420
	조손가정	1 2.7	2 5.4	15 40.5	10 27.0	9 24.3	0 .0	
	기타가정	5 5.6	6 6.7	50 56.2	22 24.7	6 6.7	0 .0	
	무응답	0 .0	0 .0	1 100.0	0 .0	0 .0	0 .0	
성 별	남자	11 3.8	10 3.5	146 50.5	89 30.8	30 10.4	3 1.0	3.626
	여자	6 1.9	12 3.8	154 49.2	104 33.2	36 11.5	1 .3	
지 역	서울	0 .0	4 4.3	43 46.2	33 35.5	11 11.8	2 2.2	20.784*
	광역시	10 3.5	6 2.1	128 45.4	100 35.5	37 13.1	1 .4	
	시·군	7 3.1	12 5.3	129 56.8	60 26.4	18 7.9	1 .4	
경제적 수준	상	0 .0	2 2.2	28 31.5	41 46.1	17 19.1	1 1.1	49.225***
	중	4 1.6	5 2.0	117 47.4	87 35.2	33 13.4	1 .4	
	하	13 5.0	15 5.8	151 58.1	64 24.6	15 5.8	2 .8	
	무응답	0 .0	0 .0	4 66.7	1 16.7	1 16.7	0 .0	

***p<.001, **p<.01, *p<.05

*단위: 명, %

5) 문제생활 실태

(1) 약물비행

약물은 흡연, 음주, 본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1개월 이내 음주경험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음주경험이 9.7%인데 반해 광역시 16%, 시·군은 30.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8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술을 마신 적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88	386	1	11.027
		18.5	81.3	.2	
	조손가정	13	24	0	
		35.1	64.9	.0	
	기타가정	22	67	0	
		24.7	75.3	.0	
	무응답	1	0	0	
		100.0	.0	.0	
성 별	남자	63	226	0	1,388
		21.8	78.2	.0	
	여자	61	251	1	
		19.5	80.2	.3	
지 역	서울	9	84	0	26,970***
		9.7	90.3	.0	
	광역시	45	237	0	
		16.0	84.0	.0	
	시·군	70	156	1	
		30.8	68.7	.4	
경제적 수준	상	12	77	0	11,611
		13.5	86.5	.0	
	중	44	203	0	
		17.8	82.2	.0	
	하	65	194	1	
		25.0	74.6	.4	
	무응답	3	3	0	
		50.0	50.0	.0	

***p<.001, **p<.01, *p<.05

*단위: 명, %

다음으로 1개월 이내 흡연경험에서는 전 항목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가정(38.2%), 조손가정(32.4%), 한부모가정(22.7%)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30.1%)가 여자(21.7%)보다 흡연경험이 많으며, 지역별로는 시군지역이 42.7%로 서울 11.8%, 광역시 16.7%보다 매우 높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34.2%), 중층(20.6%), 상층(13.5%)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확연히 흡연경험이 높아진다.

표 II-49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적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08	366	1	13.416*
		22.7	77.1	.2	
	조손가정	12	25	0	
		32.4	67.6	.0	
	기타가정	34	55	0	
		38.2	61.8	.0	
성 별	무응답	1	0	0	6.337*
		100.0	.0	.0	
	남자	87	202	0	
		30.1	69.9	.0	
	여자	68	244	1	
		21.7	78.0	.3	
지 역	서울	11	82	0	57.984***
		11.8	88.2	.0	
	광역시	47	235	0	
		16.7	83.3	.0	
	시·군	97	129	1	
		42.7	56.8	.4	
경제적 수준	상	12	77	0	23.555***
		13.5	86.5	.0	
	중	51	196	0	
		20.6	79.4	.0	
	하	89	170	1	
		34.2	65.4	.4	
	무응답	3	3	0	
		50.0	50.0	.0	

***p<.001, **p<.01, *p<.05

*단위: 명, %

1개월 이내 본드흡입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0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본드를 흡입한 적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6	466	3	1.902
		1.3	98.1	.6	
	조손가정	0	37	0	
		.0	100.0	.0	
	기타가정	2	87	0	
		2.2	97.8	.0	
성 별	남자	0	1	0	5.109
		.0	100.0	.0	
	여자	6	283	0	
		2.1	97.9	.0	
		2	308	3	
		.6	98.4	1.0	
지 역	서울	1	92	0	3.470
		1.1	98.9	.0	
	광역시	2	279	1	
		.7	98.9	.4	
	시·군	5	220	2	
		2.2	96.9	.9	
경제적 수준	상	1	88	0	2.235
		1.1	98.9	.0	
	중	2	244	1	
		.8	98.8	.4	
	하	5	253	2	
		1.9	97.3	.8	
	무응답	0	6	0	
		.0	100.0	.0	

*단위: 명, %

(2) 생활비행

1년 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에서는 지역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에서 시·군(17.6%)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12.9%), 광역시(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1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55	419	1	1.111
		11.6	88.2	.2	
	조손가정	6	31	0	
		16.2	83.8	.0	
	기타가정	11	78	0	
		12.4	87.6	.0	
성 별	무응답	0	1	0	4.366
		.0	100.0	.0	
	남자	42	247	0	
		14.5	85.5	.0	
	여자	30	282	1	
		9.6	90.1	.3	
지 역	서울	12	81	0	15.121**
		12.9	87.1	.0	
	광역시	20	262	0	
		7.1	92.9	.0	
	시·군	40	186	1	
		17.6	81.9	.4	
경제적 수준	상	9	80	0	8.209
		10.1	89.9	.0	
	중	21	226	0	
		8.5	91.5	.0	
	하	41	218	1	
		15.8	83.8	.4	
	무응답	1	5	0	
		16.7	83.3	.0	

***p<.001, **p<.01, *p<.05

*단위: 명, %

1년 내 폭력사용 경험에서는 성별 및 지역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1.8%, 여자 15.2%로 남자들의 폭력 사용이 매우 높다. 지역별로 시·군(33.5%)이 가장 높고, 서울(25.8%)이 다음이며 광역시(17.4%)로 가장 낮았다.

표 II-52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 등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10	364	1	6.171
		23.2	76.6	.2	
	조손가정	10	27	0	
		27.0	73.0	.0	
	기타가정	28	61	0	
		31.5	68.5	.0	
	무응답	1	0	0	15.732***
		100.0	.0	.0	
	남자	92	197	0	
		31.8	68.2	.0	
	여자	57	255	1	
		18.2	81.5	.3	
지 역	서울	24	69	0	19.472***
		25.8	74.2	.0	
	광역시	49	233	0	
		17.4	82.6	.0	
	시·군	76	150	1	
		33.5	66.1	.4	
경제적 수준	상	13	76	0	7.396
		14.6	85.4	.0	
	중	67	180	0	
		27.1	72.9	.0	
	하	67	192	1	
		25.8	73.8	.4	
	무응답	2	4	0	
		33.3	66.7	.0	

***p<.001, **p<.01, *p<.05

*단위: 명, %

최근 1년 내 돈이나 물건을 갈취한 경험에서는 지역별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시·군(16.7%), 서울(15.1%), 광역시(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3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53	421	1	3.433
		11.2	88.6	.2	
	조손가정	7	30	0	
		18.9	81.1	.0	
	기타가정	14	75	0	
		15.7	84.3	.0	
	무응답	0	1	0	3.466
		.0	100.0	.0	
	남자	42	247	0	
		14.5%	85.5%	.0%	
	여자	32	280	1	
		10.2%	89.5%	.3%	
지 역	서울	14	79	0	11.857*
		15.1	84.9	.0	
	광역시	22	260	0	
		7.8	92.2	.0	
	시·군	38	188	1	
		16.7	82.8	.4	
경제적 수준	상	9	80	0	3.886
		10.1	89.9	.0	
	중	26	221	0	
		10.5	89.5	.0	
	하	38	221	1	
		14.6	85.0	.4	
	무응답	1	5	0	
		16.7	83.3	.0	

***p<.001, **p<.01, *p<.05

*단위: 명, %

최근 1주일 내 욕설 사용 경험은 성별 및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 가족유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68.2%, 여자가 54.6%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에서는 하층(72.7%), 중층(53.4%), 상층(49.4%)의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욕설사용경험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표 II-54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하였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285	189	1	2.070
		60.0	39.8	.2	
	조손가정	25	12	0	
		67.6	32.4	.0	
	기타가정	57	32	0	
		64.0	36.0	.0	
	무응답	1	0	0	
		100.0	.0	.0	
성 별	남자	197	92	0	12.204**
		68.2	31.8	.0	
	여자	171	141	1	
		54.6	45.0	.3	
지 역	서울	60	33	0	6.971
		64.5	35.5	.0	
	광역시	159	123	0	
		56.4	43.6	.0	
	시·군	149	77	1	
		65.6	33.9	.4	
경제적 수준	상	44	45	0	28.194***
		49.4%	50.6%	.0%	
	중	132	115	0	
		53.4%	46.6%	.0%	
	하	189	70	1	
		72.7%	26.9%	.4%	
	무응답	3	3	0	
		50.0%	50.0%	.0%	

***p<.001, **p<.01, *p<.05

*단위: 명, %

최근 1주일 이내 거짓말 사용 경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5 범죱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74	300	1	7.545
		36.6	63.2	.2	
	조손가정	19	18	0	
		51.4	48.6	.0	
	기타가정	43	46	0	
		48.3	51.7	.0	
	무응답	0	1	0	0.989
		.0	100.0	.0	
	남자	115	174	0	
		39.8	60.2	.0	
	여자	121	191	1	
		38.7	61.0	.3	
지 역	서울	41	52	0	6.956
		44.1	55.9	.0	
	광역시	97	185	0	
		34.4	65.6	.0	
	시·군	98	128	1	
		43.2	56.4	.4	
경제적 수준	상	25	64	0	7.091
		28.1	71.9	.0	
	중	100	147	0	
		40.5	59.5	.0	
	하	109	150	1	
		41.9	57.7	.4	
	무응답	2	4	0	
		33.3	66.7	.0	

*단위: 명, %

최근 1년 이내 가출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역별, 경제수준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군지역이 46.3%로 가장 높고, 서울이 24.7%로 나타나 시·군지역의 가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이 40.3%로 가장 높고, 중층 및 상층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기가정의 경우 가출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표 II-56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 적(가출)이 있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33	341	1	7.334
		28.0	71.8	.2	
	조손가정	14	23	0	
		37.8	62.2	.0	
	기타가정	34	55	0	
		38.2	61.8	.0	
성 별	무응답	1	0	0	3.197
		100.0	.0	.0	
	남자	96	193	0	
		33.2	66.8	.0	
	여자	86	226	1	
		27.5	72.2	.3	
지 역	서울	23	70	0	47.538***
		24.7	75.3	.0	
	광역시	54	228	0	
		19.1	80.9	.0	
	시·군	105	121	1	
		46.3	53.3	.4	
경제적 수준	상	18	71	0	24.417***
		20.2	79.8	.0	
	중	58	189	0	
		23.5	76.5	.0	
	하	105	154	1	
		40.4	59.2	.4	
	무응답	1	5	0	
		16.7	83.3	.0	

***p<.001, **p<.01, *p<.05

*단위: 명, %

최근 1년 내 성인물에 대한 접촉 경험에서는 성별, 지역 및 경제적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19%로 여자7% 보다 많이 유해물을 접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군(18.5%)이 서울(9.7%)이나 광역시(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18.1%)이 중층(9.3%)과 상층(7.9%)을 합한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57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게임, 성인잡지 등을 보았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57	417	1	1.998
		12.0	87.8	.2	
	조손가정	5	32	0	
		13.5	86.5	.0	
	기타가정	15	74	0	
		16.9	83.1	.0	
성 별	무응답	0	1	0	20.203**
		.0	100.0	.0	
	남자	55	234	0	
		19.0	81.0	.0	
	여자	22	290	1	
		7.0	92.7	.3	
지 역	서울	9	84	0	12.459*
		9.7	90.3	.0	
	광역시	26	256	0	
		9.2	90.8	.0	
	시·군	42	184	1	
		18.5	81.1	.4	
경제적 수준	상	7	82	0	13.451*
		7.9	92.1	.0	
	중	23	224	0	
		9.3	90.7	.0	
	하	47	212	1	
		18.1	81.5	.4	
	무응답	0	6	0	
		.0	100.0	.0	

***p<.001, **p<.01, *p<.05

*단위: 명, %

1년 내 유해업소 출입 경험에서는 가족유형별, 지역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가정(22.5%)과 조손가정(21.6%)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정 12.8%(12.8%)이 비교적 낮았다. 지역별로는 시·군(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와 서울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I-58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유해업소 출입,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을 출입하였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61	412	2	13.049*
		12.8	86.7	.4	
	조손가정	8	29	0	
		21.6	78.4	.0	
	기타가정	20	69	0	
		22.5	77.5	.0	
성 별	무응답	1	0	0	1.765
		100.0	.0	.0	
	남자	49	239	1	
		17.0	82.7	.3	
	여자	41	271	1	
		13.1	86.6	.3	
지 역	서울	9	84	0	20.702***
		9.7	90.3	.0	
	광역시	28	253	1	
		9.9	89.7	.4	
	시·군	53	173	1	
		23.3	76.2	.4	
경제적 수준	상	8	81	0	7.494
		9.0	91.0	.0	
	중	32	214	1	
		13.0	86.6	4.4	
	하	48	211	1	
		18.5	81.2	.4	
	무응답	2	4	0	
		33.3	66.7	.0	

***p<.001, **p<.01, *p<.05

*단위: 명, %

(3) 성비행

성비행은 성추행 피해와 성폭력 피해로 구분하였으며 1년 내 성추행을 당한 경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9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추행(강제로 이성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했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7	457	1	2.431
		3.6	96.2	.2	
	조손가정	1	36	0	
		2.7	97.3	.0	
	기타가정	6	83	0	
		6.7	93.3	.0	
성 별	무응답	0	1	0	0.976
		.0	100.0	.0	
	남자	11	278	0	
		3.8	96.2	.0	
지 역	여자	13	299	1	8.818
		4.2	95.5	.3	
	서울	1	92	0	
		1.1	98.9	.0	
경제적 수준	광역시	8	274	0	4.905
		2.8	97.2	.0	
	시·군	15	211	1	
		6.6	93.0	.4	
	상	1	88	0	
		1.1	98.9	.0	
	중	9	238	0	
		3.6	96.4	.0	
	하	14	245	1	
		5.4	94.2	.4	
	무응답	0	6	0	
		.0	100.0	.0	

*단위: 명, %

최근 1년 내 성폭력 경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0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했다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4	460	1	3.335
		2.9	96.8	.2	
	조손가정	0	37	0	
		.0	100.0	.0	
	기타가정	5	84	0	
		5.6	94.4	.0	
성 별	남자	0	1	0	1.087
		.0	100.0	.0	
	여자	10	279	0	
		3.5	96.5	.0	
		9	303	1	
		2.9	96.8	.3	
지 역	서울	2	91	0	3.566
		2.2	97.8	.0	
	광역시	7	275	0	
		2.5	97.5	.0	
	시·군	10	216	1	
		4.4	95.2	.4	
경제적 수준	상	2	87	0	2.257
		2.2	97.8	.0	
	중	7	240	0	
		2.8	97.2	.0	
	하	10	249	1	
		3.8	95.8	.4	
	무응답	0	6	0	
		.0	100.0	.0	

*단위: 명, %

6) 여가생활 실태

(1) 수업 외 하루일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수업 외 하루일과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수면과 TV시청, 학원방문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수면은 평균적으로 조손가정이 8.84시간, 한부모가정이 8.10시간으로 나타났다. TV시청은 한부모가정이 2.83시간으로 조손가정의 2.16시간보다 많이 하고 있으며, 학원방문은 조손가정이 3.08시간이며 한부모가정이 2.56시간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인터넷 사용과 가족과 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남자가 2.24시간으로 여자 1.41시간보다 많았으며 가족과 대화시간은 남녀가 1시간 정도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인터넷사용과 운동 등 바깥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사용에서는 시·군이 2.11시간으로 가장 높으며 광역시가 1.6시간으로 가장 낮았고, 운동 및 바깥 활동에서는 시·군의 아동·청소년이 2.33시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수준별로는 인터넷사용, 학원방문, 기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은 중위가 1.88시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상위가 1.3시간으로 가장 낮으며, 학원방문은 중층이 3.03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에 하층이 1.83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1 학교 수업 시간외의 활동 시간

구 분		수 면	TV시청	인터넷 사용	공부시간	가족과 대화	학원방문	운동 등 바깥활동	기 타
한부모 가정	평균	8.10	2.83	1.70	1.04	.84	2.56	1.99	1.94
	N	465	465	467	464	457	465	462	443
조손가정	평균	8.84	2.16	2.38	.86	.95	3.08	1.95	2.11
	N	37	37	37	37	37	37	37	37
기타가정	평균	7.90	2.05	2.16	.85	.58	1.64	2.06	2.29
	N	87	86	87	86	85	86	84	86
F값		2.691*	3.659*	2.458	.719	1.090	3.524*	.023	.448
남자	평균	7.99	2.51	2.24	1.10	1.01	2.33	2.07	1.78
	N	285	285	286	284	283	285	281	279
여자	평균	8.25	2.82	1.41	1.30	1.00	2.57	1.93	2.21
	N	305	304	306	304	297	304	303	288
F값		1.956	2.690	27.684***	2.810	11.082***	1.028	.494	2.638
서울	평균	8.30	2.90	1.70	.97	1.05	3.70	1.89	2.41
	N	92	91	91	91	91	91	91	91
광역시	평균	8.04	2.56	1.60	1.06	.84	3.12	1.77	1.85
	N	277	276	277	277	269	277	274	262
시·군	평균	8.15	2.71	2.11	.93	.66	1.11	2.33	2.02
	N	221	222	224	220	220	221	219	214
F값		.534	.832	4.237*	.560	2.668	48.568	3.180*	1.081
상	평균	8.08	2.19	1.33	1.28	1.10	2.69	2.00	1.57
	N	89	89	89	89	89	89	89	87
중	평균	8.16	2.95	1.88	.95	.83	3.03	1.99	1.67
	N	243	241	244	241	238	242	241	231
하	평균	8.07	2.57	1.86	.96	.67	1.83	2.02	2.50
	N	253	253	253	252	247	252	250	245
F값		1.309	2.764	4.474**	1.554	2.372	8.050***	.121	4.112**

***p<.001, **p<.01, *p<.05

*단위: 시간, 명

(2) 여가생활

여가생활 중 먼저 취미활동 정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36	76	212	98	53	14.574
		7.6	16.0	44.6	20.6	11.2	
	조손가정	5	7	11	12	2	
		13.5	18.9	29.7	32.4	5.4	
	기타가정	12	7	40	18	12	
		13.5	7.9	44.9	20.2	13.5	
	무응답	0	0	1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26	39	124	67	33	1.931
		9.0	13.5	42.9	23.2	11.4	
	여자	27	51	140	61	34	
		8.6	16.3	44.7	19.5	10.9	
지 역	서울	8	13	42	20	10	3.691
		8.6	14.0	45.2	21.5	10.8	
	광역시	27	36	122	63	34	
		9.6	12.8	43.3	22.3	12.1	
	시·군	18	41	100	45	23	
		7.9	18.1	44.1	19.8	10.1	
경제적 수준	상	10	6	35	24	14	20.787
		11.2	6.7	39.3	27.0	15.7	
	중	15	34	117	58	23	
		6.1	13.8	47.4	23.5	9.3	
	하	27	49	108	46	30	
		10.4	18.8	41.5	17.7	11.5	
	무응답	1	1	4	0	0	
		16.7	16.7	66.7	.0	.0	

*단위: 명, %

공공시설 이용 정도에서는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는 가족유형별로 한부모가정(41.1%), 기타가정(40.4%), 조손가정(3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별로는 상층(50.5%), 중층(41.7%), 하층(36.1%)의 순으로 공공시설을 잘 활용하며 하층으로 갈수록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3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97	137	148	47	46	21.968*
		20.4	28.8	31.2	9.9	9.7	
	조손가정	10	14	7	6	0	
		27.0	37.8	18.9	16.2	.0	
	기타가정	28	13	26	10	12	
		31.5	14.6	29.2	11.2	13.5	
	무응답	0	0	1	0	0	
		.0	.0	100.0	.0	.0	
성 별	남자	72	78	81	34	24	4.359
		24.9	27.0	28.0	11.8	8.3	
	여자	63	86	101	29	34	
		20.1	27.5	32.3	9.3	10.9	
지 역	서울	22	26	28	8	9	9.270
		23.7	28.0	30.1	8.6	9.7	
	광역시	50	76	93	35	28	
		17.7	27.0	33.0	12.4	9.9	
	시·군	63	62	61	20	21	
		27.8	27.3	26.9	8.8	9.3	
경제적 수준	상	13	17	31	14	14	23.763*
		14.6	19.1	34.8	15.7	15.7	
	중	52	65	79	24	27	
		21.1	26.3	32.0	9.7	10.9	
	하	68	82	69	25	16	
		26.2	31.5	26.5	9.6	6.2	
	무응답	2	0	3	0	1	
		33.3	.0	50.0	.0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64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30	79	191	128	47	14.732
		6.3	16.6	40.2	26.9	9.9	
	조손가정	6	5	14	10	2	
		16.2	13.5	37.8	27.0	5.4	
	기타가정	13	10	36	19	11	
		14.6	11.2	40.4	21.3	12.4	
성 별	무응답	0	0	1	0	0	4.405
		.0	.0	100.0	.0	.0	
	남자	27	43	108	84	27	
		9.3	14.9	37.4	29.1	9.3	
	여자	22	51	134	73	33	
		7.0	16.3	42.8	23.3	10.5	
지 역	서울	8	16	38	22	9	10.429
		8.6	17.2	40.9	23.7	9.7	
	광역시	19	44	106	89	24	
		6.7	15.6	37.6	31.6	8.5	
	시·군	22	34	98	46	27	
		9.7	15.0	43.2	20.3	11.9	
경제적 수준	상	6	8	33	33	9	15.422
		6.7	9.0	37.1	37.1	10.1	
	중	19	38	98	71	21	
		7.7	15.4	39.7	28.7	8.5	
	하	24	47	109	51	29	
		9.2	18.1	41.9	19.6	11.2	
	무응답	0	1	2	2	1	
		.0	16.7	33.3	33.3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성별 및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는 친구가 3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컴퓨터가 32.9%, 가족11.4%로 여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자는 친구가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과 컴퓨터가 각19.5%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친구와 컴퓨터 순으로 가장 많이 여가를 보내나 가족과 보내는 경우는 시군은 12.8%로 가장 낮고, 서울이 21.5%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65 여가 시간 보내는 방법

		친구	가족	컴퓨터	게임기	기타	모름/ 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176	80	120	21	70	8	13.154
	가정	37.1	16.8	25.3	4.4	14.7	1.7	
	조손가정	16	6	8	1	6	0	
		43.2	16.2	21.6	2.7	16.2	.0	
	기타가정	25	8	28	6	20	2	
		28.1	9.0	31.5	6.7	22.5	2.2	
	무응답	1	0	0	0	0	0	
		100.0	.0	.0	.0	.0	.0	
성 별	남자	98	33	95	20	40	3	26.466***
		33.9	11.4	32.9	6.9	13.8	1.0	
	여자	120	61	61	8	56	7	
		38.3	19.5	19.5	2.6	17.9	2.2	
지 역	서울	28	20	24	6	14	1	8.456
		30.1	21.5	25.8	6.5	15.1	1.1	
	광역시	106	45	74	13	41	3	
		37.6	16.0	26.2	4.6	14.5	1.1	
	시·군	84	29	58	9	41	6	
		37.0	12.8	25.6	4.0	18.1	2.6	
경제적 수준	상	27	24	18	8	8	4	47.477***
		30.3	27.0	20.2	9.0	9.0	4.5	
	중	91	44	61	12	35	4	
		36.8	17.8	24.7	4.9	14.2	1.6	
	하	98	24	77	8	52	1	
		37.7	9.2	29.6	3.1	20.0	.4	
	무응답	2	2	0	0	1	1	
		33.3	33.3	.0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3) 정보화 생활

먼저 컴퓨터 이용은 컴퓨터 보유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컴퓨터 보유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66 컴퓨터 보유 여부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415	52	8	3.540
		87.4	10.9	1.7	
	조손가정	36	1	0	
		97.3	2.7	.0	
	기타가정	79	9	1	
		88.8	10.1	1.1	
성 별	무응답	1	0	0	3.790
		100.0	.0	.0	
	남자	248	37	4	
		85.8	12.8	1.4	
	여자	283	25	5	
		90.4	8.0	1.6	
지 역	서울	80	12	1	6.225
		86.0	12.9	1.1	
	광역시	257	23	2	
		91.1	8.2	.7	
	시·군	194	27	6	
		85.5	11.9	2.6	
경제적 수준	상	78	10	1	0.622
		87.6	11.2	1.1	
	중	219	24	4	
		88.7	9.7	1.6	
	하	229	27	4	
		88.1	10.4	1.5	
	무응답	5	1	0	
		83.3	16.7	.0	

*단위: 명, %

일주일 기준 컴퓨터 이용횟수에서는 가족유형을 제외한 성별, 지역별, 가족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자(4.59회)가 여자(3.79회)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시·군(4.56회)의 아동·청소년이 서울(4.08회)이나 광역시(3.91회)보다 사용시간이 많으며,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4.55회)이 중층(3.98회)과 상층(3.70회)에 비해 높은 사용수준을 보였다.

표 II-67 컴퓨터 이용횟수 (일주일 기준)

		평균	사례수	F값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4.16	462	.335
	조손가정	4.08	37	
	기타가정	4.29	84	
성 별	남자	4.59	278	15.371***
	여자	3.79	306	
지 역	서울	4.08	92	4.258*
	광역시	3.91	280	
	시·군	4.56	212	
경제적 수준	상	3.70	87	4.466**
	중	3.98	240	
	하	4.55	252	

***p<.001, **p<.01, *p<.05

단위: 회, 명

일주일 기준 인터넷 이용횟수에서는 가족유형을 제외한 성별, 지역별, 가족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자(4.33회)가 여자(3.74회)에 비해 비교적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시·군이 4.45회로 서울(3.93회)과 광역시(3.72회)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4.37회), 중층(3.83회), 상층(3.57회)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8 인터넷 이용횟수 (일주일 기준)

		평균	사례수	F값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4.07	453	.482
	조손가정	3.76	37	
	기타가정	3.89	85	
성 별	남자	4.33	273	8.294**
	여자	3.74	303	
지 역	서울	3.93	91	5.310**
	광역시	3.72	277	
	시·군	4.45	208	
경제적 수준	상	3.57	84	3.293*
	중	3.83	239	
	하	4.37	248	

***p<.001, **p<.01, *p<.05,

*단위: 회, 명

휴대게임기 이용횟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9 휴대게임기(닌텐도, X-Box, PMP 등) 이용횟수(일주일 기준)

		평균	사례수	F값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1.58	460	1.581
	조손가정	.81	37	
	기타가정	1.33	87	
성 별	남자	1.63	281	2.091
	여자	1.36	304	
지 역	서울	1.76	92	2.169
	광역시	1.59	276	
	시·군	1.24	217	
경제적 수준	상	1.55	87	.553
	중	1.51	241	
	하	1.48	252	

*단위: 시간, 명

휴대전화 보유 여부에서는 경제적수준을 제외한 가족유형, 성별,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73.0%로 한부모가정의 67.4%와 기타가정의 4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70.0%)가 남자(57.8%)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9.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역시(67.7%), 시·군(5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70 휴대전화 보유 여부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320	148	7	21.665***
		67.4	31.2	1.5	
	조손가정	27	10	0	
		73.0	27.0	.0	
	기타가정	39	48	2	
		43.8	53.9	2.2	
성 별	남자	0	1	0	9.697**
		.0	100.0	.0	
	여자	167	117	5	
		57.8	40.5	1.7	
		219	90	4	
		70.0	28.8	1.3	
지 역	서울	65	27	1	9.571**
		69.9	29.0	1.1	
	광역시	191	89	2	
		67.7	31.6	.7	
	시·군	130	91	6	
		57.3	40.1	2.6	
경제적 수준	상	57	31	1	12.250
		64.0	34.8	1.1	
	중	166	78	3	
		67.2	31.6	1.2	
	하	161	95	4	
		61.9	36.5	1.5	
	무응답	2	3	1	
		33.3	50.0	16.7	

***p<.001, **p<.01, *p<.05

*단위: 원, %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1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평균	사례수	F값
가족유형	한부모가정	40901.00	158	.804
	조손가정	30000.00	15	
	기타가정	32226.50	20	
성 별	남자	34833.31	84	1.663
	여자	42485.23	109	
지 역	서울	38294.12	34	1.945
	광역시	33482.44	86	
	시·군	46238.33	73	
경제적 수준	상	34035.33	30	1.631
	중	34047.33	83	
	하	46770.89	79	

*단위: 원, 명

휴대폰의 주 사용용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자, 여자 모두 휴대전화 주 사용 용도가 통화와 문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다음으로 남자는 10.2% 정도 휴대전화를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음악다운이나 듣기에 3.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2 휴대전화 주 사용용도

		통화/문자	무선인터넷	음악다운/듣기	게임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
가족 유형	한부모 가정	262	9	11	18	17	3	6.498
		81.9	2.8	3.4	5.6	5.3	.9	
	조손가정	24	0	0	0	2	1	
		88.9	.0	.0	.0	7.4	3.7	
	기타가정	32	1	2	2	1	1	
		82.1	2.6	5.1	5.1	2.6	2.6	
	무응답	45	1	3	5	3	0	
		78.9	1.8	5.3	8.8	5.3	.0	
성 별	남자	122	8	5	17	11	4	26.794***
		73.1	4.8	3.0	10.2	6.6	2.4	
	여자	196	2	8	3	9	1	
		89.5	.9	3.7	1.4	4.1	.5	
지 역	서울	55	2	2	2	3	1	12.960
		84.6	3.1	3.1	3.1	4.6	1.5	
	광역시	160	2	7	6	13	3	
		83.8	1.0	3.7	3.1	6.8	1.6	
	시·군	103	6	4	12	4	1	
		79.2	4.6	3.1	9.2	3.1	.8	
경제적 수준	상	140	2	3	7	11	3	10.313
		84.3	1.2	1.8	4.2	6.6	1.8	
	중	131	7	7	8	6	2	
		81.4	4.3	4.3	5.0	3.7	1.2	
	하	2	0	0	0	0	0	
		100.0	.0	.0	.0	.0	.0	
	무응답	2	2	0	0	1	1	
		33.3	33.3	.0	.0	16.7	16.7	

***p<.001, **p<.01, *p<.05

*단위: 명, %

제 3 장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 3 장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1) 전문가패널 선정

기존의 델파이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회수율은 일반적이 서베이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략 50%에서 70% 정도로 어떤 경우는 현저히 낮은 것도 있다. 낮은 응답률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의 수, 즉 표본 집단의 크기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Rowe, Wright & Bolger, 1991). 단 10여명 내외의 소집단 패널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Armstrong, 2002). 하지만 대다수 델파이 선행연구가 패널은 최소 15명이상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Jensen & Anderson, 1996; Rowe, Wright & Bolger, 1991; Woudenberg, 1991; Yuxiang, Donghua & Changgeng, 1990)¹⁾.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적인 지식, 전체 참가자의 수, 참여와 답변의 성실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Armstrong, 2002; Jensen & Anderson, 1996).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의 선정기준을 현재 청소년관련 연구나 업무 경력자(학계, 연구기관, 실무기관, 청소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로 정하였다. 먼저 학계는 대학교수의 경우 가족 및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으며,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의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로 제한했다. 행정계의 경우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1) 기존 델파이 연구의 메타분석(Webler, et al., 1991)에 의하면, 패널크기가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으로 다양했다. 다만, 패널의 크기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신뢰성과 그룹의 평균오차가 패널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 평균 그룹(average group error)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그룹의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irdir & Pearson, 2000).

정책담당자로 5급 이상 공무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의 경우는 일반가정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시설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결과 연구진 자체조사와 자문추천을 통해 전문가로 최종 판단된 분들을 개별 접촉하여 델파이 조사를 승낙한 전문가는 학계, 행정계, 현장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 분야별 델파이조사 전문가

영역	델파이조사 전문가 분야	인원
학계, 행정계, 현장	아동·청소년·가족·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연구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부천새롬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정보센터 중앙지원단,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318 해피존 서대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부모가정사랑회,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30명

2) 조사도구

앞선 이론적, 실천적 연구동향과 해외연구동향의 검토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연구의 내용범주를 미리 설정해보기로 했다. 수요예측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통상 현재까지의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미래예측의 질문지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이다(Benaire, 1988; Linstone & Turoff, 1975; Tillman, 1989). 질문지를 구성하기 전에 선행연구(성윤숙·박병식, 2009; 이해연 외, 2009)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고 가족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8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및 아동·청소년복지 관련기관 현장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일반적 특성	- 소속 및 부서
2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저소득가정
3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저소득가정
4	아동 ·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 친구와의 관계문제(학교폭력 및 왕따) - 교사와의 관계문제 - 가정 문제 - 경제문제 - 수업문제(낮은 성적) - 기타 다른 이유
5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가정문제 개선과 자녀양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 한부모가정(모자가정, 부자가정) - 조손가정 - 저소득가정
6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방과 후 자녀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 학업지도 - 아동 · 청소년보호 - 생활지도
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	- 스포츠 활동 - 문화 활동 - 정보화 활동 - 기타 여가활동
8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	- 정부 - 학교 - 지역사회

표 III-3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일반적 특성	- 소속 및 부서
2	학교부적응 해결 정책	- 친구와의 관계개선영역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학생교사 관계영역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가정문제 해결지원영역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낮은 성적 / 수업문제 해결영역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기타의견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3	여가생활 지원 정책	- 스포츠 활동영역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문화 활동영역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정보화 활동영역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기타의견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4	위기가정 지원 정책	- 자녀교육 지원영역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자녀생활 지원영역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자녀양육자 취업지원영역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자녀양육자 수급지원영역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기타의견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5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	- 네트워크인프라 지원영역의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영역의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한부모가정 문제해결(모자)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한부모가정 문제해결(부자)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조손가정 문제해결영역의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기타의견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6	방과 후 자녀 지도 및 보호정책	- 학습지도지원영역의 9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보호지원영역의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생활지도지원영역의 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기타의견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3) 조사방법 및 절차

델파이 연구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엄격히 코딩하여 2차 설문지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에 적합한 패널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Murry & Hammons, 1995; Rowe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회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2차 연구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에 의해 코딩, 분석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동료검토(peer debriefing)의 방법을 자문회의로 활용하였다. 또한 2회기 도구에서는 범주화한 한 항목에 대해 패널 개인의견을 요청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범주를 검증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포함시켰다. 델파이방법 자체가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른 응답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은 확보된다.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수행한다. 1회기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1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방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1회기 조사는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2회기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분석한 이후 2차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에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3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각 델파이 회기별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1회기(first round)

델파이방법에서 1차 설문의 형식은 기술식(개방형) 또는 구조화된 제한 응답양식의 두 가지 중 하나로 작성될 수 있다. 특히 1차 설문은 탐색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할 경우 참가 전문가들이 발산적 지각(divergent perception)을 고찰한 다음 이것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Webler et al., 1991). 처음 설문지가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있거나 세분되어 있으면 응답자의 반응범위가 줄어 그만큼 문제 해결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태가 더 좋다(Rowe et al., 1999). 즉 1차 설문부터 구조적 질문을 활용하면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개념적 틀을 응답자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Tillman, 1989), 본 연구에서는 기술식(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개발에 도움을 얻고자 자체조사를 통해 가족 및 아동·청소년지원 연구와 관련한 학계(10명), 행정계(10명), 현장전문가(10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최초 2배수에 가까운 패널명단을 확보하여 조사에 대한 개별적인 승낙을 구한 결과였다. 사전 문헌연구와 관계자료 및 자문을 통해 패널에게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세부정책

과제 질문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30표본을 확보하였다.

(2) 제 2회기(second round)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재평가 하도록 요청했다. 1차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조화된 2차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고려할 점은 각 델파이 차수간의 시간적 간격이다(Linstone & Turoff, 1975; Linstone, 1978). 피드백의 상이한 시간적 지체는 델파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 자료의 반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Armstrong, 2002). 그리고 구조화된 2차 설문지는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 항목을 평가한다(이종성, 2006).²⁾ 2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30표본을 확보하였다.

2. 조사결과

1)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중요도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각각 6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30명의 전문가들에게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점수는 5점 척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여 6문항일 경우 1위에는 6배수, 2위에는 5배수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친구와의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4.4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4.40),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교육 강화’(4.27), ‘Wee센터 등 피해청소년 극복 프로그램 운영’(4.23),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4.17), ‘가해 부모관련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4.07), ‘포레 멘토제 등 자체 멘토링 운영’(3.83),

2) 평균(mean), 중앙치(median), 혹은 최빈치(mode)와 같은 중앙경향값과 표준편차 혹은 사분편차 등을 구하여, 전문가 패널간의 합의 수준을 확인한다(Riggs, 1983; Benaire, 1988).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사례관리’(3.77)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교육 강화’(16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141), ‘또래 멘토제 등 자체 멘토링 운영’(140),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사례관리’(133),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130), ‘Wee센터 등 피해청소년 극복 프로그램 운영’(127),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121), ‘가해 부모관련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친구와의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친구와의 관계 개선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1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사례관리	1	2	5	8	6	4	1	3	133	3.77
2	가해 부모관련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0	4	2	5	6	6	4	3	118	4.07
3	Wee센터 등 피해청소년 극복 프로그램 운영	2	3	6	5	1	5	2	6	127	4.23
4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	3	3	4	3	6	3	5	3	130	4.40
5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교육 강화	7	7	3	3	5	2	1	2	168	4.27
6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4	3	6	4	2	4	5	2	141	4.43
7	또래 멘토제 등 자체 멘토링 운영	6	4	4	1	3	2	7	3	140	3.83
8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	6	4	1	1	1	4	5	8	121	4.17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한 인권, 상담 등 교사 전문연수 강화’(4.50)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4.27),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원만관계 유도’(4.10), ‘참여교육, 협동교육 등 교수방법 개발 및 보급’(3.93), ‘학교 내 인성 교육 등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3.87), ‘부적응 학생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제도 도입’(3.77), ‘학교 내 예절교육 강화’(3.37) 순으로 크게 응답하였다.

가중치에서는 ‘부적응 학생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제도 도입’(14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한 인권, 상담 등 교사 전문연수 강화’(144),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원만관계 유도’(137), ‘부적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129), ‘참여교육, 협동교육 등 교수방법 개발 및 보급’(112), ‘학교 내 인성 교육 등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96), ‘학교 내 예절교육 강화’(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1	안전한 인권, 상담 등 교사 전문연수 강화	8	5	7	0	3	7	0	144	4.50
2	부적응 학생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제도 도입	10	3	5	4	3	3	1	145	3.77
3	참여교육, 협동교육 등 교수방법 개발 및 보급	5	0	3	7	7	5	3	112	3.93
4	학교 내 인성 교육 등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	1	2	4	5	5	9	4	96	3.87
5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원만관계 유도	6	6	4	5	4	2	3	137	4.10
6	부적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0	10	5	5	7	0	3	129	4.27
7	학교 내 예절교육 강화	0	4	2	4	1	3	16	75	3.37

가정문제 해결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상담기능 강화’(4.3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응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와 ‘가족상담 치료 지원’(4.33)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4.10),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참여 지원’(4.00), ‘가족의 밤 행사 등 학교-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3.57)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부적응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12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119), ‘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상담기능 강화’(101), ‘가족상담 치료 지원’(100), ‘가족의 밤 행사 등 학교-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99),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참여 지원’(8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 가정문제 해결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가정문제 해결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부적응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9	9	0	5	2	5	123	4.33
2	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상담기능 강화	3	8	1	7	7	4	101	4.37
3	가족의 밤 행사 등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7	4	2	4	4	9	99	3.57
4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	9	3	6	5	4	3	119	4.10
5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참여 지원	0	4	9	4	6	7	87	4.00
6	가족상담 치료 지원	2	2	12	4	8	2	100	4.33

낮은 성적과 수업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서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4.30)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특별과업, 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서비스 제공’(4.27), ‘수준별 학습 실기’(4.17), ‘특기적성 교육 지원’(4.07), ‘대학생 멘토링 및 자원봉사 연계’(3.97), ‘성장 시기에 적합한 지적발달’(3.93),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교육지도 및 지도교사 배치’(3.90) 순이었다.

가중치에서는 ‘성장 시기에 적합한 지적발달 프로그램 운영’(138)이 가장 높았으며 ‘방과 후 교육지도 및 지도교사 배치’(133), ‘대학생 멘토링 및 자원봉사 연계’와 ‘특기적성 교육 지원’(121), ‘특별과업, 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서비스 제공’(118), ‘수준별 학습 실시’(105),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 낮은 성적과 수업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낮은 성적과 수업문제 해결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1	성장 시기에 적합한 지적발달 프로그램 운영	5	10	3	3	0	7	2	138	3.93
2	수준별 학습 실시	2	3	7	6	0	2	10	105	4.17
3	특별과업, 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3	4	7	2	7	2	5	118	4.27
4	방과 후 교육지도 및 지도교사 배치	7	3	5	5	5	1	4	133	3.90
5	대학생 멘토링 및 자원봉사 연계	4	4	4	3	8	6	1	121	3.97
6	특기적성 교육 지원	6	2	3	7	4	4	4	121	4.07
7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	3	4	1	4	6	8	4	104	4.30

2)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중요도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학교체육, 클럽활동 등 학교차원의 지원’(4.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차상위 계층 아동 ·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무료이용 확대’(4.27), ‘바우처를 통한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4.13),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4.07), ‘아동 · 청소년 전용 스포츠 시설 확대’(4.00), ‘지역 내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3.83), ‘특기생 지원’(3.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학교체육, 클럽활동 등 학교차원의 지원’(15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우처를 통한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140),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122), ‘차상위 계층 아동 ·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무료이용 확대’와 ‘아동 · 청소년 전용 스포츠 시설 확대’(118), ‘특기생 지원’(103), ‘지역 내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1	학교체육, 클럽활동 등 학교차원의 지원	11	4	4	7	3	0	1	159	4.60
2	바우처를 통한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6	3	10	1	7	2	1	140	4.13
3	차상위 계층 아동 ·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무료이용 확대	4	6	3	4	3	4	6	118	4.27
4	아동 · 청소년 전용 스포츠 시설 확대	3	7	4	2	5	3	6	118	4.00
5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5	3	6	3	7	2	122	4.07
6	특기생 지원	1	4	4	5	6	4	6	103	3.60
7	지역 내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	1	1	2	5	3	10	8	80	3.83

문화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실시’(4.3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 연계 참여 기회 확대’(4.27),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문화활동 환경 조성’(4.13), ‘1인 1특기 재능 키우기 시스템 도입’(4.03), ‘문화 바우처 확대(5만원에서 10만원)’(3.97),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3.87), ‘문화활동 특기생 지원 마련’(3.83)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문화활동 특기생 지원 마련’(13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문화활동 환경 조성’(135), ‘문화 바우처 확대(5만원에서 10만원)’(131),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124),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 연계 참여 기회 확대’(121),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실시’(104), ‘1인 1특기 재능 키우기 시스템 도입’(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 문화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문화 활동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1	문화 바우처 확대(5만원에서 10만원)	6	5	4	2	6	6	1	131	3.97
2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문화활동 환경 조성	4	4	8	5	6	2	1	135	4.13
3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 연계 참여 기회 확대	3	6	5	2	6	5	3	121	4.27
4	문화활동 특기생 지원 마련	5	7	7	4	1	3	2	139	3.83
5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실시	4	4	2	4	3	4	9	104	4.30
6	1인 1특기 재능 키우기 시스템 도입	0	3	3	3	5	7	9	83	4.03
7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8	0	1	11	3	3	4	124	3.87

정보화 활동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접근정보 콘텐츠 등급화 시행’(4.57)을 가장 중요하게 응답하였고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 강화’(4.23),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4.20),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교육 및 지원’(4.00), ‘UCC대회 등 긍정적 정보활동 지원’(3.63), ‘위기가정 및 방과 후 활동기관에 정보통신윤리교사 파견’(3.50), ‘청소년 시설에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 설치’(3.47), ‘PC지원, 핸드폰 요금 등 기초 정보활동 비용 지원’(3.3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아동·청소년 접근정보 콘텐츠 등급화 시행’(1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171),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 강화’(159), ‘UCC대회 등 긍정적 정보활동 지원’(135),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교육 및 지원’(125), ‘위기가정 및 방과 후 활동기관에 정보통신윤리교사 파견’(111), ‘청소년 시설에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 설치’(101), ‘PC지원, 핸드폰 요금 등 기초 정보활동 비용 지원’(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정보화 활동 지원 대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보화 활동 지원 대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1	위기가정 및 방과 후 활동기관에 정보통신윤리교사 파견	3	3	1	2	4	5	7	5	111	3.50
2	PC지원, 핸드폰 요금 등 기초 정보활동 비용 지원	3	0	2	2	3	4	9	7	95	3.30
3	청소년 시설에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 설치	1	1	3	2	5	9	2	7	101	3.47
4	UCC대회 등 긍정적 정보활동 지원	4	0	4	5	9	3	4	1	135	3.63
5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교육 및 지원	3	2	3	5	5	4	4	4	125	4.00
6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	6	4	7	6	3	3	1	0	171	4.20
7	아동·청소년 접근정보 콘텐츠 등급화 시행	7	9	5	5	1	1	2	0	185	4.57
8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 강화	3	10	5	4	1	2	0	5	159	4.23

3) 위기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중요도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4.5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부진아, 예체능 재능자에 대해 개별지도 지원’(4.47), ‘방과 후 학습 지원’(4.27), ‘학습 도우미 교사 지원’(4.17), ‘교육 멘토링 지원(교육정보 제공)’(4.13),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서비스’(4.0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중치에서는 ‘교육비 지원’(1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멘토링 지원(교육정보 제공)’(104),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서비스’(102), ‘방과 후 학습 지원’(98), ‘학습 도우미 교사 지원’(94), ‘학습부진아, 예체능 재능자에 대해 개별지도 지원’(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교육비 지원	15	2	4	5	1	3	136	4.57
2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서비스	5	4	5	6	4	6	102	4.03
3 학습 도우미 교사 지원	3	3	7	6	4	7	94	4.17
4 방과 후 학습 지원	3	5	5	7	4	6	98	4.27
5 교육 멘토링 지원(교육정보 제공)	2	10	3	1	13	1	104	4.13
6 학습부진아, 예체능 재능자에 대해 개별지도 지원	2	5	6	5	5	7	93	4.47

자녀의 생활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4.63)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아동 양육비 상향조정(월5만원에서 10만원 이상)’(4.60), ‘조손가정 연금(수당) 지원’(4.47), ‘한부모 발생 후 초기 일정기간동안 생활형편에 따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4.40), ‘아동연령별 양육수당 차등화’(4.10),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선지급제도’(3.97), ‘대리양육 뿐만 아니라 직접 양육 시에도 전세금 대출 지원’(3.90), ‘각종 쿠폰, 바우처 지급 혹은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할인 지원’(3.77)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조손가정 연금(수당) 지원’(1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148), ‘아동연령별 양육수당 차등화’(147), ‘각종 쿠폰, 바우처 지급 혹은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할인 지원’(137), ‘아동 양육비 상향조정(월5만원에서 10만원 이상)’(130), ‘한부모 발생 후 초기 일정기간동안 생활형편에 따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127),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선지급제도’(123), ‘대리양육 뿐만 아니라 직접 양육 시에도 전세금 대출 지원’(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자녀의 생활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자녀의 생활관련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1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	10	4	1	2	0	5	1	7	148	4.63
2	조손가정 연금(수당) 지원	7	4	4	6	2	5	1	1	164	4.47
3	아동연령별 양육수당 차등화	6	6	2	2	0	9	3	2	147	4.10
4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선지급 제도	1	5	5	4	1	5	2	7	123	3.97
5	각종 쿠폰, 바우처 지급 혹은 공공 시설이나 프로그램 할인 지원	3	2	8	3	5	3	1	5	137	3.77
6	아동 양육비 상향조정 (월5만원에서 10만원이상)	0	6	7	1	7	1	2	6	130	4.60
7	대리양육 뿐만 아니라 직접 양육 시에도 전세금 대출 지원	1	2	2	5	5	0	15	0	109	3.90
8	한부모 발생 후 초기 일정기간동안 생활형편에 따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	2	1	2	7	10	2	5	1	127	4.40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취업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지원’(4.63)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4.43), ‘자녀 양육 시 시간을 고려한 아르바이트 기회확대’(4.10), ‘창업지원 및 컨설팅’(3.93), ‘아동 주양육자 고용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3.90), ‘사업자금 지원의 현실화’(3.67)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맞춤형 취업지원’(11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 주양육자 고용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111), ‘사업자금 지원의 현실화’(108),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106), ‘창업지원 및 컨설팅’(99), ‘자녀 양육 시 시간을 고려한 아르바이트 기회확대’(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취업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취업관련 지원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맞춤형 취업지원	13	0	5	1	5	6	117	4.63
2	창업지원 및 컨설팅	6	4	2	2	13	3	99	3.93
3	아동 주양육자 고용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6	6	6	3	3	6	111	3.90
4	사업자금 지원의 현실화	3	7	6	6	5	3	108	3.67
5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1	9	5	9	2	4	106	4.43
6	자녀 양육 시 시간을 고려한 아르바이트 기회확대	1	4	6	10	1	8	90	4.10

자녀의 양육자 수급관련 지원정책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4.6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조손가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수당, 의료혜택, 교육비 지원’(4.60), ‘현재 소수빈곤층 지원 제한을 부양자의 질병, 근로능력 등의 상황에 맞게 지원’(4.4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3.93), ‘수급자 선정방식을 재산기준보다 월소득 기준방식으로 변경’(3.63),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자립 시까지 수급지원’(3.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1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손가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수당, 의료혜택, 교육비 지원’(110),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자립 시까지 수급지원’(102)와 ‘현재 소수빈곤층 지원 제한을 부양자의 질병, 근로능력 등의 상황에 맞게 지원’(102)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급자 선정방식을 재산기준보다 월소득 기준방식으로 변경’(9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자녀의 양육자 수급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자녀의 양육자 수급관련 지원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최저생계비 현실화	17	1	0	0	8	4	127	4.63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4	4	4	2	5	11	87	3.93
3	수급자 선정방식을 재산기준보다 월소득 기준방식으로 변경	5	4	5	3	7	6	99	3.63
4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도 자립 시까지 수급지원	3	6	5	6	6	4	102	3.60
5	현재 소수빈곤층 지원 제한을 부양자의 질병, 근로능력 등의 상황에 맞게 지원	1	8	4	9	5	3	102	4.47
6	조손가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 하여 부양수당, 의료혜택, 교육 비 지원	0	6	12	10	0	2	110	4.60

4) 위기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에 대한 중요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지원정책에서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시설 등 통합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과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체계 구축’이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원체계인 Wee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전화 등간의 유기적 연계 조정 지역허브 기관 필요’(4.33), ‘CYS-Net내에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전담요원 배치’(3.87), ‘중앙 - 광역 - 시군구 기관의 역할 정비’(3.83), ‘한부모(조손가정포함) 가정지원센터 설치’(3.4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한부모(조손가정포함) 가정지원센터 설치’(116)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체계 구축’(112),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시설 등 통합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107), ‘정부지원체계인 Wee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전화 등간의 유기적 연계 조정 지역허브기관 필요’(104), ‘CYS-Net내에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전담요원 배치’(97), ‘중앙 - 광역 - 시군구 기관의 역할 정비’(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지원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CYS-Net내에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전담요원 배치	1	3	11	5	7	3	97	3.87
2	중앙 - 광역 - 시·군·구 기관의 역할 정비	4	2	6	7	3	8	93	3.83
3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시설 등 통합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5	3	7	9	1	5	107	4.50
4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체계 구축	5	10	2	5	1	7	112	4.50
5	한부모(조손가정포함) 가정지원센터 설치	7	7	3	4	6	3	116	3.40
6	정부지원체계인 Wee센터, 드림 스타트, 청소년상담전화 등간의 유기적 연계 조정 지역허브기관 필요	7	5	2	0	13	3	104	4.33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관련 정책에서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강화’(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담 및 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4.37),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4.17),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확충’(4.10), ‘반편견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10), ‘대학생 이웃사촌 브릿지 등 멘토링 확대 보급’(3.77), ‘대리부모 연계사업’(3.63),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자체별 1개소 설치’(3.53)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상담 및 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17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자체별 1개소 설치’(142), ‘대학생, 이웃사촌 브릿지 등 멘토링 확대 보급’(141), ‘반편견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34),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강화’(131),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확충’(127),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122), ‘대리부모 연계사업’(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관련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1	상담 및 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	9	3	0	13	2	2	1	0	174	4.37
2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자체별 1개소 설치	7	2	1	4	7	4	1	4	142	3.53
3	대학생, 이웃사촌 브릿지 등 멘토링 확대 보급	6	3	2	6	4	2	1	6	141	3.77
4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강화	2	4	7	3	2	3	4	5	131	4.60
5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3	0	6	3	3	8	4	3	122	4.17
6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0	3	7	2	9	3	3	3	127	4.10
7	대리부모 연계사업	2	5	5	0	1	4	7	6	117	3.63
8	반편견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10	2	0	4	3	9	1	134	4.10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 정책에서 ‘자녀 돌봄 지원’(4.7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4.57),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4.47),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4.40),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4.33),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4.23),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4.13),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4.00),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3.90),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3.8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따른 우선순위로 분류했다. 먼저 모자가정의 가중치에서는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26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235), ‘자녀 돌봄 지원’(197),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187),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152),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142),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135),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130),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129),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79)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의 가중치에서는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2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221), ‘자녀 돌봄 지원’(209),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155),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153),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153),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151),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148),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147),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모자가정, 부자가정)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	모	17	5	3	1	1	1	0	0	2	0	261	4.47
		부	4	3	16	1	1	1	0	1	3	0	222	
2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	모	4	11	9	1	1	0	1	1	2	0	235	4.57
		부	7	3	9	3	1	2	1	3	1	0	221	
3	자녀 돌봄 지원	모	2	5	10	1	3	2	0	4	2	1	197	4.70
		부	5	8	2	3	4	1	2	4	0	1	209	
4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지원	모	4	2	3	8	4	2	0	3	2	2	187	4.33
		부	1	5	1	4	2	3	2	6	3	3	153	
5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 문제 자조모임 강화	모	0	5	2	4	2	2	0	6	4	5	142	4.23
		부	3	2	1	5	2	4	3	3	4	3	155	
6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모	1	0	1	8	3	6	2	6	1	2	152	4.00
		부	2	2	0	6	3	5	1	4	1	6	147	
7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	모	1	0	1	3	2	8	4	5	2	4	130	3.80
		부	3	0	0	6	4	4	3	6	1	3	151	
8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모	0	1	1	3	6	2	7	2	3	5	129	4.40
		부	1	4	1	2	7	2	5	1	3	4	153	
9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	모	0	1	0	1	7	5	9	3	3	1	135	4.13
		부	2	2	0	2	5	5	6	2	5	1	148	
10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모	0	0	0	1	1	2	7	0	9	10	79	3.90
		부	1	1	0	1	1	2	8	0	8	8	98	

조손가정 문제 해결 정책에서 ‘조손가정 수당 등 경제적 지원’(4.7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손자녀 양육지원서비스’(4.63),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4.40),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4.37), ‘가사도움 지원’(4.33), ‘심리상담, 손자녀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4.10),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97), ‘대리부모 결연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조손가정 수당 등 경제적 지원’(1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도움 지원’(181), ‘손자녀 양육지원서비스’(139),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136), ‘대리부모 결연지원’(122), ‘심리상담, 손자녀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106),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1),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80)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조손가정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조손가정 문제 해결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1	조손가정 수당 등 경제적 지원	17	1	5	1	1	1	3	0	191	4.70
2	가사도움 지원	5	6	12	3	3	0	0	0	181	4.33
3	손자녀 양육지원서비스	2	5	4	9	2	0	4	3	139	4.63
4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	2	6	5	4	3	1	5	3	136	4.40
5	심리상담, 손자녀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1	4	1	4	3	3	10	3	106	4.10
6	대리부모 결연지원	1	5	1	5	9	0	4	4	122	3.50
7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0	0	1	3	7	6	1	11	80	4.37
8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2	0	1	1	17	2	5	91	3.97

5)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자녀지도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학업지도 지원 정책에서 ‘방과 후 학습지원’(4.4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4.27), ‘대학생, 재능기부자 등 1:1 멘토링 지원’(4.20), ‘특기교육 지원’(4.13), ‘문화체험교육활동 지원’(4.00),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사연수’(3.87), ‘학원연계 등 사교육 서비스 지원’(3.80), ‘비전 및 진로 교육 등 정기적인 특강 실시’(3.7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학원연계 등 사교육 서비스 지원’(1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 재능기부자 등 1:1 멘토링 지원’(161), ‘문화체험교육활동 지원’(156), ‘방과 후 학습지원’(155), ‘특기교육 지원’(147),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140), ‘매체활용 교육지원’(128),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사연수’(121), ‘비전 및 진로 교육 등 정기적인 특강 실시’(1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학업지도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학업지도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	학원연계 등 사교육 서비스 지원	3	7	10	1	2	0	5	0	1	185	3.80
2	대학생, 재능기부자 등 1:1 멘토링 지원	4	3	6	2	5	0	6	1	2	161	4.20
3	방과 후 학습지원	6	1	3	6	4	0	2	3	4	155	4.40
4	특기교육 지원	1	6	4	4	0	3	5	5	1	147	4.13
5	문화체험교육활동 지원	2	1	3	9	6	4	2	1	1	156	4.00
6	매체활용 교육지원	1	4	0	3	6	2	7	4	2	128	3.47
7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4	4	1	1	4	6	0	6	3	140	4.27
8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사연수	4	2	1	2	1	6	1	6	6	121	3.87
9	비전 및 진로 교육 등 정기적인 특강 실시	4	1	1	0	3	7	1	3	9	112	3.70

보호 지원 정책에서 ‘지역아동센터, CYS-Net 등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4.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지도 및 보호’(4.53),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4.37), '방과 후 활동의 야간 및 주말보호 지원확대'(4.33),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4.07), '가정 내 보호를 위한 아동지도사 파견제 실시'(3.90), '지역 내 상담원과 1:1 결연 등 멘토링 서비스'(3.67)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지도 및 보호'(143)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지역아동센터, CYS-Net 등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138),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129), '방과 후 활동의 야간 및 주말보호 지원확대'(125), '지역 내 상담원과 1:1 결연 등 멘토링 서비스'(114),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105), '가정 내 보호를 위한 아동지도사 파견제 실시'(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보호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1	지역아동센터, CYS-Net 등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7	7	3	4	1	5	3	138	4.57
2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지도 및 보호	4	8	8	3	3	3	0	143	4.53
3	방과 후 활동의 야간 및 주말보호 지원확대	7	3	5	3	2	5	5	125	4.33
4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5	4	7	4	2	5	3	129	4.07
5	지역 내 상담원과 1:1 결연 등 멘토링 서비스	3	3	4	8	5	1	6	114	3.67
6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3	2	1	3	15	4	2	105	4.37
7	가정 내 보호를 위한 아동지도사 파견제 실시	0	3	2	5	3	6	11	80	3.90

생활지도 지원 정책에서 '가정 내 생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4.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교육, 정서조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4.30), '방과 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육 강

화’(4.27), ‘동반자, 상담자 등 멘토링 서비스 강화’(4.17), ‘가정 방문 등 학교차원의 개입 서비스’(3.97), ‘정기적인 생활지도 도우미 방문지도’(3.63),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파라치제도 도입’(3.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정기적인 생활지도 도우미 방문지도’(138)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가정 방문 등 학교차원의 개입 서비스’(131), ‘방과 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육 강화’(130), ‘생활교육, 정서조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127), ‘동반자, 상담자 등 멘토링 서비스 강화’(122), ‘가정 내 생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122),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파라치제도 도입’(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생활지도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생활지도 지원 정책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1	가정 방문 등 학교차원의 개입 서비스	3	9	5	1	3	9	0	131	3.97
2	방과 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육 강화	5	3	7	4	6	3	2	130	4.27
3	생활교육, 정서조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5	2	7	4	6	5	1	127	4.30
4	정기적인 생활지도 도우미 방문 지도	4	8	5	4	4	4	1	138	3.63
5	동반자, 상담자 등 멘토링 서비스 강화	3	6	1	9	4	5	2	122	4.17
6	가정 내 생활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강화	6	1	5	5	6	4	3	122	4.40
7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파라치 제도 도입	4	1	1	2	1	0	21	71	3.00

제 4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 4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해 전국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총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경변수는 성별, 학교급, 학교소재지, 가족유형, 경제적수준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실태조사영역은 크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 기본배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가정생활은 가족경제와 가족관계로 나누어진다. 가족경제에서 용돈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군이 서울과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경험은 지역적으로는 시·군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경제적수준이 하층일수록 많이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시기는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기보다는 거의 매일하거나 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위기가정이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일정부분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남자는 편의점이나 주유소가 가장 높고, 여자는 패스트푸드점 및 PC방 종업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외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상층(23.6%)과 중층(16.2%)은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층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중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보다, 서울이 광역시보다, 상층이 중층보다 부모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는 조손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 시·군이 광역시보다 하층이 중층보다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모두

자신의 집이 화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도 한부모가정이 34.9%, 조손가정이 35.1%로 나타났다. 가출시도 경험은 한부모가정(40.8%)과 조손가정(40.5%)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군이 60.8%, 하층이 59.6%로 나타나 한부모·조손가정 중에서도 시·군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가출예방 교육 및 가출청소년 긴급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가족 간 음주 목적은 시·군과 하층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말다툼 목적 및 폭력사용은 조손가정, 시·군, 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수준이 하층일수록 가족 간 말다툼 목적 횟수와 폭력행위 경험 횟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손가정의 경우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대화부족 현상이 나타나 자녀가 방임되고 이는 가출로 이어져 가출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어서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대부, 대모제 등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고 대리 양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생활영역은 인간관계, 학교문제, 학교활동 부분으로 구분된다. 인간관계에 있어 경제적수준이 낮아질수록 친구 간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구들의 고민상담은 성별로는 여자가 지역별로는 시·군이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층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상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담임선생님이 본인에게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의 두 배였으며 본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남자가 더 낮았다.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로는 여자(70%)가,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67.2%)이,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층(74.1%)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문제에서 학업중단 욕구는 여자(30%)보다 남자(41.2%)가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18.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단결석 욕구는 시·군(46.7%)과 하층(46.9%)이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사용에서 응답자가 가해한 경우를 보면 기타가정(19.1%), 한부모가정(17.6%), 조손가정(16.2%)순으로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 광역시에 비해 시·군과 서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 피해경험은 한부모가정(13.1%)이 조손가정(10.8%)보다 남자(16.6%)가 여자(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욕설사용에서 가해의 경우 기타가정(49.4%), 한부모가정(45.2%), 조손가정(40.5%)순으로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52.6%)와 하층(54.6%)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친구들과의 욕설사용에서 피해의 경우는 성별로는 남자가(34.7%), 지역별로는 시·군이(33.9%), 경제적수준은 하층(35.7%)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에

서 가해의 경우 한부모가정(15.6%)보다 조손가정(16.3%)이 여자(13.4%)보다 남자(18.3%)가 경제적 수준이 중층과 하층이 따돌림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한부모가정(8.9%)이 조손가정(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가해경험이 높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 교사의 폭력사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수준에서 중층(23.1%), 상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 교사의 욕설사용은 시·군(1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교사에 대한 욕설을 하는 정도는 시·군이 서울과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이 낮아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대해서는 시·군(11.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에 대한 공개적 반항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 시·군이 월등히 높았고,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반항정도가 높았다.

학교활동에서는 시·군, 상층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한 도움정도는 서울과 광역시가 비슷하고 시·군은 확연히 낮게 나타났고, 상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활동 만족도는 광역시와 상층이 높게 나타났고,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 서울, 상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생활은 지역사회활동과 지역사회관계로 나뉜다. 지역사회활동에서 지역사회 도움 정도와 지역사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만족도는 상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관계 중 동네친구들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남자는 PC방, 여자는 집주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광역시와 서울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군은 비교적 낮으며 상층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제행동 중 약물비행, 생활비행은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타났고, 시·군단위로 갈수록,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성비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약물비행에서 서울이 음주경험이 가장 높았고, 흡연경험은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높았으며, 남자와 시·군, 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행에서는 절도, 폭력, 갈취 및 성인물 접촉에 대해 시·군에서 비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력사용경험은 남자, 시·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물건갈취경험은 시·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수준이 하층이며 남자가 욕설을 많이 사용하며, 가출경험은 시·군, 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인물 접촉경험은 남자, 시·군, 하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해업소 출입은 시·군에서 가장 높고, 조손가정(21.6%)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한부모가정보다 더 방치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고민 상담, 생활지도를 해줄 수 있는 생활지도 도우미 파견 및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가생활은 하루일과, 여가생활, 정보화생활로 구분하였다. 수업 외 하루일과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시·군이 가장 높았다. 또한 운동 및 외부 활동 역시 시·군이 가장 많은 시간은 사용했다. 가족유형별로 수면과 학원방문시간은 조손가정이 더 높았으며 TV시청시간은 한부모가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수준별로는 중층이 인터넷사용과 학원방문시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의 인터넷 중독률이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매체활용으로 여가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더욱 매체 의존율을 증가시켜 게임중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아카데미 등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여가생활 중 공공시설 이용정도는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여가활용 방법에서는 남자는 친구(33.9%), 컴퓨터(32.9%)가 차이가 없지만 여자는 친구(39.3%)가 가장 높고, 가족과 컴퓨터(19.5%)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친구와 컴퓨터 순으로 가장 많이 여가를 보내나 가족과 보내는 경우는 시·군이 가장 낮고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생활에서 일주일 기준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횟수는 성별에서는 남자가, 지역별로는 시·군이, 경제적수준별로는 하층이 가장 높은 사용수준을 나타냈다. 휴대전화는 조손가정(73%)이 한부모가정(67.4%)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으로 갈수록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핸드폰(42.6%)이며, 다음으로 안전장치(19.4%), 컴퓨터·인터넷(12.4%) 등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휴대폰 과다 사용은 한부모가 경제사회적 활동을 할 경우 자녀의 보호·양육·교육할 사람이 부재하다는 한부모가구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휴대폰의 주 사용용도는 통화와 문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남자는 게임용(10.2%), 여자는 음악다운이나 듣기(3.7%)로 나타났다.

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 및 행정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 체계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이 지향하는 관점 및 비전을 분명히 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수립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정책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IV-1〉 참조).

표 IV-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따른 세부 정책추진과제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학교부적응지원	친구와의 관계개선	·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교육강화 ·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 또래 멘토제 등 자체 멘토링 운영 ·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사례관리 ·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 · Wee센터 등 피해청소년 극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 · 가해 부모관련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생교사 관계	· 부적응 학생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제도 도입 · 인권, 상담 등 교사 전문연수 강화 ·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원만관계 유도 · 부적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참여교육, 협동교육 등 교수방법 개발 및 보급 · 학교 내 인성 교육 등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 · 학교 내 예절교육 강화
	가정문제 해결지원	· 부적응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 · 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상담기능 강화 · 가족상담 치료 지원 · 가족의 밤 행사 등 학교-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참여 지원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낮은성적/ 수업문제 해결	· 성장 시기에 적합한 지적발달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교육지도 및 지도교사 배치 · 대학생 멘토링 및 자원봉사 연계 · 특별과업, 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 수준별 학습 실시 ·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
여가생활지원	스포츠 활동	· 학교체육, 클럽활동 등 학교차원의 지원 · 바우처를 통한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무료이용 확대 · 아동·청소년 전용 스포츠 시설 확대 · 특기생 지원 · 지역 내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
	문화활동	· 문화활동 특기생 지원 마련 ·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문화활동 환경 조성 · 문화 바우처 확대(5만원에서 10만원) ·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 연계 참여 기회 확대 ·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실시 · 1인 1특기 재능 키우기 시스템 도입
	정보화 활동	· 아동·청소년 접근정보 콘텐츠 등급화 시행 ·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 ·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 강화 · UCC대회 등 긍정적 정보활동 지원 ·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교육 및 지원 · 위기가정 및 방과 후 활동기관에 정보통신윤리교사 파견 · 청소년 시설에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 설치 · PC지원, 핸드폰 요금 등 기초 정보활동 비용 지원
위기가정 지원	자녀교육 지원	· 교육비 지원 · 교육 멘토링 지원(교육정보 제공) ·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서비스 · 방과 후 학습 지원 · 학습 도우미 교사 지원 · 학습부진아, 예체능 재능자에 대해 개별지도 지원
	자녀생활지원	· 조손가정 연금(수당) 지원 ·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 · 아동연령별 양육수당 차등화 · 각종 쿠폰, 바우처 지급 혹은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할인 지원 · 아동 양육비 상향조정(월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 한부모 발생 후 초기 일정기간동안 생활형편에 따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 ·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선지급제도 · 대리양육 뿐 만 아니라 직접 양육 시에도 전세금 대출 지원
	자녀양육자 취업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 아동 주양육자 고용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사업자금 지원의 현실화 ·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 창업지원 및 컨설팅 · 자녀 양육 시 시간을 고려한 아르바이트 기회확대
	자녀양육자 수급지원	· 최저생계비 현실화 ·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자립 시까지 수급지원 · 현재 소수빈곤층 지원 제한을 부양자의 질병, 근로능력 등의 상황에 맞게 지원 · 조손가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수당, 의료혜택, 교육비 지원 · 수급자 선정방식을 재산기준보다 월소득 기준방식으로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 지원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	· 한부모(조손가정포함) 가정지원센터 설치 ·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체계 구축 ·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시설 등 통합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 정부지원체계인 Wee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전화 등간의 유기적 연계 조정 지역허브기관 필요 · CYS-Net내에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전담요원 배치 · 중앙 - 광역 - 시군구 기관의 역할 정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자체별 1개소 설치 · 대학생, 이웃사촌 브릿지 등 멘토링 확대 보급 · 반편견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강화 ·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 대리부모 연계사업
	한부모가정 문제해결 (모자)	·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 ·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 · 자녀 돌봄 지원 ·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 ·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 ·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한부모가정 문제해결 (부자)	·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 ·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 · 자녀 돌봄 지원 ·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 ·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 ·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 ·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조손가정 문제해결	· 조손가정 수당 등 경제적 지원 · 가사도움 지원 · 손자녀 양육지원서비스 ·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 · 대리부모 결연지원 · 심리상담, 손자녀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방과 후 자녀 지도 및 보호지원	학습지도지원	· 학원연계 등 사교육 서비스 지원 · 대학생, 재능기부자 등 1:1 멘토링 지원 · 문화체험교육활동 지원 · 방과 후 학습지원 · 특기교육 지원 ·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 매체활용 교육지원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사연수 · 비전 및 진로 교육 등 정기적인 특강 실시
	보호지원	·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지도 및 보호 · 지역아동센터, CYS-Net 등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 방과 후 활동의 야간 및 주말보호 지원확대 · 지역 내 상담원과 1:1 결연 등 멘토링 서비스 ·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 가정 내 보호를 위한 아동지도사 파견제 실시
	생활지도지원	· 정기적인 생활지도 도우미 방문지도 · 가정 방문 등 학교차원의 개입 서비스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 방과 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육 강화 · 생활교육, 정서조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동반자, 상담자 등 멘토링 서비스 강화 · 가정 내 생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파라치제도 도입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생활실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교단위의 양친부모 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일부 포함)의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와 대책 연구: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와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그리고 교수, 현장,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국내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지원 방안은 5개 영역으로 학교생활 지원 정책, 가정생활 지원 정책,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 정책,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보호 지원 정책, 여가생활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1) 학교생활 지원 정책

(1) 친구와의 관계 개선 정책

가. 학교폭력 관련 예방시스템 개선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역량을 키우고 사회화시키는 장소로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형태가 현재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여 집단 따돌림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언어폭력이 아동·청소년의 생활 속 문화처럼 익숙해지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학교안전하게보내기, 학교폭력추방운동, 소년경찰,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폭력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지속적 사례관리 실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최대 징계는 1회 최대 10일씩 모두 3회의 출석정지 정도이다. 최근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왕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가하여 ‘왕따 폭력 방지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내용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부모 동의없이 전학시킬 수 있는 ‘강제전학제’, 문제학생의 부모를 강제소환하고 불응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 및 부모동의가 필요없는 ‘학생부 폭력 기록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안이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법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처벌의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사후처벌의 강화는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처벌자체가 가해학생의 의식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고, 이는 그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본격적인 왕따나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의 훈계와 처벌 및 의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의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변모될 필요가 있다. 일단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물리적 폭력 등 가해·피해경험, 친구들과의 욕설사용 가해경험은 한부모가정 자녀가 조손가정 자녀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조손가정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연계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또래 멘토 및 교내 리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폭력의 예비 단계로 볼 수 있는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아동·청소년과 교내 리더 역할을 하는 동료나 선배를 1:1로 연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엇보다 멘토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생활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스쿨폴리스나 인성관련 교사 및 상담교사 그리고 부모와 유기적인 연결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왕따나 폭력이 인터넷 게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게임업체가 해당 학생의 게임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스쿨폴리스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억제 기반을 확대한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전국에 확대하고 각 학교당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여 학교 자체의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 부처별로 산재된 학교 폭력 신고·상담전화를 ‘117’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일단 바람직하나 무엇보다 폭력피해학생들의 신고의지를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117’뿐만 아니라 학교교사나 상담교사 등 주변의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줌과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폭력신고·상담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전 부모들에 대한 의무적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왕따·폭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내지 언어폭력, 돈 갈취, 게임머니 갈취, 명품 옷이나 상품갈취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교사나 부모는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 게임현황, 일상용품 구입 현황 등 생활의 특정 영역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몸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을 경우라도 학교와 연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규범 및 품성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왕따·폭력의 가해자가 될 경우에 타인은 물론 그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교와 부모 그리고 학생들 간의 정기적 만남의 자리가 필요하다. 대화단절이 무엇보다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부모가 정이나 조손가정, 양친부모가정 중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등 개인적으로 방치될 수 있는 학생들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폭력가해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의 문제나 사랑과 인정 및 배려의 부족으로 인한 건전한 자존감의 결여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왜곡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학교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함양을 위한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및 학교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관련 인성교육 내용을 국어, 도덕, 사회 등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유아단계에서부터 학교급별에 맞는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체능 교육 활성화, 동아리 활동 및 자치활동활성화가 필요하다. 성품훈련 캠프, 리더쉽 캠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그리고 학교별 동아리대회가 긍정적으로 사려되며 봉사활동의 경우도 좋으나 진학을 위한 의무봉사가 아닌 의미 있는 봉사가 되도록 학생들의 토론문화 역시 개선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법적 처벌은 행동에 대한 처벌이므로 학생의 의식이나 언어습관은 교정하기 어렵다.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인성교육학과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현재 윤리교육학과는 대학입학을 위한 지식전달기구로 변질되어 있다. 무엇보다 인성교육학과를 졸업한 교사는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로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학시험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교사채용의 경우도 실질적인 수준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물론 인성교사는 상담교사와는 별도로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될 때, 전국 학교의 신입생에 대해 다면적 인성검사(MMPI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사회성, 공격성 나아가 우울성 여부를 판단(집중관리대상/관리대상/정상)하여 분류 체계화한 후 개별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

다섯째, 스쿨 서포터즈(School Supporters)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퇴직경찰관의 경험을 살려 범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의 안전과 비행방지, 범죄피해방지 등의 활동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 학교내외의 순찰 및 지원, 지역사회의 CYS-net과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강한 결속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대부분 학생 간의 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도 학교폭력의 일차적인 문제해결기구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핵심기구로 보고 있으므로 이 기구와 학교 밖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강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지역사회 내 CYS-net에 의뢰되어야 하고, CYS-net은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과 인력들을 학교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안전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으로 스쿨 서포터즈로서 학교방문을 실시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과 접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지 수상한 자의 목격정보 및 범죄발생상황 외에 교통상의 위험요소와 아동에 대한 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한다.

여섯째,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CYS-net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담당부서는 CYS-net 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상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에 관한 지침과 조례를 신설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지도나 법 내용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이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면 학교폭력도 예방의 효과가 클 것이고 사후의 조치에 대한 인지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Wee프로젝트의 확대 실시 및 전문인력 배치 강화

현재 교과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Wee프로젝트는 ‘학생안전 통합시스템’인 Wee센터와 Wee클래스 단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1차 개입단계인 학교단위의 Wee클래스의 운영은 아직까지 전국화 되어있지 못하다. 또한 운영인력 배치도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일반교사를 지정하여 대체 배치함으로써 학교 단위의 폭력조기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Wee클래스의 운영은 그러나 신중을 요구하는데 학교 내에서의 계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단계인 Wee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사례관리나 조치 등의 역량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인 Wee센터와의 연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오래된 상담기관인 CYS-Net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담기법, 치료기법, 평가연구, 사례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 및 예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Wee프로젝트 및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관련 조직과 인사들의 Wee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선학교나 교사, 교육청 직원 등의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외부와의 필요한 연계나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관과 직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Wee프로젝트의 차별적 특성이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직현상이 높게 발생한다.

Wee프로젝트 연구지원단의 필요성이다. Wee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의 학생능력강화팀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지원팀이 필요하다.

(2) 학생-교사 관계 개선 정책

가. 부적응 학생 담당교사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제도 도입

학교에서 학생지도는 교사의 책임이지만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일반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높은 강도의 노력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직무활동이다. 따라서 현재 교원평가 기준에 부적응 학생 지도 실적을 포함하거나 수석교사 제도와 연계하여 수석교사 선발시 평가지표(기준)에 학생생활지도 역량에 대한 평가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 각종 혜택을 통한 가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학교 내 Wee클래스를 둔다면, 그 반의 교육을 별도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전문담임교사를 양성·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기 초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매 학기 초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사가 학급 구성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택해 1박 2일 이상 학교 밖에서 함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다. 수업 방법과 내용의 사교육과의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현 교실의 학업 실태를 보면 대부분 사교육 영역에서 각 교과목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체험 및 실험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교육과 차별화된 교육공학적인 다양한 교과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권·상담 등 교사전문연수 실시

교과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연수 항목에 교과과정에 대한 연수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과의 관계에 필요한 태도 및 소통기술, 상담의 기술 등에 대해 교사의 승진가산점이 인정되는 전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해하고 학교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3) 학교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 지원 정책

가. 부적응 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부적응 학생의 문제 원인은 단순히 문제 학생 개별적인 특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특히 부모가 학생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적응 학생 문제해결에 있어서 교사나 상담전문가의 노력이외에도 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적응 학생들의 가정과 기관을 연계하여 부모교육, 부부상담,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의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며 가족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부모교육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부모교육은 모든 부모들이 참여하여 개인의 행복,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대화법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녀를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일반교육과 한부모나 조손부모 또는 별거부모나 이혼부모처럼 특수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개별세미나가 필요하다. 이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별거 또는 이혼에 대한 예방 세미나, 만약 별거 또는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바람직한 절차나 과정을 밟기 위한 세미나, 그리고 별거나 이혼 후 양육세미나 등이 될 것이다. 특히 한부모에 대한 독립적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자녀교육 세미나도 생산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나. 학교-지역사회 기관 연계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

부적응 학생의 발생 원인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사-학생관계, 친구관계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경우는 일반가정보다 부적응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경우 부모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부모 쪽에서 먼저 문제를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CYS-Net, 그리고 학교단위의 Wee클래스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등을 통하여 해당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부모에게도 집중 상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가 별거나 이혼을 겪은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내적 불안정이나 갈등문제를 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적응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또한 필요하다. 캐나다의 Just for Teens처럼 매주 1시간 ~1시간 30분 정도씩 4주~6주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아동의 가정 및 학교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낮은 성적 및 수업문제 해결 정책

가.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tutor) 프로그램 실시

현재 방과 후 학업지원으로 대표적인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업지원정책은 개별적 수준이나 특성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도 높지 않았다. 현재 학습 관련하여 가장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는 학원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원을 양성화하여 방과 후 학업지원을 학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학생 개개인이 학습내용에 따라 필요한 학원을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지원이 되고, 학원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사교육을 건전한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 위탁교육을 맡는 학원은 공개입찰의 방식을 통해 교수능력, 학업지원시설 그리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면 될 것이다.

특히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특별지원청소년들은 저소득자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등을 지칭하는

데 이들 중 특별히 학업수준이 아주 낮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따로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일부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의 휴먼네트워크(네트워크)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학업지도 및 학습태도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과 후 사업의 중복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적 지원 체제 구축

현재 방과 후 학업지원으로 대표적인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학업지원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원 대상 연령 및 지원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방과 후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낮은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언어, 외국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등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예체능 과목과 관련하여 주로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청소년정책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육성 이념의 구현에도 합당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들을 받아서 연령 차이가 나는 아동과 함께 센터에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중학생은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에 보내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과 후 아카데미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

지금까지 교과부에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성적부진아반 운영을 통하여 낮은 성적이나 수업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담당학생 수와 교사들의 부가업무 증가로 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전담교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교사 배치, 방과 후 학교나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일대일이나 소규모 학습지도가 가능하다.

2) 가정생활 지원 정책

(1) 자녀의 생활관련 지원정책

가. 교육비의 획기적인 지원

현재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빈곤, 한부모가정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에게 학기당 230만원 장학금 지급,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는 110만원까지 ‘사랑드림’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의 장학금은 임의제공 형태로 이루어져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정하고 비장기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해 감면혜택의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현재 감면되고 있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 보충수업비 또는 방과 후 활동비, 교복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정규학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이용할 때에는 비용지급을 실시한다.

둘째,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 현재까지의 임의제공 형태를 공적화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학생 장학금의 문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값등록금’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일차적으로 무분별한 대학입학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고교 학생들과 기업의 연결, 그리고 대학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입학생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각 대학과 학생대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모여 ‘반값’이 아닌 ‘적절한’ 등록금을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후 개별학생들의 성적중심보다는 경제력중심으로 장학금을 산정, 확대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욕구는 장학금과 관계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능력보다는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합리적 장학제도가 요구된다.

나. 저소득 위기가정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공적 부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이다. 현재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여 복지급여를 먼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정의 경우 가정위탁모와 위탁가정에 대한 수당지급 및 전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현실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동양육비를 상향 조정하되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최소 현실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에 맞게 18세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이 방치되는 문제, 안전의 문제를 고려하여 통신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지적 급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교육서비스, 부양서비스, 가사서비스, 가족관계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재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대리양육의 형태로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을 하고 있어 조부모와 아동을 모두 함께 조손가구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갑자기 한부모가정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 매월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혼 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간접강제제도(여권 정지 및 발급거부, 면허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및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여 조기에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자녀양육자 취업관련 지원정책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정책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이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고용지원 강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정책을 실시해야한다.

첫째, 위기가정의 경우 무조건적 취업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실정에 맞게 아동보육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영국의 경우 NDLP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부담이 가는 고용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나 조손가정에서 취업할 경우 취업수당 지급 및 취업 사업주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여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나, 무보증의 경우에는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5천만원으로 창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 자녀양육자 수급관련 지원정책

현재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재산 기준(3,800만원)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의 경우 가치상승 문제와 현실적 소득이 없을 경우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양자에 대해 한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법적 부양자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방식의 전환과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한다.

첫째, 수급자 선정방식을 포괄급여 방식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개별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실제수준에 맞게 하향조정을 하고, 자동차 등 재산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효성이 낮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범위를 좀 더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급의 사각을 줄이도록 한다.

셋째,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립하지 못했을 때에는 일정기간 수급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마. 자녀양육 가족서비스 지원정책

가)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한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현재 지역아동센터 수급자를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도 본인이 원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수를 아이들의 동선에 맞추어 읍·면·동 단위의 수준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역의 아동인원수에 맞추어 2만여 개로 대폭 증설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자녀돌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현재 어린이집은 3만 5천개소가 넘음).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자녀 돌봄의 기능을 넘어 부모의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복지지원, 양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모자가정을 위한 기존정책은 경제적 자립 지원과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특히 야간·주말에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가정은 부모가 늦은 시간, 주말까지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기존 정책만으로는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직장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나)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도화

미국의 경우 홈메이커서비스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 가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가사지원이나 간병지원 등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단위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자가정의 경우는 식생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아이양육과 음식 만들기 등 아이양육에 필요한 지원이나 가사생활 도우미 파견 등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사항 지도 및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조손가정은 손자녀 양육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발달단계별 상담서비스 실시

한부모가정은 발달단계별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1단계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높고 사회적응능력이 매우 낮은 시기로서 한부모가 된지 3년 이내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심리상담과 사회적응상담, 경제적 보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부모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2단계는 3년~5년까지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요구되며, 3단계는 6년 이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정상가정으로 자립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1단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긴급서비스 측면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자녀양육과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3단계는 자녀교육활동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기관이나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같은 형태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group counseling)(예 : 부자가정, 모자가정)이나 자조집단(self-help group), 지지집단(support group), 성장집단(growth group) 등을 구성하여 운영 및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유사한 가정에서 비슷하게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지역사회안전망 지원 정책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책

가. 한부모(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개편

한부모가정 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8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상담소를 설치하여, 한부모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을 위한 지원, 자녀양육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의 제공 등과 같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치료 및 집단프로그램, 한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사회 참여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공이 개별적·산발적·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별도의 한부모(조손)가정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거나, 현재 지역사회의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소규모로 한부모(조손)가정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개편하여, 향후 전국의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나. CYS-Net의 범위를 시·군·구 단위 보다 더 작은 기초단위별로 네트워크 확장

2006년 CYS-Net이 출범된 후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운영방식은 더욱 간소화되고 서비스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실행위원회가 총리훈령에 의거하여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교육청, 지역노동청, 법원, 보호관찰소 등은 시·군·구에 서로 중첩되어 있음을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원회는 광역단위에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는 운영협의회와 1388지원

단만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CYS-Net은 그 역량의 범위를 볼 때 위기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즉시개입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는 CYS-Net 시스템구성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하지 않을 경우 문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단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구수와 지역 내 이동거리 등이 고려된 배치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일시보호 및 위기 지원 체계 문제 개선

가) 가출청소년 보호기관 24시간 이내 지원내용 변경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 따르면 긴급지원 기준에 따라 24시간이상에 대해 특별한 사유로 국한하여 이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 쉼터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들과 기본적인 관계형성에서 3-4회 상담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48시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 후 일시보호소, 단기쉼터와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운영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사실상 가출을 하는 위기청소년의 입소시간이 대부분 오후 2시 이후 저녁에 이루어지며, 40%이상이 저녁 9시 이후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입소한다.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소도시의 경우 청소년이 필요한 시간에 도달할 수 없거나 너무 늦어 청소년과 연락이 끊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에도 반드시 일시보호시설이 운영되어야하며, 그 운영은 지역 CYS-net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상담과 보호서비스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아웃리치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현장에서 적절한 위기 예방과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전담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위기청소년을 연계하는 역할 수행 등 시·군·구 단위에 2명 정도의 배치가 필요하다.

(2) 지역사회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

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제도화

현재 여성가족부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반자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지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대해 지역의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들의 운영과 지정은 건강가정지원 센터나 드림스타트와 같은 지역의 일정한 기관에서 장기 국가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지원 부모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한국사회도 점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제도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저소득 자녀에게만 일부 무료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확대하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맞벌이 부부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가족단위로 지역사회에서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공공기관, 기업, 제3부문 등의 각계로부터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 부모 네트워크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 지역사회 아동보육을 위한 무직 부모들의 전문적 교육 지원 및 보육교사로의 양성

현재 한국사회에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무직 상태에 있는 부모들을 전문적 보육교사로서 양성해서 긴급히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내 기업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육이

교육과정을 무료로 이수하면 가정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저소득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실업률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게 되며,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라.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경제계와의 협력체제 구축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청년실업, 청년들의 ‘3포’시대를 맞아 정부는 부족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의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보육과 청소년의 진로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들이 출산과 교육, 취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기업들의 전문 인력이 출산이나 보육문제로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동보육과 청소년 진로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기타 기업체의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기업이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부모네트워크 협의체를 지원하고, 무직 부모들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마련한다.

마.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직업역량개발 전문 인력풀 구성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가장 실질적인 복지는 직업역량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 지역사회 내 유휴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거나 실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인턴으로 고용하여 직업역량을 개발하는 멘토나 교사로 위탁하여 우선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부터 직업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한부모·조손가정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부모가정, 조모가정, 조부가정 등의 가족유형(구성

원)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르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 또한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부모교육서비스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정의 경우 초기에 심리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자녀교육, 경제교육, 자원관리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찾아다닐 만큼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가복지차원에서 건강가정지도사나 한부모가정지도사가 직접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둘째, 조손가정은 조부모 혹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잘못된 자녀양육방법, 직업이나 직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아동의 학업성취 능력 및 학교생활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모역할교육을 체계적·장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해 부모의 역할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히 대행·수행하도록 하는 양부모제도나 가정위탁제도와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 조부모 대리가정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첫째,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아동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누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아동의 상황과 양육하게 될 보호자의 의사나 양육능력에 대한 포괄적 사정에 기초하여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나 가족들이 임의로 조부모에게 손자녀를 양육하도록 하기보다는 적절한 사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조손세대들 중 현재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 전문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된 사례는 조부모대리가정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친부모가 가출이나 실직, 취업, 장기질환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조손가정세대로 생활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부모대리가정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에서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전문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청소년보호 지원 정책

가. 아동학대 시설 확대 및 가족교육 강제권 도입

첫째, 현재 학대당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긴급 시에는 일시보호를 3일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에 따라 일시보호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가정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은 운영하고 있으나 치료를 병행하는 거주형 치료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위험한 아동학대의 조기치료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피학대 아동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사후관리는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업무를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복지관 등이 아동학대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사업형태로 운영·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아동학대 부모에 대해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부모가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나. 약물·성매매·성폭력·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 강화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군별로 의무교육을 실시토록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한 법집행 수준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에 대한 허용기준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 중심 지원체계

미국과 같은 트리플 피 이니셔티브(Triple P Initiative)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녀양육에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들에게 정보와 양육실천기술의 공동된 틀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통합적 개입 전략으로 구성된다. 사회학습이론, 아동과 가족의 행동치료, 그리고 일상 상황에서의 양육에 관한 발달적 연구 등에 근거하여 모든 개입들은 건강한 양육기술을 가르치고 부정적 양육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양육기술은 두 개의 통로를 통해 전달된다.

첫째는 일반 트리플 P로서 미디어 기반의 사회마케팅 전략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모의 원칙에 대해 교육하고 공통된 아동 돌봄 이슈들을 다루는 일련의 단순한 기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안전, 행동관리, 규율전략 및 기본 건강보호 등이며 이 정보들은 지역신문, 학교소식지, 광고우편물, 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되도록 한다.

둘째는 선택 트리플 P로서 이는 해당부모들에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 양육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에 아동양육과 관련된 주제로 교육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일정부분 시행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CYS-Net이나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것들이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5) 여가생활 지원 정책

가.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

가) 바우처 또는 비용지원 실시

현재 바우처의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18세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해당기관에 조세감면을 지원한다.

나) 1인 1 스포츠 활동 지원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면서 하나의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방과 후 체육활동 활성화 및 1인 1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발달 이력관리제를 통하여 스포츠 활동 경력을 자기계발 영역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나. 문화활동 지원 정책

가) 문화활동 지원 체계의 강화

정부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170만 가구/327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제도를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소년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간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지역문화 기반 확충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현재 도시와 농촌 간, 서울과 지방간 문화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단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확충하거나, 청소년문화존이나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등을 통한 공연, 체험, 영상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 문화특기생 지원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생 양성 등 엘리트 체육과정을 통하여 체육특기생을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갖춘 자녀들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지원처럼 문화특기생으로 인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 기량이 있는 사람은 메세나협회의 문화예술교육 등과 연계하여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다. 정보화 활동 지원 정책

가)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

현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PC 및 통신비를 지급하였으나 정보이용에 대한 지도·교육 없이 인프라만 제공함으로써 게임중독 등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위기아동·청소년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에 게임중독 예방 및 올바른 PC사용,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정보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정보 활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법 중 특히 네티켓, 유용정보와 무용정보 가리기, 인터넷의 장단점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IT나 정보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과정을 개설해주거나 집중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한다.

아래에 제시한 정책 로드맵은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에서 제시된 정책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실태 분석 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요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여기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IV-2〉에서 제시된 추진로드맵은 학교부적응 분야, 여가생활지원 분야, 위기가정지원 분야, 지역사회안전망 지원 분야, 방과 후 자녀지도 및 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 관련대상별, 주요추진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추진주체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으로 정부부처 간 개별적 또는 협력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표 IV-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지원 측면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학교 부적응	친구 와의 관계 개선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교육강화	○				○		○			○		교육과학 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		○			○				교육과학 기술부	여성가족부
		도래 멘토제 등 자체 멘토링 운영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사례관리	○			○			○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	○						○			○	○	교육과학 기술부	
		Wee센터 등 피해청소년 극복 프로그램 운영		○			○					○		교육과학 기술부	
	학생 교사 관계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	○			○			○			○		교육과학 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기해 부모관련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교육과학 기술부	
		부적응 학생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제도 도입	○			○			○			○		교육과학 기술부	
		인권, 상담 등 교사 전문연수 강화		○			○		○			○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원만 관계 유도			○		○		○					교육과학 기술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지원 측면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부적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		○			○	○	교육과학기술부
		참여교육, 협동교육 등 교수방법 개발 및 보급			○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내 인성 교육 등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	○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내 예절교육 강화			○		○		○					교육과학기술부
	가정 문제 해결 지원	부적응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		○	○		○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			○	○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상담기능 강화			○	○			○	○				교육과학기술부
		가족상담 치료 지원		○			○				○	○	○	여성가족부
		가족의 밤 행사 등 학교-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			○		○		○			여성가족부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참여 지원	○			○		○			○	○	○	여성가족부
	낮은 성적/수업 문제 해결	성장 시기에 적합한 지적발달 프로그램 운영			○		○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 후 교육지도 및 지도교사 배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멘토링 및 자원봉사 연계		○		○	○	○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과업, 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			○	○	○		○			여성가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지원 측면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여가 생활 지원	스포츠 활동	수준별 학습 실시		○			○		○				교육과학 기술부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			○			○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체육, 클럽활동 등 학교차원의 지원	○					○				○		교육과학 기술부	문화체육관 광부
		바우처를 통한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			○					○	○	문화체육관 광부	교육과학기 술부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문화체육관 광부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무료이용 확대			○	○							○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 활동	아동·청소년 전용 스포츠 시설 확대			○	○							○	문화체육관 광부	
		특기생 지원			○		○						○	문화체육관 광부	
		지역 내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			○				○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활동 특기생 지원 마련	○				○					○		문화체육관 광부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문화활동 환경 조성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 바우처 확대(5만원에서 10만원)		○									○	문화체육관 광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지원 측면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		○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 연계 참여 기회 확대		○			○	○		○				문화체육관광부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실시	○				○				○	○		여성가족부
		1인 1특기 재능 키우기 시스템 도입			○	○			○		○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 접근정보 콘텐츠 등급화 시행	○			○						○		방송통신위원회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		○		○		○				○		행정안전부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 강화	○			○	○		○		○	○		교육과학기술부
		UCC대회 등 긍정적 정보활동 지원		○				○				○	○	행정안전부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교육 및 지원	○			○			○			○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위기가정 및 방과 후 활동기관에 정보통신 윤리교사 파견		○				○						여성가족부
	정보화 활동	청소년 시설에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 설치			○	○					○			여성가족부
		PC지원, 핸드폰 요금 등 기초 정보활동 비용 지원		○		○						○		행정안전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 도적 추진	교육적 추진	사회적 지원 추진	학교 학급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위 가 정 지 원	자녀 교육 지 원	교육비 지원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 멘토링 지원(교육정보 제공)	○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 기술부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서비스		○			○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 기술부
		방과 후 학습 지원	○					○	○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 기술부
		학습 도우미 교사 지원		○		○		○			○	○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 기술부
	자녀 생활 지 원	학습부진아, 예체능 재능자에 대해 개별지도 지원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조손가정 연금(수당) 지원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연령별 양육수당 차등화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종 쿠폰, 바우처 지급 혹은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할인 지원		○		○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녀 생활 지 원	아동양육비 상향조정(월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부모 발생 후 초기 일정기간동안 생활형 편에 따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선지급제도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리양육 뿐 만 아니라 직접 양육 시에도 전세금 대출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 도·적 촉면	교육적 촉면	사회적 지원 촉면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자녀 양육자 취업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			○		○					○	여성가족부	노동고용부
		아동 주양육자 고용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		○				○	○	여성가족부	노동고용부
		사업자금 지원의 현실화		○		○						○	○	여성가족부	노동고용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			○					○	○	○	여성가족부	노동고용부
		창업지원 및 컨설팅		○		○		○			○	○	○	여성가족부	노동고용부
		자녀 양육 시 시간을 고려한 아르바이트 기회확대	○			○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고용부
		최저생계비 현실화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도 자립 시까지 수 급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현재 소수빈곤층 지원 제한을 부양자의 질 병, 근로능력 등의 상황에 맞게 지원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조손가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 수당, 의료혜택, 교육비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 안전 망 정책	네트 워크 인프라 지원	수급자 선정방식을 재산기준보다 월소득 기준방식으로 변경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부모(조손가정포함) 가정지원센터 설치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체계 구축		○		○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시설 등 통합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			○						○	○	여성가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적·추진	교육·적·추진	사회·적·추진	학교	지역·사회	시설·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지원체계인 Wee센터, 드림스타트, 청 소년상담전화 등간의 유기적 연계 조정 지 역허브기관 필요		○		○				○	○	○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 기술부
		CYS-Net내에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전담 요원 배치	○			○					○	○	○	보건복지부
		중앙 - 광역 - 시군구 기관의 역할 정비			○	○					○	○	○	보건복지부
		상담 및 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	○					○	○		○	○	○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지체별 1개소 설치		○		○						○	○	보건복지부
		대학생, 이웃사촌 브릿지 등 멘토링 확대 보급			○	○		○		○	○	○	○	보건복지부
		반편견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	○	○		보건복지부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강화		○		○		○		○	○	○	○	보건복지부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			○					○	○	○	보건복지부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 브 제공			○		○					○	○	보건복지부
한부모 가정 문제 해결 (모자)		대리부모 연계사업			○			○			○	○		보건복지부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	○			○						○	○	보건복지부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		○		○						○	○	고용노동부
		자녀 돌봄 지원	○			○		○			○	○	○	보건복지부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				○		○		○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		○				○	○	○	○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		○							○			보건복지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 도·적 촉면	교육적 촉면	사회적 지원 촉면	학교 학급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	○				○		○		○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지원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부모 가정 문제 해결 (부자)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	○			○					○	○		노동고용부, 교육과학 기술부
		자녀 돌봄 지원	○			○	○				○	○	○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		○				○			○	○		보건복지부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					○	○					보건복지부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	○		○			보건복지부
조손 가정 문제 해결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	○					○	○	○				보건복지부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		○				○	○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					○	○	○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		○				○		○	보건복지부
		조손가정 수당 등 경제적 지원	○			○						○	○	보건복지부
		가사도움 지원	○			○					○	○		보건복지부
		손자녀 양육지원서비스		○		○		○		○	○	○		보건복지부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		○		○		○		○	○	○		보건복지부
		대리부모 결연지원			○	○		○		○	○	○	○	보건복지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 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측면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심리상담, 손자녀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학원연계 등 사교육 서비스 지원	○				○			○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 기술부, 보건복지부
		대학생, 재능기부자 등 1:1 멘토링 지원	○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고 용·취업·직업 교육·학원·기 타기관
		문화체험교육활동 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과 후 학습지원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특기교육 지원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과 후 자녀 지도 및 지원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매체활용 교육지원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사연수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비전 및 진로 교육 등 정기적인 특강 실시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지도 및 보호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CYS-Net 등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과 후 활동의 야간 및 주말보호 지원확대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역 내 상담원과 1:1 결연 등 멘토링 서비스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 도 적 추진	교육적 추진	사회적 지원 추진	학교	지역 사회	시설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생활 지도 지원		가정 내 보호를 위한 아동지도사 파견제 실시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기적인 생활지도 도우미 방문지도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가정 방문 등 학교차원의 개입 서비스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과 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육 강화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생활교육, 정서조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동반자, 상담자 등 멘토링 서비스 강화		○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가정 내 생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파라치제도 도입		○		○				○		○	○	여성가족부 경찰청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성희·김주희(1997). 교통유자녀 가족의 친족관계에 대한 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제1호, pp. 167-187.
- 강현아(2005). 위탁아동의 학업성취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위탁부모의 학업성취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위탁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26권 제5호, pp. 59-72.
- 고성혜·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pp. 60-73.
-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40권, pp. 5-37.
- 김경신(2002). 한부모가정 아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 김미혜·김혜선(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4권 제3호, pp. 153-170.
-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미·이재연(2006).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인식.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3호, pp. 321-342.
- 김서영·안다영(2010). 가구 면접조사에서 무응답률과 무응답 편향: 지역별고용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통계개발원.
- 남명숙(1999).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전.
- 성윤숙·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 정책연구원.
- 아산사회복지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 옥선화 · 최새은 · 권소영 · 강유진(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pp. 181-191.
- 이봉주 · 김광혁(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제11권 제3호, pp. 333-359.
- 이종성(2006). **델파이방법(연구방법21)**. 서울: 교육과학사. pp. 1-140.
- 이혜연 외(2009).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화진(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정란(2003).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서울.
- 정선규(2004). **광주지역 가정위탁부모의 유형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 정소희(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0권, pp. 185-213.
- 조성신(1999).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대리적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조성연(2003).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2권 제5호, pp. 579-593.
- 조성연(2004).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제 3주제 발표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 주봉관(2000).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 조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지은옥(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0권 제3호, pp. 187-211.
- 채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pp. 207-222.
- 최명구 · 이인수(2004). 가족유형에 대한 교사의 가치관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인식간의

- 관계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제13권 제2호, pp. 5-18.
- 한국여성개발원(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허정원(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숙(2001).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trong, J. S.(2002). Principles of forecasting: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
- Attar-Schwartz, S., Tan, J. P., Buchanan, A., & Flouri, E.(2009). Grand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Two-Parent Biological, Lone-Parent, and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3 No. 1, pp. 67-75.
- Benaire, M.(1988). Delphi and delphi-like approaches with special regard to environmental standard setting.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33 No. 2, pp. 149-158.
- Berrick, J. & Barth, R.(1994). Research on kinship foster care: what do we know? where do we go from he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6 No. 1-2, pp. 1-5.
- Burton, L. M.(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nicee needs. *the Genontologist*, Vol. 32 No. 6, pp. 744-751.
- Birdir, K. & Pearson, T. E.(2000). Research chefs competencies: a delphi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 12 No. 3, pp. 205-209.
- Bratteli, M., Bjelde, K., & Pigatti, L.(2008). Grandparent and Kinship Foster Care: Implications of Licensing and Payment Polic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51, pp. 228-246.
- Copen, C. E.(2006). Welfare Reform: Challenges for Grandparents Raising

- Grandchildren.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Vol. 18 No. 3/4, pp. 193-209.
- Elkind, D.(1990). *Grandparenting: Understanding today's children*. Rosement, NJ: modern Learning.
- Jensen, C. & Anderson, L.(1996). *Delphi in-depth*. Osborne: McGraw-Hill.
- Jendrek, M. P.(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No.1, pp. 609-921.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s(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 233-28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ornhaber, A.(1995). *Grandparent power: How to strengthen the vital connection among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New York: Crown.
- Linstone, H. A. & Turoff, M.(ed).(1975).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Linstone, H. L.(1978). The Delphi technique. In: J. Fowles. Ed. *Handbook of futures research*. London: Greenwood Place.
- Miller, P., Ryan, P., & Morrison, W.(1999). Practical strategies for helping children of divorce in today's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Vol. 75 No. 5, pp. 285-289.
- Minkler, M.(1994). Grandparents as parents: The Americal experience. *Aging International*, Vol. 21 No. 1, pp. 24-28.
- Minkler, M. & Roe, K. M.(1996).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Vol 20, pp. 34-38.
- Minkler, M.(1999). Intergeneraional households headed by grandparents: contexts, realiti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 13 No. 1, pp. 199-218.
- Murry, J. W. & Hammons, J. O.(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Review of Higher Education*, Vol. 18 No. 4, pp. 423-436.

- Rowe, G., Wright, G. & Bolger, F.(1991). Delphi: A revaluation of research and Theo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39 No. 4, pp. 235-251.
- Shin, S. H., Choi, H. S., Kim, M. J., & Kim, Y. H.(2010). Comparing adolescents' adjustment and family resilience in divorced famil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primary caregiver.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9, pp.1695-1706.
- Tillmam, T. S.(1989). *A delphi study to identify fundamental competency areas for certification testing of manufacturing technologists and entry-Level manufacturing engineers*, Purdue University, W. Lafayette, 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p. 1-210.
- Timonen et al.,(2009). Family Support Agency: The Role of Grandparents in Divorced and Separated Family: Report.
http://www.fsa.ie/fileadmin/user_upload/Files/The_Role_of_Grandparents_in_Divorced__Separated_Families.pdf.
- VanderValk, I., Spruijt, E., Goede, M., Maas, C., & Meeus, W.(2005). Family Structure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Growth-Curve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4 No. 6, pp. 533-546.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1990).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 Webler, T., Levine, D., Rakel, H. & Renn, O.(1991). A novel approach to reducing uncertainty: The group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39 No. 4, pp. 253-263.
- Wei-Qun, L. V. & Chi, I.(2008). Measuring grandparenthood stress and reward: Developing a scale based on perceptions by grandparents with adolescent grandchildren in Hong Kong. *Japan Geriatrics Society*, Vol. 8, pp. 291-299.

- Woudenberg, F.(1991). An evaluation of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40 No. 2, pp. 131–150.
- Yuxiang, C., Donghua, Z. & chaggeng, L.(1990). Applications of the delphi method in Chin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38 No. 4, pp. 293–305.

.....

부부

부 록

부록 1.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담당자 : 성윤숙 연구위원(2188-8823)

김영한 선임연구위원(2188-8845)

조사기관 ID							
조사 일시	2011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 다음은 학생의 경제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 학생의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원)

문 2. 학생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2-1」로 가세요
② 없음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학생은 주로 언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거의 매일 ② 주말 ③ 방학 때
④ 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문 2-2. 학생이 최근 1년간 경험한 아르바이트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오랜 시간동안 한 아르바이트를 아래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패스트푸드점 ② 신문,잡지배달 ③ 팜플렛,스티커 배달
④ 편의점, 주유소 ⑤ PC방 종업원 ⑥ 물건판매
⑦ 기타

문 3. 귀하는 부모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까?

- ① 받은 적 없다 ② 형제나 남매 ③ 친척
④ 이웃 등 지역에서 아는 사람 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⑥ 국가 ⑦ 기타

※ 다음은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가족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4.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와의 자주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학생은 가출하려고 마음먹거나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 ① 시도한 적이 있음 ② 시도한 적 없음

문 6. 학생은 학생의 가족들이 술을 마신 모습(예: 술을 마셔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취한 모습 등)을 얼마나 자주 보나요?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이하 ⑥ 한번도 본 적 없음

문 7. 학생은 학생의 가족들이 가족끼리 또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나요?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이하 ⑥ 한번도 본 적 없음

문 8. 학생의 부모님들은 학생 및 학생의 형제/자매들에게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폭력을 사용하나요?

- ① 폭력을 사용함 ➡ 「문 8-1」로 가세요
② 폭력을 사용하지 않음 ➡ 「문 9」로 가세요

문 8-1.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주 폭력을 사용하시나요?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이하

문 9. 학생의 가족 중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몸이 아파 돌봐주어야 하는 가족이 있나요?

- ① 있음 ② 없음

※ 다음은 귀하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0. 다음 항목을 읽고, 각 항목마다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학교친구들은 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에게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문 11. 다음 항목을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각각 골라주세요.

	전혀 하지않음	별로 하지않음	약간 하는편임	매우 자주함	잘 모르겠다
1)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 이유없이 무단 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를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께서 하고 있는 학교 활동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문 12.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 활동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3.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 귀하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말
④ 월2-3회 ⑤ 월 1회 이하

문 15. 귀하께서 동네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가장 자주만나는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주변 ② 학교나 공원 ③ 학원
④ PC방 ⑤ 기타

문 16. 귀하의 집과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다음은 학생의 일상 생활 속 경험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7. 귀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1개월 내 술을 마신적은	①	②
2)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적은	①	②
3) 1개월 내 본드를 흡입한 적은	①	②

문 18. 귀하는 생활 속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최근 1년 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①	②
2)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 등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	①	②
3) 최근 1년 내 친구나 후배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	①	②
4)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하였다.	①	②
5) 최근 1주일 내에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①	②
6)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가출) 적이 있다.	①	②
7) 최근 1년 내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게임, 성인잡지 등)을 보았다.	①	②
8) 최근 1년 내 유해업소(술집, 소주방, 호프집,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를 출입하였다.	①	②
9) 최근 1년 내 성추행(강제로 이성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했다.	①	②
10)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했다.	①	②

※ 다음은 학생의 여가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9. 학생은 주중 하루동안, 아침 등교 전 혹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은 일은 얼마나 많이하나요? 아래의 각 내용에 대해 하루 평균 얼마나 하는지를 적어주세요.(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입해 주세요)

* 예를 들어 하루에 딱 6시간만 잔다고 하면 6 시간 0 분으로 기입해 주세요.

* 전혀 하지 않는다면 0 시간 0 분으로 기입해 주세요.)

- 1) 하루 중 수면 시간 (시간 분)
- 2) 하루 중 TV시청 시간 (시간 분)
- 3) 하루 중 인터넷 사용 시간 (시간 분)
- 4) 하루 중 집에서 공부시간(주중) (시간 분)
- 5) 하루 중 가족과 대화 시간 (시간 분)
- 6) 하루 중 학원에 있는 시간 (시간 분)
- 7) 하루 중 운동 등 바깥활동 시간 (시간 분)
- 8) 위의 시간외에 기타 시간은 (시간 분)

문 20.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1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십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친구 ② 가족 ③ 컴퓨터
④ 게임기(닌텐도, X-BOX 등) ⑤ 기타

문 22. 학생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문 23에서 문 25번까지는 학생의 컴퓨터, 인터넷, 휴대용 게임기 이용 빈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입해 주세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 0 회'로 기입해 주세요

문 23. 컴퓨터는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 회)

문 24.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터넷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 회)

문 25. 휴대게임기(닌텐도, X-Box, PMP 등)는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 회)

문 26. 학생은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26-1」로 가세요
- ② 없음 → 「배문1」로 가세요

문 26-1. 휴대폰 요금은 한달 평균 얼마 정도를 내나요?

- ① (월 원) ② 잘 모르겠음

문 26-2. 휴대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위해 ② 무선 인터넷을 하기 위해
 ③ 음악을 다운받거나 듣기 위해 ④ 게임을 하기 위해
 ⑤ 기타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아래에서 귀하의 가족유형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유형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3. (배문 2에서 부모님이 모두 계시거나, 아버지만 또는 어머니만 있는 학생들만 응답합니다)

부모님은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부모님의 국적	
	한국인	외국인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배문5.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6. 귀하의 학업 성적(201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귀하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질문지를 통하여 전문가이신 귀하의 의견을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며, 귀하의 견해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담당자 : 성윤숙 연구위원(2188-8823)

김영한 선임연구위원(2188-8845)

응답자		소속기관명	
비용지급자료	1. 주민등록번호 : 2. 지급은행 (은행명) (계좌)		

1. 다음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2. 다음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3.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의 관계문제 (학교폭력 및 왕따)	
교사와의 관계문제	
가정 문제	

경제문제	
수업문제 (낮은 성적)	
기타 다른 이유	

4. 다음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문제 개선과 자녀양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5. 다음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자녀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지도	
아동·청소년 보호	
생활지도	

6.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정보화 활동	
기타 여가활동	

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학 교	
지역사회	

8. 귀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대책연구’의 일환으로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전문가이신 귀하의 의견을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며, 금번은 2차 조가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지에 답변하신 귀하의 견해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담당자 : 성윤숙 연구위원(2188-8823)

김영한 선임연구위원(2188-8845)

응답자		소속기관명	
비용지급자료	1. 주민등록번호 : 2. 지급은행 (은행명) (계좌)		

☐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응답의 중요도를 V표를 해주시고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1】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친구와의 관계 개선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교내 상벌제도 개선 및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2) 가해 부모관련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Wee센터 등 피해청소년 극복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7) 또래 멘토제 등 자체 멘토링 운영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2】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인권, 상담 등 교사 전문연수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부적응 학생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3) 참여교육, 협동교육 등 교수방법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내 인성 교육 등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 원만관계 유도	①	②	③	④	⑤
(6) 부적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내 예절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3】 가정문제 해결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부적응학생 가정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지역사회기관 연계 상담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의 밤 행사 등 학교-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상담 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4】 낮은 성적과 수업문제 해결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성장 시기에 적합한 지적발달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2) 수준별 학습 실시	①	②	③	④	⑤
(3) 특별과업, 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방과 후 교육지도 및 지도교사 배치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생 멘토링 및 자원봉사 연계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전담교사제를 통한 소그룹 학습지도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응답의 중요도를 V표를 해주시고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5】 스포츠 활동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학교체육, 클럽활동 등 학교차원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바우처를 통한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스포츠시설 무료이용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청소년 전용 스포츠 시설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생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내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6】 문화 활동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문화 바우처 확대(5만원에서 10만원)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문화활동 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 연계 참여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문화활동 특기생 지원 마련	①	②	③	④	⑤
(5)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실시	①	②	③	④	⑤
(6) 1인 1특기 재능 키우기 시스템 도입	①	②	③	④	⑤
(7)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7】 정보화 활동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위기가정 및 방과 후 활동기관에 정보통신윤리교사 파견	①	②	③	④	⑤
(2) PC지원, 핸드폰 요금 등 기초 정보활동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시설에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 설치	①	②	③	④	⑤
(4) UCC대회 등 긍정적 정보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교육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빈곤가정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아동·청소년 접근정보 콘텐츠 등급화 시행	①	②	③	④	⑤
(8) 미디어 정보 소양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 위기가정(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응답의 중요도를 V표를 해주시고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8】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 학습 도우미 교사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방과 후 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교육 멘토링 지원(교육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학습부진아, 예체능 재능자에 대해 개별지도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10】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취업관련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맞춤형 취업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창업지원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3) 아동 주양육자 고용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사업자금 지원의 현실화	①	②	③	④	⑤
(5)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자녀 양육 시 시간을 고려한 아르바이트 기회확대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9】 자녀의 생활관련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적용 연령을 18세까지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조손가정 연금(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아동연령별 양육수당 차등화	①	②	③	④	⑤
(4)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선지급제도	①	②	③	④	⑤
(5) 각종 쿠폰, 바우처 지급 혹은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할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아동 양육비 상향조정(월5만원에서 10만원이상)	①	②	③	④	⑤
(7) 대리양육 뿐 만 아니라 직접 양육 시에도 전세금 대출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 발생 후 초기 일정기간동안 생활형편에 따라 생활비, 양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 위기가정(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응답의 중요도를 V표를 해주시고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11】 자녀의 양육자 수급관련 지원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최저생계비 현실화	①	②	③	④	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①	②	③	④	⑤
(3) 수급자 선정방식을 재산기준보다 월소득 기준방식으로 변경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자립 시까지 수급지원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소수빈곤층 지원 제한을 부양자의 질병, 근로능력 등의 상황에 맞게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조손가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수당, 의료 혜택,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12】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지원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CYS-Net내에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전담요원 배치	①	②	③	④	⑤
(2) 중앙 - 광역 - 시·군·구 기관의 역할 정비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시설 등 통합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5) 한부모(조손가정포함) 가정지원센터 설치	①	②	③	④	⑤
(6) 정부지원체계인 Wee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전화 등간의 유기적 연계 조정 지역허브기관 필요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13】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관련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상담 및 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2)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자체별 1개소 설치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생, 이웃사촌 브릿지 등 멘토링 확대 보급	①	②	③	④	⑤
(4)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7) 대리부모 연계사업	①	②	③	④	⑤
(8) 반편견 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14】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양육비, 학비 등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취업, 직업교육, 창업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한부모가정 모임 등 유사문제 자조모임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 내 한부모 모임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의 관계 개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9) 반편견 교육 등 사회적 편견 개선 사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모자가정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 부자가정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15】 조손가정 문제 해결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조손가정 수당 등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가사도움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손자녀 양육지원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학습도우미 파견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심리상담, 손자녀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대리부모 결연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자녀지도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응답의 중요도를 V표를 해주시고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16】 학업지도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학원연계 등 사교육 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대학생, 재능기부자 등 1:1 멘토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방과 후 학습지원	①	②	③	④	⑤
(4) 특기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체험교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매체활용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사연수	①	②	③	④	⑤
(9) 비전 및 진로 교육 등 정기적인 특강 실시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17】 보호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지역아동센터, CYS-Net 등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지도 및 보호	①	②	③	④	⑤
(3) 방과 후 활동의 야간 및 주말보호 지원확대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5) 지역 내 상담원과 1:1 결연 등 멘토링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6)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가정 내 보호를 위한 아동지도사 파견제 실시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18】 생활지도 지원 정책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가정 방문 등 학교차원의 개입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생활교육, 정서조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①	②	③	④	⑤
(4) 정기적인 생활지도 도우미 방문지도	①	②	③	④	⑤
(5) 동반자, 상담자 등 멘토링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가정 내 생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파파라치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nalysis of Children · Youth Living Status By Family Type and Research on Countermeasures – Focused on Children · Youth in Family with One parent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social support measures for the children and youth in families with one parent or grandpar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ving status of children · youth in families raised by one parent · grandparents.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ving status of children · youth in crisis family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part-time job was higher in families with grandparents than in families with one parent in terms of their family life and the period of part-time job was random. In terms of family relationship, children in one-parent family shows close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an families with grandparents. In terms of communications with parents, children · youth in one-parent families showed little or no dialogues with their parents rather than families with grandparents. The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is similar in both families with one-parent or grandparents. As it showed many cases in children · youth in economically bad situations while living in city, gun areas, it is urgent to have running away prevention education and prepare for the urgent protection system for run away youth.

In school lives, children with lower economic level showed more complaints in terms of human relationship. The satisfaction level toward homeroom teachers showed higher level in families with one parent than children in families with grandparents. In the school problems, the experience of assaulting · being assaulted, such as physical violence, use of curse towards friends showed higher level in children with one parent rather than children in families with grandparents.

Open resistance toward teachers was higher in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than children with one parents. In terms of local community life, the help level of local community and the satisfaction of local society was generally high and both are higher in families with one parent than families with grandparents.

In drug abuse, Seoul showed the highest in terms of drinking experience, and in terms of smoking, families with grandparents showed higher level than families with one parent. In living misdeed, the frequency of going to harmful business was highest in cities-guns, and families with grandparents showed twice high compared with families with one parent. Sleeping hours and visiting hours to private academies were higher in families with grandparents. TV watching hours are relatively higher in families with one family, showing the necessity of directing children · youth in families lack of caring from parents for media education. The level of using public facilities among leisure life showed higher in families with one parent than families raised by grandparents. Major purpose of using cellular phones in the informatization life was the highest in communicating and text messages, and cellular phones are more possessed by children in families with grandparents than families with grandparents and female possess more than male.

Second, we suggested children · youth support policies by each family type based on the opinions of specialists to establish children · youth policies by family types.

Key Words : family type, family structure, living status of children · youth, family with one parent, family with grandparents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소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해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재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중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중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중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중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봉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 · 대표)

박영숙 (지역아동정보센터 · 단장)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무관)

오승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과장)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과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교수)

조양자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 회장)

최승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무관)

황혜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교수)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 센터장)

홍성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연구보고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대책 연구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리드릭 전화 02)2269-191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54-7(93330)

978-89-7816-952-3(세트)